

연구보고서 2020-05

연구보고서 2020-05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신태중
이상범

신태중
이상범



ISBN 979-11-87917-37-3

연구보고서 2020-05

발행일 2020. 12. 31.

발행인 이남신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 6935-4359 상담전화 02)376-0001 Fax.070-8250-4349 www.labors.or.kr

서울노동권익센터

I·SEOUL·U 서울노동권익센터

발 간 사

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적 재난은 우리사회 전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의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위기, 고용충격에 의한 비정규직의 생존위기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은 IMF 구제금융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 이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여,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의 저소득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일하는 시간이 줄고, 임금은 감소하며, 실직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어 코로나19 전후로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는 노동자도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의 취약계층 노동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생존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노동자일수록 더 두터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고용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임시일용직,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이 더 큰 위기를 겪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고용안전망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 실업대책, 생존위기대책 등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집중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생활실태 변화를 확인하고, 정책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일자리와 생활에서의 변화를 검토하고, 서울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신 우상범 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피해 상황을 진솔하게 전달해주신 면접조사 참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가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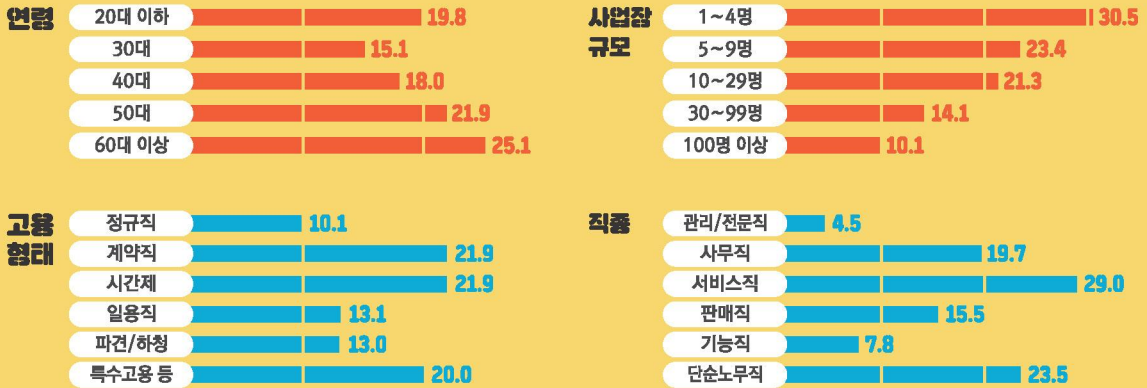
2020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이 남 신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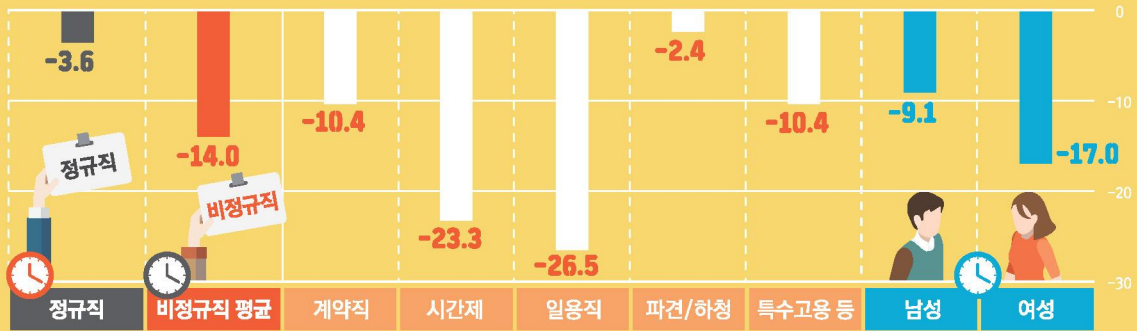
Infographic

연구대상 : 서울지역 노동자
응답자 1,003명, 신뢰도 96%, 표본오차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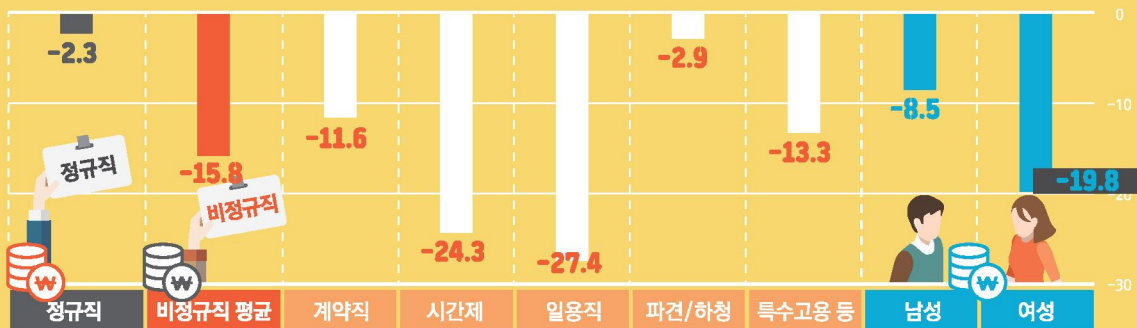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코로나19 이후 노동시간 변화(%)



코로나19 이후 임금 변화(%)



업무강도 변화(%)

노동시간 감소에도 업무강도가 높아진 노동자 비율



필수업무
노동자



기타
노동자

실직 경험(%)

비정규직 평균 9.8

계약직 4.5

시간제 15.0

파견/하청 1.5

일용직 26.0

특수고용 등 4.5



*미수급 사유 '고용보험 미가입' 91.8%

환경변화 인식(%)

● 정규직 ● 비정규직



가구 소득과 부채 변화(%)



비정규직 52.5

정규직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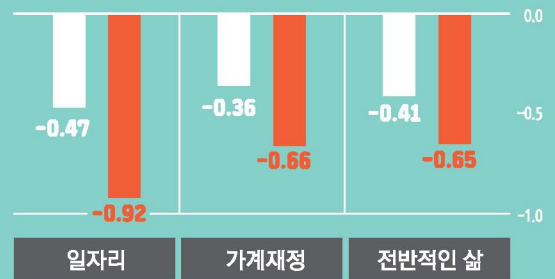


비정규직 14.6

정규직 3.0

만족도 변화(10점 척도)

● 정규직 ● 비정규직



지원정책

고용안전망 확대

취약계층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직업훈련 지원

실직 등에 의한 전직 희망자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과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 노동자 권익보호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상담 및 권리구제

소득감소 노동자 지원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해대변 조직 지원

노조 등 이해대변 조직 설립 및 활동 지원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대상 및 방법	3
3. 연구내용 및 구성	4
II.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동향	5
1. 개요	5
2. 서울지역 고용동향	6
1) 경제활동참가율	6
2) 고용률	7
3) 실업률	9
4) 취업자	10
3. 서울지역 구직급여	21
1)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21
2) 인적 속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23
3)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27
4)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29
5)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30
4.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32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32
2)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33
3)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35
5. 소결	37
III. 코로나19 노동자 지원정책	39
1. 개요	39

2. 중앙정부 노동자 지원정책	40
1) 고용유지지원금	40
2) 일자리안정자금	42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3
5) 가족돌봄휴가	45
6) 건설일용직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47
7)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47
8) 청년구직활동지원	48
3. 서울시 노동자 지원정책	48
1)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48
2)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지원	51
3) 청년 지원	53
4) 노동권리대책반	53
4. 소결	54
IV.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57
1. 조사개요	57
2. 노동환경 변화	60
1) 노동시간 변화	60
2) 임금(소득) 변화	65
3) 임금(소득) 변화 이유	69
4)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특성	70
5) 업무강도 변화	72
6) 사업장(일자리) 조치와 경험	74
7)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75
8) 사업장 방역 활동	76
3. 실직경험과 구직	78
1) 실직경험	78
2) 실직 이유와 기간	79
3) 실업급여 수급	81

4) 실직기간 활동	81
4. 환경변화 인식	82
1) 코로나19 감염 우려	82
2)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84
3)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87
4) 코로나19 지속가능성	89
5) 과거로 회복가능성	91
6) 코로나19에 의한 실직 우려	92
7)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	94
8)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	97
9) 코로나19 사회변화 영향 인식	101
10)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	101
5. 생활실태 및 만족도	103
1)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	103
2) 가구 소득 및 부채 변화	105
3) 현재 가구 재정상태	111
4) 내년 가구 재정전망	113
5) 만족도	115
6) 코로나19 일과 생활 어려움	121
7) 서울시 역할	122
6. 정책	122
1) 정책수혜	122
2) 정책수요	124
7. 소결	126
V.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30
1. 면접조사 개요	130
1) 면접 대상자 현황	130
2) 질문지 구성 내용	130
2.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131

1) 임금 및 노동조건 변화	131
2) 생활실태	137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내용	140
4) 노동자의 환경변화 인식	141
3. 코로나19에 대한 노사관계	143
1) 사용자의 대응	143
2)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	147
4. 코로나19 이후 계획	148
5. 소결	149
V. 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정책지원 방안	155
1. 연구결과 요약	155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155
2) 면접조사 결과 요약	157
2. 서울시 정책방안	158
1) 고용안전망 확대	158
2) 직업훈련 지원	159
3)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160
4) 피해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160
5)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61
6) 이해대변 지원	162
참고문헌	164
부록	166

- 표 목차 -

〈표 1-1〉 고용대책에 취약한 노동자 규모	2
〈표 2-1〉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	6
〈표 2-2〉 서울지역 고용률	8
〈표 2-3〉 서울지역 실업률	9
〈표 2-4〉 서울지역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10
〈표 2-5〉 서울지역 성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12
〈표 2-6〉 서울지역 연령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14
〈표 2-7〉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16
〈표 2-8〉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18
〈표 2-9〉 서울지역 직종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20
〈표 2-10〉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	22
〈표 2-11〉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24
〈표 2-12〉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수급자	25
〈표 2-13〉 서울지역 연령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감률	27
〈표 2-14〉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28
〈표 2-15〉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29
〈표 2-16〉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30
〈표 2-17〉 서울지역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31
〈표 2-18〉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32
〈표 2-19〉 서울지역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지급인원	33
〈표 2-20〉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34
〈표 2-21〉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36
〈표 3-1〉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41
〈표 3-2〉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부담 변화	42
〈표 3-3〉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43
〈표 3-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4
〈표 3-5〉 가족돌봄휴가 지원	46
〈표 3-6〉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49
〈표 3-7〉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내용	50

〈표 3-8〉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비교	51
〈표 3-9〉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51
〈표 3-10〉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용자 사업	52
〈표 4-1〉 주요 설문조사 문항	58
〈표 4-2〉 응답자 특성	59
〈표 4-3〉 주당 평균노동시간 변화1	61
〈표 4-4〉 주당 평균노동시간 변화2	62
〈표 4-5〉 월 평균임금(소득) 변화1	65
〈표 4-6〉 월 평균임금(소득) 변화2	66
〈표 4-7〉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70
〈표 4-8〉 주당 평균노동시간과 업무강도 교차분석	73
〈표 4-9〉 업무강도 변화	73
〈표 4-10〉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	75
〈표 4-11〉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76
〈표 4-12〉 코로나19 이후 실적 경험	78
〈표 4-13〉 특성별 실적 이유	80
〈표 4-14〉 코로나19 감염 우려	83
〈표 4-15〉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85
〈표 4-16〉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87
〈표 4-17〉 코로나19 영향 지속가능성	89
〈표 4-18〉 코로나19 이후 과거로 회복가능성	91
〈표 4-19〉 코로나19에 의한 실적 우려	93
〈표 4-20〉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1순위)	95
〈표 4-21〉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1+2순위)	96
〈표 4-22〉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1순위)	98
〈표 4-23〉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1+2순위)	99
〈표 4-24〉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	103
〈표 4-25〉 가구 소득 변화	106
〈표 4-26〉 가구 부채 변화	108
〈표 4-27〉 월 평균 가구소득 감소액	109
〈표 4-28〉 현재 가구 재정상태	111
〈표 4-29〉 내년 가구 재정전망	113
〈표 4-30〉 만족도 변화	116

〈표 4-31〉 코로나19 전후 만족도 변화(10점 척도 기준)	120
〈표 4-32〉 코로나19 일과 생활 어려움	121
〈표 4-33〉 서울시 역할	122
〈표 4-34〉 지원정책 수혜 등	123
〈표 4-35〉 지원정책 미신청 이유	124
〈표 5-1〉 면접 대상자 현황	130
〈표 5-2〉 주요 질문 내용	131
〈표 5-3〉 코로나19 전후 임금변화	132
〈표 5-4〉 코로나19 전후 노동시간 변화	134
〈표 5-5〉 코로나19 이후 근무 변화	135
〈표 5-6〉 가구 내 경제활동 현황	139
〈표 5-7〉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수혜 여부	141
〈표 5-8〉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146
〈표 5-9〉 코로나19 이후 향후 계획	148
〈표 5-10〉 노동회의소법(안) 주요 내용	154

- 그림 목차 -

[그림 2-1]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	7
[그림 2-2] 서울지역 고용률	8
[그림 2-3] 서울지역 실업률	10
[그림 2-4] 서울지역 취업자와 취업자 증감	11
[그림 2-5] 서울지역 성별 취업자 증감	13
[그림 2-6] 서울지역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15
[그림 2-7]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17
[그림 2-8]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19
[그림 2-9] 서울지역 직종별 취업자 증감률	21
[그림 2-10]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추이	23
[그림 2-11]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감	26
[그림 2-12]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29
[그림 2-13]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30
[그림 2-14] 서울지역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	31
[그림 2-15]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33
[그림 2-16]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2020년 1월~8월 누적)	35
[그림 2-17] 서울지역 2020년 월별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변화	35
[그림 2-18]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2020년 1월~8월 누적)	36
[그림 4-1]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	63
[그림 4-2]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전후 주당 평균노동시간 감소율	64
[그림 4-3]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임금(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	67
[그림 4-4]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임금 감소율	68
[그림 4-5] 임금(소득) 감소 이유(복수응답)	69
[그림 4-6] 임금(소득) 증가 이유(복수응답)	69
[그림 4-7] 코로나19이후 임금과 노동시간이 모두 줄어든 응답자 비율	72
[그림 4-8]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일자리)에서 발생한 일(복수응답)	74
[그림 4-9] 사업장 방역 활동	77
[그림 4-10]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	77
[그림 4-11] 실직 이유	80

[그림 4-12] 실업급여 미수급 사유	81
[그림 4-13] 실직기간 주된 활동(1순위)	82
[그림 4-14] 코로나19 감염 우려	84
[그림 4-15]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86
[그림 4-16]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89
[그림 4-17] 코로나19에 의한 실직우려	93
[그림 4-18] 코로나19 사회변화 영향 인식	101
[그림 4-19]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1	102
[그림 4-20]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2	102
[그림 4-21] 가구소득 대비 생활비 부족 응답 비율	103
[그림 4-22]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 감소 비율	106
[그림 4-23]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복수응답)	110
[그림 4-24] 현재 가구재정이 나쁜 편 비율	112
[그림 4-25] 내년 가구재정이 나빠질 것 비율	115
[그림 4-26] 고용형태별 만족도 변화	117
[그림 4-27] 사업체 규모별 만족도 변화	118
[그림 4-28] 직종별 만족도 변화	119
[그림 4-29] 단기 정책 수요	125
[그림 4-30] 장기 정책 수요	125

연구 요약 문

1. 서론

-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방역조치들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되고, 이동과 모임 제한으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음.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임. 방역조치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휴업, 무급휴직, 계약종료, 소득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고, 소득은 줄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취약계층노동자는 경제위기시 충격을 가장 먼저 받고, 회복이 시작되면 그 혜택은 가장 나중에 경험하기 때문에 피해가 가장 큰 집단임 (OECD, 2020)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서울지역은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지역 산업별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들임
-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노동실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직접적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의 피해상황을 검토하여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코로나19 서울지역 노동동향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사하여 매월 고용동향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실직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기에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음. 2019년 5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지속했던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전 연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실업률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년동월보다 감소하였으나, 2020년 4월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전환되어, 전년동월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산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의 감소폭이 컸으며, 건설업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크게 감소함.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음
- 고용보험통계에서는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으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을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는 이전 년도와 유사하게 1월과 3월, 7월에 반등하는 모양새이지만, 규모는 훨씬 크게 증가함.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2018년 연간 총 수급자를 넘어선 상황임. 특히 여성, 20대가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남성과 다른 연령대보다 큰 고용위기를 겪고 있었음.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함.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9년 1~8월과 비교하여 2020년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58.4%가 증가하여 실직자가 크게 생겨난 업종임. 코로나19가 고용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3월부터는 이직사유 중 '경영상 필요'와 '폐업 및 도산' 비율이 증가함
- 고용유지지원금은 2019년과 비교할 수 없을 규모의 증가세를 보임. 2020년 4월부터 정책적 노력으로 휴업 및 유급휴직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에 지급이 집중됨.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급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먼저, 서울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종사자가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임. 이들 3개 업종은 고용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으로, 향후 고용위기 대책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여성과 20대가 코로나

19로 고용위기를 크게 겪고 있는 만큼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확대 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로, 전체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설계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음

3. 코로나19 노동자 지원정책

-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방향은 크게 고용유지 지원, 생계안정 지원, 일자리 기회 확대 등임.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대폭 확대함에 따라, 2020년 2조 3천억원을 지원함.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해 긴급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211만명, 청년 특별 구직활동지원금 18.5만명,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8만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9만명 등, 총 267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함. 또한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해 약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회복력을 유지하고자 함
- 서울수도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여 서울형 제도를 시행하거나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실시함.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으로, 중앙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의 지급요건보다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함.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대상의 용자사업도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서울시 사회투자자금을 활용하여 용자사업을 추진함. 그 밖에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을 ‘노동권리대책반’으로 구성하여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함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고용보험 밖의 취약계층노동자에게 고용충격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구직급여 확대 등의 정책적 효과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제한적임. 무급휴직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음. 소규모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책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시 지원하는 제도로, 파견·용역과 같이 여러 개의 다른 사업체에서 분산해서 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사용사업체 일부만 경영활동이 악화되면, 파견 및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기 어려움. 파견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음

4.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은 감소함.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3.6%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3.9배 높은 -14.0%였음.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가 -2.3% 줄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6.9배 높은 -15.8% 임금이 줄었음. 정규직도 노동시간과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있지만,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훨씬 크게 나타남
- 업무강도 측면에서는 필수업무 노동자의 업무강도 강화가 확인됨. 필수업무 노동자 중 업무강도가 높아진 비율이 32.9%였으며, 그 밖의 노동자는 17.4%로, 필수업무 노동자의 코로나19 이후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높았음. 특히 노동시간이 줄었는데도 업무강도가 높아진 비율의 차이가 컸는데, 필수업무 노동자는 61.5%, 기타 노동자는 21.9%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절반(45.6%) 가까이 되었으며,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한 경우도 32.4%로 나타남.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경우는 28.7%였으며, 응답자의 1/4 사업장에서는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었음. 노동자들은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비교적 수용하는 태도였음. 코로나19에 의해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이의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일련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래서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노력, 정부정책 활용 노력, 그리고 불가피한 측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았음. 다만,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음

-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실직한 경우는 8.6%였으며, 비정규직에 집중되었음. 특히 일용직 응답자의 1/4(26.0%)이 코로나19를 직접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으며, 시간제도 15.0%로 실직 경험 비율이 높았음. 실직자 중 3.4%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받지 못한 이유로 91.8%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응답함
-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 인식 조사에는,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불안감이 심각한 경우 27.9%, 우울감이 심각한 경우 14.1%였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도 상당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실직에 대한 우려도 높았는데, 정규직은 실직을 우려하는 비율이 30.7%였지만, 비정규직은 66.1%로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음. 시간제와 일용직은 10명 중 8명이 실직을 우려하고 있었음. 코로나19로 임금과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했던 비정규직이기에 실직우려 또한 높았음.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코로나19가 우리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단축, 임금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데 더 높은 동의를 보였음
- 생활실태도 코로나19 전후로 변화함. 정규직은 가구소득의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79.2%, 감소하였다는 비율 17.8%였지만, 비정규직은 52.5%가 가구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 가구의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감소가 컸음. 이에 비정규직의 46.3%는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가구 재정상황도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32.2%, 내년에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0.3%로 높았음
- 코로나19 전후로 건강, 일자리, 가계재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 등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는 하락함. 일자리와 가계재정 만족도 하락폭이 가장 컸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만족도가 하락했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은 일자리와 가계재정에서의 만족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코로나19 이후 일에서 겪는 어려움과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던지, 고용불안을 겪는다던지 등의 어려움을 이야기함. 생활에서 어려움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불편함과 모임과 활동 제한, 여행 및 여가생활 감소 등을 주로 응답함.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로는 일자리 대책, 방역조치, 생계안정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함

5.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피해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겪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임금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면접조사 참여자의 코로나19 이전 평균 임금은 약 240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12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함.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업직 및 면세점 판매직과 현장 일용직, 공연예술,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 감소폭이 컸음. 노동시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8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었음. 주당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임금에 영향을 미쳐 상당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 임금의 절반으로 감소함
- 노동자들의 고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계기가 된 3월 대구 신천지 사건과 8월 광화문 집회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이후에는 단순히 근무시간만 단축했지만, 8월 이후에는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짐
- 실업 등이 확산되면서 소득이 줄자 노동자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음. 또한 적금 및 보험을 해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함. 맞벌이가 홀벌이보다 경제적 상황이 괜찮지만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 되면 맞벌이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노동자들은 전망함. 현재 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노동자들은 지원책을 잘 모르고 있거나 신청이 복잡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함
- 현재 노동자들의 심리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어려움과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하고, 실업급여를 볼모로 사직을 강요했으며,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사가 피해 입을 경우 노동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사용자들의 코로나19에 대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협의 과정을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고 대부분 내년 1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뚜렷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수가 이직, 전직, 창업 등을 고려하고 있었음

6. 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정책지원 방안

- 고용안전망 확대 :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노동자일수록 더 두터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고용안전망으로 제외됨. 실태조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3.4%였으며, 대다수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정책수요 조사에서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가장 많았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취약계층노동자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하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가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임. 또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도 서울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른 지자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정책효과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업훈련 지원 :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전직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상당수 취약계층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지원받지 못함. 따라서 이들이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함. 현재 서울시는 현재 4개 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 기술교육원을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교육원이 여의치 않으면 산업인력공단의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 취약계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체 실직자들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설립·운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노동자 중 구직서비스가 필요한 노동자 지원도 필요함. 서울시 설립 노동센터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이외에 취업상담 및 알선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도 있기에, 노동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함.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도 필요함.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8.6%였으며, 면접조사에서는 실직하거나 일감이 줄어 반 실업상태인 노동자도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서울지역 취업자는 2019년 5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다가, 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여성, 20대 청년, 임시직, 판매서비스직의 취업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함
- 피해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 설문조사에서 14.1%가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함. 임금삭감·반납·채불 경험이 7.5%, 권고사직 및 계약해지 3.0%, 사생활 침해 1.8% 등이었음. 면접조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볼모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압박하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사가 일시 폐쇄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손해비용을 감염 노동자가 지불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기도 함.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하였음. 향후에도 사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를 받는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될 필요가 있음. 광역센터 1개소, 권역센터 4개소, 자치구센터 18개소가 있으며, 노동권리보호관도 65명이 활동중임. 서울지역 피해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함.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면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 피해노동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매우 높았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등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임. 서울시는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담회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자들이 새로이 취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져야 함

-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 설문 및 면접조사에서 취약계층노동자는 임금이 크게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의 고용유지 및 실업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 대상이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약계층노동자는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지원을 했지만, 감소한 소득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며, 일회성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실업급여는 물론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도 아님. 실직했거나 일감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지원으로부터 제외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이 필요함. 생활안정자금 용자도 확대되어야 함.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용자하는 사업을 추진함.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상인원과 용자금액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비록 노동자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긴급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될 수 있어야 함
- 이해대변 지원 : 취약계층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이해대변 조직이 필요함. 먼저 노조조직화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노조사무실 무상임대, 노조전임자 대상 재정지원, 노동전문가 파견 노조교육, 노조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이 가능함. 노조를 조직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임. 노동공제회도 고려할만한 이해대변 방안임. 공제회는 자치원리에 입각해서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가장 최근 봉제인공제회가 결성됨. 노동공제회는 조합원(회원)이 일정액의 회비를 내면 회원들은 주거, 건강(의료), 금융상담, 교육상담, 심리상담, 상조, 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제도개선, 연구개발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 즉 공제회는 노동+사회적 경제가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공제회 설립에 서울시의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으로 노동회의소도 고려할 수 있는데, 사용자단체의 상공회의소와 대비되

는 조직임.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노동회의소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구성원의 회비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음. 법률 상담, 교육훈련, 고용,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광역-권역-자치구 노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노동회의소를 위한 기반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는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단행하고, 이동과 모임을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왔고, 고용충격과 소득감소 등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초기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기 몇 개월간 관찰된 영향의 10배에 이를 정도였다(OECD, 2020). 우리나라도 2020년 4월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47만 6천명이 감소하여,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 이후 최대의 취업자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김유빈, 2020).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기를 겪고,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생존위기를 겪고 있다. 고용충격에 의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일자리위기를 겪으며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우리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변화하였다. 2020년 2월 코로나19의 1차 확산과 8월 2차 확산, 그리고 11월 이후의 3차 확산에 따라,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이 변동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방역조치들로 영업을 제한되거나 중단되고, 이동과 모임 제한으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방역조치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휴업, 무급휴직, 계약종료, 소득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은 줄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취약계층노동자는 경제위기시 충격을 가장 먼저 받고, 회복이 시작되면 그 혜택은 가장 나중에 경험하기 때문에 피해가 가장 큰 집단이라 할 수 있다(OECD, 2020). 취약계층노동자들이 이번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서비스직,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

가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다.

정흥준(2020) 연구에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노동자 규모가 72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확인되는 등 대규모 취약계층노동자는 고용불안 및 소득감소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초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직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호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사업주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물량이 줄어들 경우 고용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자, 일일(단기)노동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 파견·용역·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은 사회적 재난의 가장 심각한 피해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표 1-1> 고용대책에 취약한 노동자 규모

단위 : 만명

고용사각지대 노동자	총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
초단시간 노동자	93.2	91.1
일일(단기) 노동자	74.8	70.5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 노동자	378.3	226.6
파견·용역 노동자	165.5	-
특수고용노동자	220.9	199.9
합계	932.7	588.1
중복을 제외한 실제 고용취약계층	727.5	458.7

자료 : 정흥준(2020)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서울지역은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지역 산업별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대면 서비스 제한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이 타격을 받고,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도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0년 4월부터 서울지역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보다 감소하며, 실업

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지역 취업자수와 고용율은 2020년 4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2020년 4월 서울지역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6천명, 5월에는 -74천명, 6월에는 -85천명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소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은 2020년 6월 기준 취업자가 전년동월보다 -1.3% 감소한데 비해, 서울은 -1.7% 감소하여 고용 충격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 규모가 크며, 건설업도 2020년 4월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서울지역 종사자가 많은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0년 1/4분기에 취업자가 -55천명이 감소하였다. 임시직은 2019년 6월과 비교하여 -144천명 감소하였으며, 일시휴직자도 전년동월보다 109천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서울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노동실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직접적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을 검토하여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가 코로나19로 받은 영향을 파악하고, 서울시 지원정책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취약계층노동자, 즉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파견·용역·하청,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가 조사대상이다. 설문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9)의 비정규직 규모 추정과 정흥준 외(2018) 연구의 특수고용노동자 규모 추정을 종합하여, 비정규직 표본을 고용형태별로 할당하였다. 비정규직과 비교를 위해 정규직에도 표본을 10%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특성에 따라, 사업체규모별, 성별, 연령별로 표본을 할당하여, 특정 특성에 표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임금과 노동시간 변화, 불이익 조치, 실직 유무, 생활실태, 정책수요 등 노동환경 및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실태를 확인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임금과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피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고용동향을 확인하였다. 코로나

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산업과 직종, 연령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노동자 지원정책도 분석하여 향후 정책설계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코로나19 영향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노동 및 생활실태 확인과 정책 방향을 도출을 위해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통계자료와 정부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고용충격이 어느 집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조사를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노동동향을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의 취업과 실업 등 고용동향을 확인하였으며,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서울지역의 구직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에 따른 고용조정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 노동자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고용유지·생계지원·실업대책을 검토하고,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 추진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항목에 대해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업종, 직종, 성, 연령 등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지원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의 피해 현황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II.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동향¹⁾

1. 개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고용시장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 노동자 등은 코로나19로 더욱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노동자에게 코로나19는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충격 상황은 매일 발표되는 고용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노동시장이 전년동기에 비해 활력을 잃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구체적으로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지속했던 서울지역 고용률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20년 4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0). 2020년 8월 기준, 서울지역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1.0%)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59.6%로 -1.0%p 하락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도 13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감 변화로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충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서울지역은 고용회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상훈, 2020). 이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실업자는 정점 대비 감소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이다. 또한 서울지역의 고용회복은 단기 일자리 위주여서 고용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노동시장에 반영되어 고용충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노동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즉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

1) “신태중(2020), 고용보험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노동동향”을 수정·보완함

성을 조사하여 매월 고용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통계는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을 통해 실업과 고용조정 대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서울지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고용동향과 고용보험통계의 구직급여 수급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을 확인하고,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서울지역 고용동향

1) 경제활동참가율

<표 2-1>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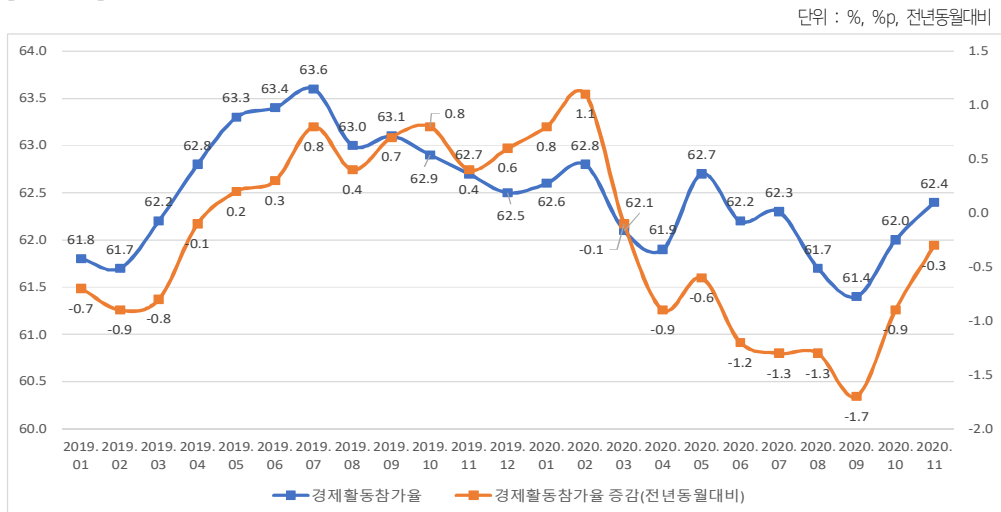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2019년 1월	61.8	-0.7
2019년 2월	61.7	-0.9
2019년 3월	62.2	-0.8
2019년 4월	62.8	-0.1
2019년 5월	63.3	0.2
2019년 6월	63.4	0.3
2019년 7월	63.6	0.8
2019년 8월	63.0	0.4
2019년 9월	63.1	0.7
2019년 10월	62.9	0.8
2019년 11월	62.7	0.4
2019년 12월	62.5	0.6
2020년 1월	62.6	0.8
2020년 2월	62.8	1.1
2020년 3월	62.1	-0.1
2020년 4월	61.9	-0.9
2020년 5월	62.7	-0.6
2020년 6월	62.2	-1.2
2020년 7월	62.3	-1.3
2020년 8월	61.7	-1.3
2020년 9월	61.4	-1.7
2020년 10월	62.0	-0.9
2020년 11월	62.4	-0.3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은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로, 연초 상반기 상승하다가 6, 7월 이후에는 하락하는 형태인데, 2020년에는 이전 연도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1, 2월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듯 하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감소하여 9월에는 가장 낮은 61.4%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지속했던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20년 3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2020년 11월은 2019년 11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 연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림 2-1]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률

서울지역 고용률도 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하게 매년 상반기 상승하다가 6, 7월 이후에 하락하는 형태인데, 2020년에는 3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이전 연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월 고용률은 60.0%, 2월 60.1%에서 3월에는 59.0%, 4월에는 58.6%까지 하락하였다. 5월부터 8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던 서울지역 고용률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9월에는 58.9%로 하락하였으며, 11월은 59.8%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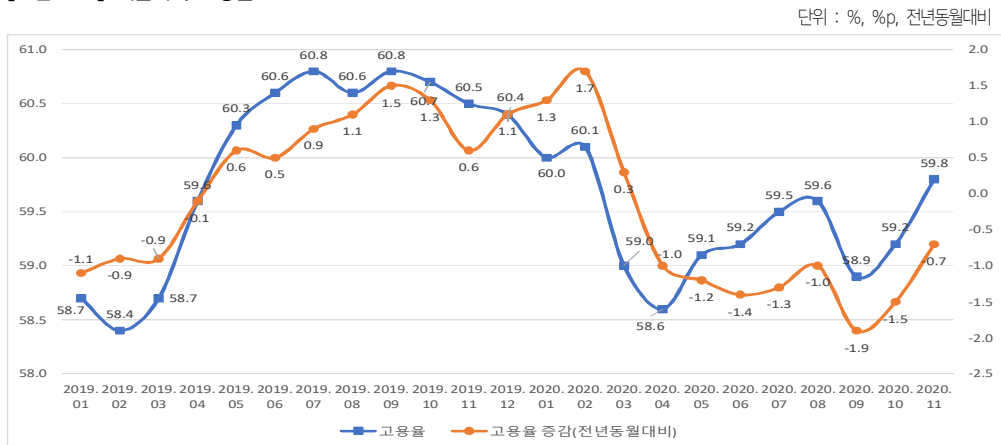
<표 2-2> 서울지역 고용률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구분	고용률(%)	고용률 증감(%p)
2019년 1월	58.7	-1.1
2019년 2월	58.4	-0.9
2019년 3월	58.7	-0.9
2019년 4월	59.6	-0.1
2019년 5월	60.3	0.6
2019년 6월	60.6	0.5
2019년 7월	60.8	0.9
2019년 8월	60.6	1.1
2019년 9월	60.8	1.5
2019년 10월	60.7	1.3
2019년 11월	60.5	0.6
2019년 12월	60.4	1.1
2020년 1월	60.0	1.3
2020년 2월	60.1	1.7
2020년 3월	59.0	0.3
2020년 4월	58.6	-1.0
2020년 5월	59.1	-1.2
2020년 6월	59.2	-1.4
2020년 7월	59.5	-1.3
2020년 8월	59.6	-1.0
2020년 9월	58.9	-1.9
2020년 10월	59.2	-1.5
2020년 11월	59.8	-0.7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서울지역 고용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3) 실업률

서울지역 실업률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통상 3월까지 실업률이 상승하다가 이후 연말까지 하락하는 형태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실업률이 등락하는 모양새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실업률은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8%까지 치솟았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면서 8월에는 실업률이 3.3%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실업률은 다시 상승하였으며, 2020년 11월 실업률은 4.2%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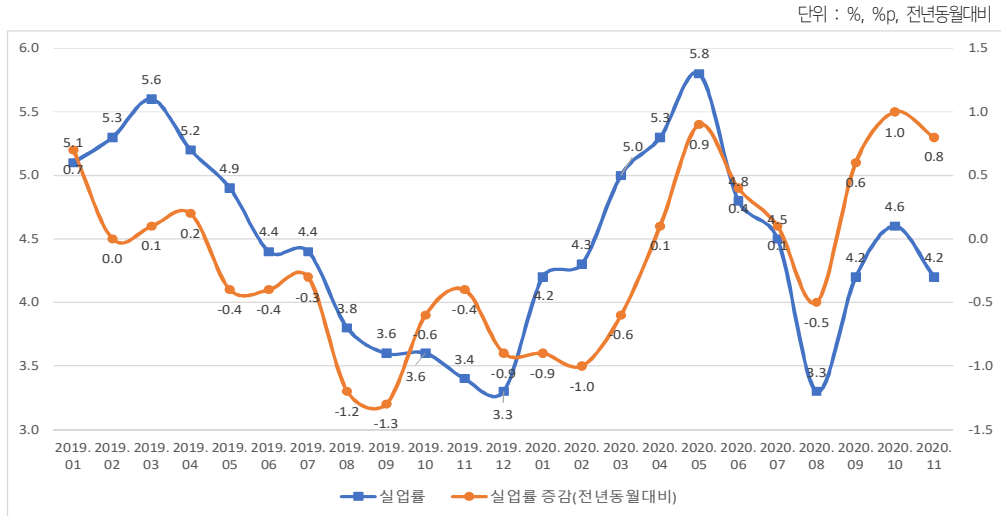
<표 2-3> 서울지역 실업률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구분	고용률(%)	고용률 증감(%p)
2019년 1월	5.1	0.7
2019년 2월	5.3	0.0
2019년 3월	5.6	0.1
2019년 4월	5.2	0.2
2019년 5월	4.9	-0.4
2019년 6월	4.4	-0.4
2019년 7월	4.4	-0.3
2019년 8월	3.8	-1.2
2019년 9월	3.6	-1.3
2019년 10월	3.6	-0.6
2019년 11월	3.4	-0.4
2019년 12월	3.3	-0.9
2020년 1월	4.2	-0.9
2020년 2월	4.3	-1.0
2020년 3월	5.0	-0.6
2020년 4월	5.3	0.1
2020년 5월	5.8	0.9
2020년 6월	4.8	0.4
2020년 7월	4.5	0.1
2020년 8월	3.3	-0.5
2020년 9월	4.2	0.6
2020년 10월	4.6	1.0
2020년 11월	4.2	0.8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3] 서울지역 실업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4) 취업자

<표 2-4>는 월별 서울지역 취업자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던 취업자는 2020년 4월부터 감소하고 있다. 2020년 4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6만명 감소하였으며, 2020년 9월에는 전년동월보다 -13.1만명까지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이후 취업자 감소세는 줄어들어 2020년 1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3만명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이후, 서울지역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현재, 아직 이전 연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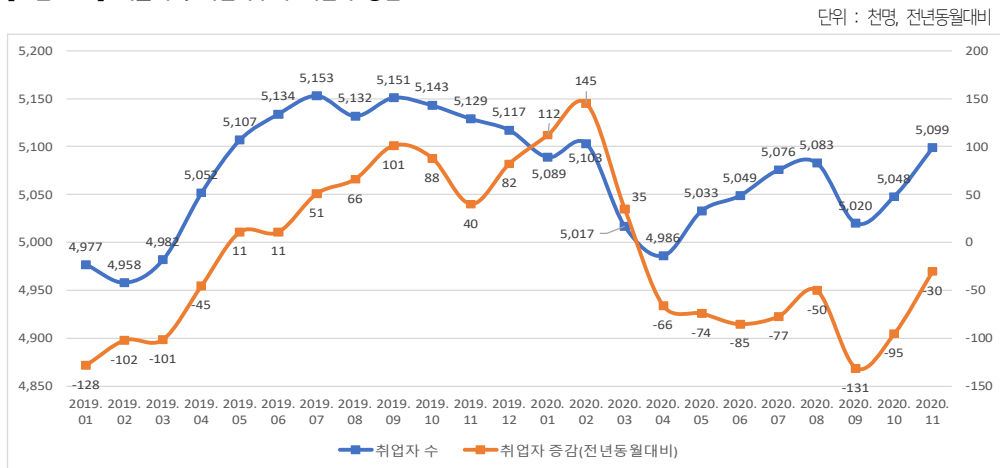
<표 2-4> 서울지역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구분	취업자수(천명)	증감(천명)	증감율(%)
2019년 1월	4,977	-128	-2.5
2019년 2월	4,958	-102	-2.0
2019년 3월	4,982	-101	-2.0
2019년 4월	5,052	-45	-0.9
2019년 5월	5,107	11	0.2
2019년 6월	5,134	11	0.2
2019년 7월	5,153	51	1.0

구분	취업자수(천명)	증감(천명)	증감률(%)
2019년 8월	5,132	66	1.3
2019년 9월	5,151	101	2.0
2019년 10월	5,143	88	1.7
2019년 11월	5,129	40	0.8
2019년 12월	5,117	82	1.6
2020년 1월	5,089	112	2.3
2020년 2월	5,103	145	2.9
2020년 3월	5,017	35	0.7
2020년 4월	4,986	-66	-1.3
2020년 5월	5,033	-74	-1.5
2020년 6월	5,049	-85	-1.7
2020년 7월	5,076	-77	-1.5
2020년 8월	5,083	-50	-1.0
2020년 9월	5,020	-131	-2.5
2020년 10월	5,048	-95	-1.8
2020년 11월	5,099	-30	-0.6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4] 서울지역 취업자수와 취업자 증감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1) 성별

서울지역 성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남녀 모두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2020년 3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

으며, 3월에는 -1.1만명, 4월에는 -4.1만명, 7월에는 가장 많은 -6.5만명까지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가 감소하다가 2020년 11월에는 -2천명 감소하는 수준이었다. 여성은 2020년 4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는데, 4월에는 -2.6만명, 5월에는 -3.1만명, 그리고 9월에는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는데, -7.5만명이나 줄어들었다. [그림 2-5]를 보면, 성별에 따른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에서도 남성은 증감폭이 크지 않는데 비해, 여성은 2019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로 급격히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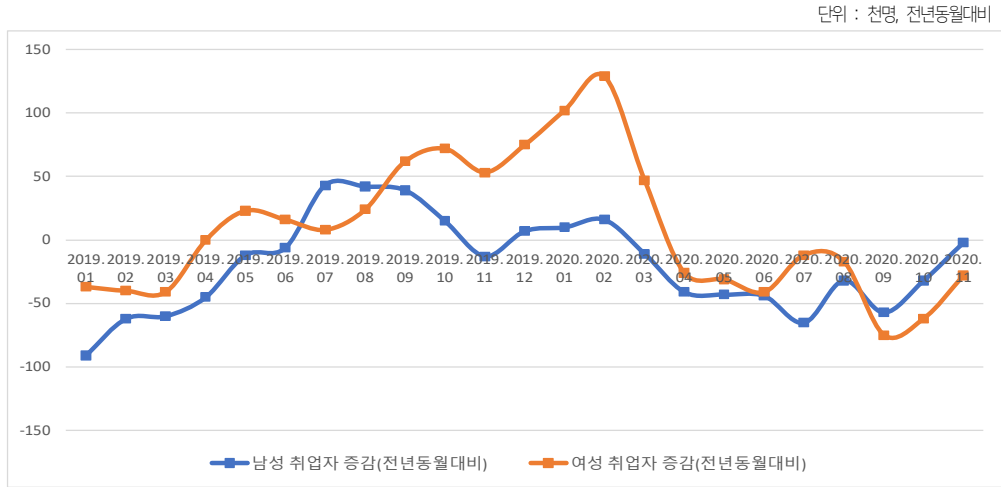
<표 2-5> 서울지역 성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남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취업자수(천명)	증감(천명)	증감율(%)	취업자수(천명)	증감(천명)	증감율(%)
2019년 1월	2,738	-91	-3.2	2,238	-37	-1.6
2019년 2월	2,735	-62	-2.2	2,223	-40	-1.8
2019년 3월	2,739	-60	-2.1	2,243	-41	-1.8
2019년 4월	2,761	-45	-1.6	2,291	0	0.0
2019년 5월	2,789	-12	-0.4	2,319	23	1.0
2019년 6월	2,800	-6	-0.2	2,335	16	0.7
2019년 7월	2,824	43	1.5	2,329	8	0.3
2019년 8월	2,804	42	1.5	2,329	24	1.0
2019년 9월	2,793	39	1.4	2,357	62	2.7
2019년 10월	2,775	15	0.6	2,367	72	3.2
2019년 11월	2,767	-13	-0.5	2,362	53	2.3
2019년 12월	2,758	7	0.3	2,359	75	3.3
2020년 1월	2,749	10	0.4	2,340	102	4.6
2020년 2월	2,752	16	0.6	2,351	129	5.8
2020년 3월	2,728	-11	-0.4	2,289	47	2.1
2020년 4월	2,721	-41	-1.5	2,265	-26	-1.1
2020년 5월	2,746	-43	-1.5	2,287	-31	-1.3
2020년 6월	2,755	-44	-1.6	2,293	-41	-1.8
2020년 7월	2,759	-65	-2.3	2,317	-12	-0.5
2020년 8월	2,771	-32	-1.2	2,312	-17	-0.7
2020년 9월	2,737	-57	-2.0	2,283	-75	-3.2
2020년 10월	2,743	-32	-1.2	2,305	-62	-2.6
2020년 11월	2,766	-2	-0.1	2,333	-28	-1.2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5] 서울지역 성별 취업자 증감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 연령별

서울지역 연령별 취업자 변화는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연령층은 20대 이하이다. 20대 이하의 월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감소율을 보면, 2020년 3월 -4.8%였으며, 4월 -3.4%, 7월 -3.9%, 그리고 9월에는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내는데 -6.0%로 20대 이하의 취업자가 -5.4만명이나 감소하였다. 30대도 코로나19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는데, 2020년 9월 -5.3%까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4만명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다.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감소 정도가 적은 편으로, 40대는 4월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높은 -1.7%였으며, 50대는 9월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감소율이 -4.0%였다. 60대 이상은 2019년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2019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0.5%였으며, 2020년 1월에는 12.7%의 높은 취업자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과 다르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1.5%~4.8%로 현저히 줄었다. 다만, 다른 연령대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한데 비해, 60대 이상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로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표 2-6> 서울지역 연령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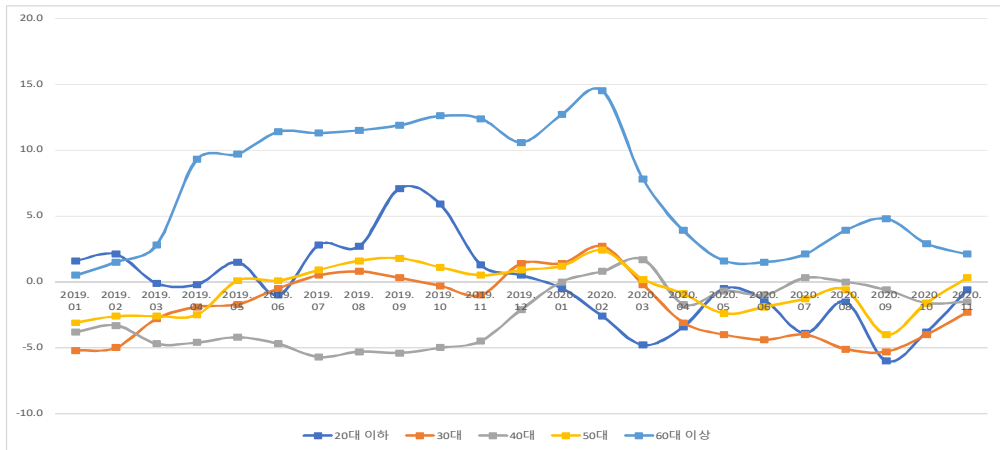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연령별 취업자(천명)					연령별 취업자 증감율(%)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년 1월	865	1,158	1,171	1,091	692	1.6	-5.2	-3.8	-3.1	0.5
2019년 2월	873	1,147	1,169	1,078	692	2.1	-5.0	-3.3	-2.6	1.5
2019년 3월	860	1,156	1,154	1,090	722	-0.1	-2.8	-4.7	-2.6	2.8
2019년 4월	849	1,176	1,170	1,097	761	-0.2	-1.9	-4.6	-2.5	9.3
2019년 5월	862	1,182	1,170	1,116	778	1.5	-1.7	-4.2	0.1	9.7
2019년 6월	861	1,195	1,167	1,119	792	-1.0	-0.5	-4.7	0.1	11.4
2019년 7월	882	1,200	1,156	1,118	798	2.8	0.5	-5.7	0.9	11.3
2019년 8월	879	1,198	1,155	1,111	790	2.7	0.8	-5.3	1.6	11.5
2019년 9월	889	1,194	1,153	1,125	791	7.1	0.3	-5.4	1.8	11.9
2019년 10월	890	1,176	1,157	1,116	803	5.9	-0.3	-5.0	1.1	12.6
2019년 11월	870	1,169	1,162	1,106	821	1.3	-1.0	-4.5	0.5	12.4
2019년 12월	854	1,180	1,176	1,112	796	0.5	1.4	-2.1	0.9	10.6
2020년 1월	861	1,174	1,170	1,103	780	-0.5	1.4	0.0	1.2	12.7
2020년 2월	850	1,178	1,178	1,104	793	-2.6	2.7	0.8	2.4	14.5
2020년 3월	818	1,154	1,174	1,093	778	-4.8	-0.2	1.7	0.2	7.8
2020년 4월	820	1,140	1,149	1,087	790	-3.4	-3.1	-1.7	-0.9	3.9
2020년 5월	858	1,134	1,162	1,089	790	-0.5	-4.0	-0.7	-2.4	1.6
2020년 6월	849	1,143	1,156	1,098	804	-1.4	-4.4	-1.0	-1.9	1.5
2020년 7월	848	1,152	1,159	1,103	814	-3.9	-4.0	0.3	-1.3	2.1
2020년 8월	866	1,137	1,154	1,105	820	-1.5	-5.1	0.0	-0.6	3.9
2020년 9월	835	1,130	1,146	1,079	829	-6.0	-5.3	-0.6	-4.0	4.8
2020년 10월	856	1,129	1,139	1,098	827	-3.8	-4.0	-1.6	-1.6	2.9
2020년 11월	865	1,142	1,144	1,110	838	-0.6	-2.3	-1.5	0.3	2.1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6] 서울지역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3) 종사상지위별

종사상지위별 임금노동자의 변화를 보면, 2019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임금노동자가 증가하였다가, 2020년 4월부터 전년동월보다 임금노동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다만, 상용직 취업자의 증가폭은 이전 연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2019년 상용직은 전년동월보다 적게는 1.2만명(1월, 2월), 많게는 27.7만명(12월)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1, 2월만 2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3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는데,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직 취업자 감소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3월 임시직은 전년동월대비 -9.2만명 감소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16.8만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매우 컸다. 전년대비 서울지역 일용직은 2014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2019년과 비교하여 일용직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표 2-7>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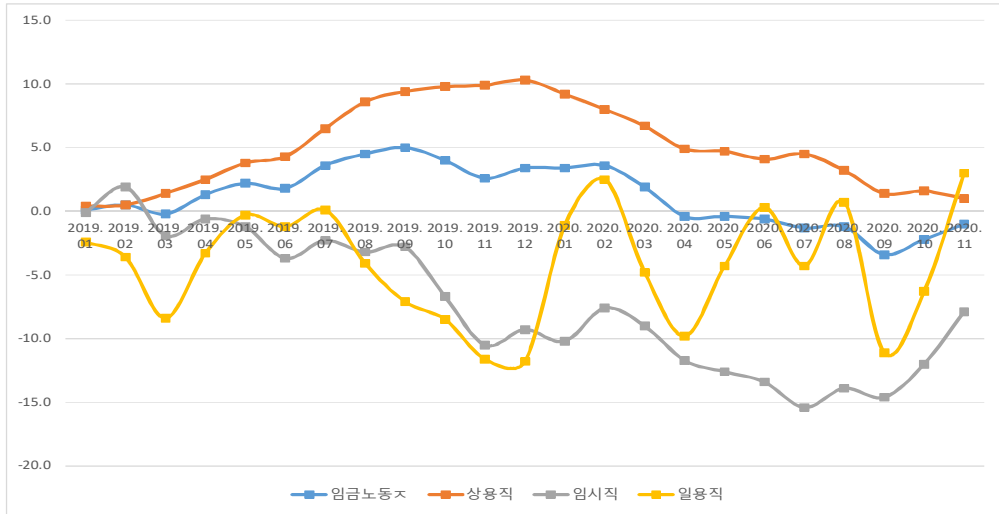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임금노동자 취업자(천명)				임금노동자 취업자 증감율(%)			
	임금 노동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 노동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19년 1월	4,049	2,699	1,065	285	0.1	0.4	-0.1	-2.4
2019년 2월	4,035	2,710	1,054	271	0.5	0.5	1.9	-3.6
2019년 3월	4,047	2,752	1,027	268	-0.2	1.4	-1.9	-8.4
2019년 4월	4,121	2,773	1,058	290	1.3	2.5	-0.6	-3.3
2019년 5월	4,177	2,808	1,070	299	2.2	3.8	-1.2	-0.3
2019년 6월	4,212	2,844	1,076	292	1.8	4.3	-3.7	-1.2
2019년 7월	4,242	2,845	1,093	304	3.6	6.5	-2.3	0.1
2019년 8월	4,237	2,897	1,055	285	4.5	8.6	-3.2	-4.1
2019년 9월	4,254	2,933	1,043	278	5.0	9.4	-2.8	-7.1
2019년 10월	4,235	2,921	1,030	285	4.0	9.8	-6.7	-8.5
2019년 11월	4,231	2,933	1,017	282	2.6	9.9	-10.5	-11.6
2019년 12월	4,234	2,963	993	278	3.4	10.3	-9.3	-11.8
2020년 1월	4,185	2,947	957	282	3.4	9.2	-10.2	-1.1
2020년 2월	4,179	2,927	975	277	3.6	8.0	-7.6	2.5
2020년 3월	4,125	2,935	935	255	1.9	6.7	-9.0	-4.8
2020년 4월	4,105	2,909	934	262	-0.4	4.9	-11.7	-9.8
2020년 5월	4,161	2,939	936	287	-0.4	4.7	-12.6	-4.3
2020년 6월	4,186	2,962	932	293	-0.6	4.1	-13.4	0.3
2020년 7월	4,188	2,973	925	291	-1.3	4.5	-15.4	-4.3
2020년 8월	4,186	2,990	908	287	-1.2	3.2	-13.9	0.7
2020년 9월	4,110	2,973	890	247	-3.4	1.4	-14.6	-11.1
2020년 10월	4,141	2,968	906	267	-2.2	1.6	-12.0	-6.3
2020년 11월	4,189	2,963	936	290	-1.0	1.0	-7.9	3.0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7] 서울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4) 산업별

〈표 2-8〉은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수와 그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020년 4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4월 -7.5%, 5월 -8.5%, 6월 -7.2% 등으로 나타나며, 코로나19 2차 유행시기인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8.7% 감소하였다. 10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10월 -7.2만명, 11월 -4.2만명이 전년동월보다 취업자수가 줄어, 이전 연도 수준보다 취업자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도 2020년 4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며, 음(-)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취업자는 -1.3만명 감소하였으며, 7월에는 -2.5만명, 10월에는 -3.5만명이 이전 연도 같은 달보다 취업자수가 줄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비교적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업종이 포함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종만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2-8>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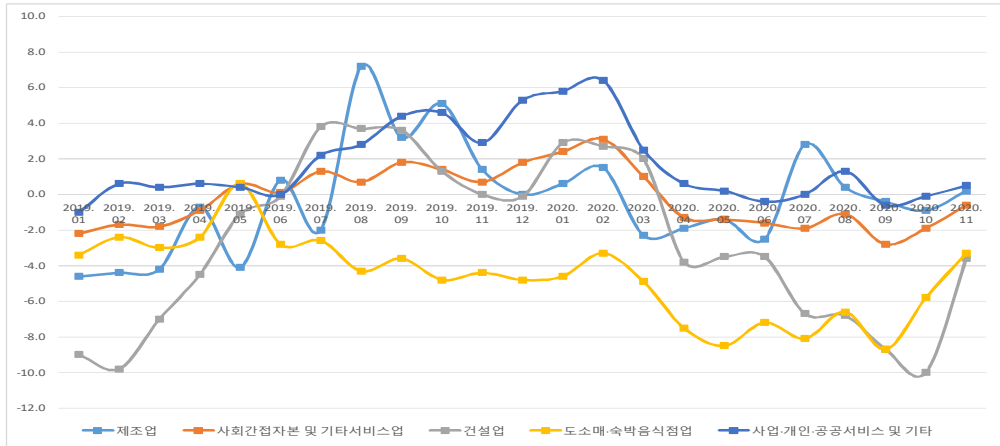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산업별 취업자(천명)								산업별 취업자 증감율(%)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 접자본 및 기타서 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 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 접자본 및 기타서 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 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019년 1월	5	437	437	4,535	330	1,292	2,132	782	-37.7	-4.6	-4.6	-2.2	-9.0	-3.4	-1.0	-0.6
2019년 2월	5	442	442	4,511	323	1,286	2,126	776	-37.2	-4.4	-4.4	-1.7	-9.8	-2.4	0.6	-3.0
2019년 3월	7	463	463	4,512	321	1,272	2,149	770	14.5	-4.2	-4.2	-1.8	-7.0	-3.0	0.4	-3.2
2019년 4월	8	461	461	4,583	340	1,275	2,176	792	18.3	-0.7	-0.7	-0.9	-4.5	-2.4	0.6	-1.2
2019년 5월	8	444	444	4,655	353	1,303	2,207	792	18.3	-4.1	-4.1	0.6	-1.1	0.6	0.4	2.0
2019년 6월	8	450	450	4,675	355	1,292	2,222	806	3.8	0.8	0.8	0.1	-0.1	-2.8	0.0	5.7
2019년 7월	8	436	436	4,709	369	1,314	2,225	801	7.7	-2.0	-2.0	1.3	3.8	-2.6	2.2	4.4
2019년 8월	9	463	463	4,660	361	1,281	2,228	790	38.8	7.2	7.2	0.7	3.7	-4.3	2.8	2.0
2019년 9월	8	451	451	4,691	354	1,264	2,270	804	47.3	3.2	3.2	1.8	3.6	-3.6	4.4	3.1
2019년 10월	10	446	446	4,687	354	1,251	2,272	810	42.6	5.1	5.1	1.4	1.3	-4.8	4.6	2.8
2019년 11월	8	444	444	4,677	355	1,252	2,256	813	34.5	1.4	1.4	0.7	0.0	-4.4	2.9	3.3
2019년 12월	7	445	445	4,665	349	1,240	2,264	812	15.5	0.0	0.0	1.8	-0.1	-4.8	5.3	3.7
2020년 1월	5	439	439	4,644	340	1,233	2,256	817	12.5	0.6	0.6	2.4	2.9	-4.6	5.8	4.5
2020년 2월	5	449	449	4,650	332	1,244	2,261	813	-8.2	1.5	1.5	3.1	2.7	-3.3	6.4	4.7
2020년 3월	7	452	452	4,558	328	1,209	2,202	820	-5.6	-2.3	-2.3	1.0	2.0	-4.9	2.5	6.5
2020년 4월	8	453	453	4,525	327	1,180	2,189	829	-4.8	-1.9	-1.9	-1.3	-3.8	-7.5	0.6	4.7
2020년 5월	7	438	438	4,589	340	1,192	2,211	845	-16.7	-1.4	-1.4	-1.4	-3.5	-8.5	0.2	6.7
2020년 6월	8	439	439	4,602	343	1,200	2,213	846	-2.4	-2.5	-2.5	-1.6	-3.5	-7.2	-0.4	5.0
2020년 7월	8	448	448	4,620	345	1,208	2,226	842	-6.0	2.8	2.8	-1.9	-6.7	-8.1	0.0	5.2
2020년 8월	8	466	466	4,609	337	1,197	2,258	818	-14.0	0.6	0.4	-1.1	-6.8	-6.6	1.3	3.6
2020년 9월	8	451	450	4,561	323	1,154	2,257	827	-2.5	-0.1	-0.4	-2.8	-8.7	-8.7	-0.6	2.9
2020년 10월	9	441	441	4,598	319	1,179	2,269	831	-6.2	-0.9	-0.9	-1.9	-10.0	-5.8	-0.1	2.5
2020년 11월	7	445	445	4,647	342	1,210	2,268	827	-12.8	0.2	0.2	-0.6	-3.6	-3.3	0.5	1.7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8] 서울지역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5) 직종별

직종별 취업자 증감에서도 코로나19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판매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2020년 3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는데, 서비스·판매직 취업자는 2020년 3월 전년동월대비 -2.6%, 4월 -4.4%, 5월 -4.6%였으며, 6월에서 8월에는 다소 감소폭이 줄었다가, 9월에 전년동월대비 -4.1% 취업자가 감소하여 다시 감소율이 확대되었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취업자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4월 -11.7%였으며, 7월 -23.1%, 8월 -20.3% 등이었다. 다만, 서울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규모는 1만명 내외여서, 취업자수 감소 규모는 -1천명에서 -3천명 사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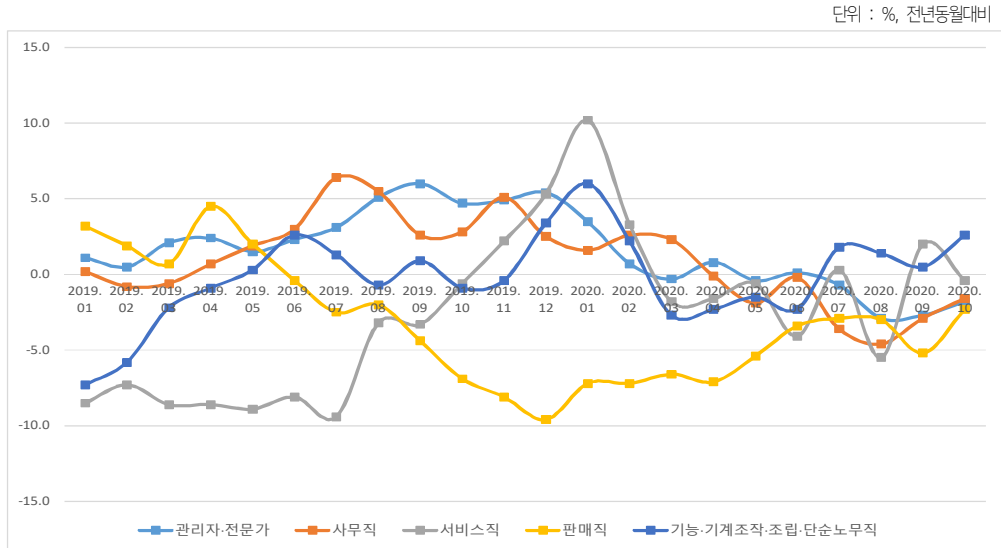
<표 2-9> 서울지역 직종별 취업자수와 취업자 변화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직종별 취업자(천명)					직종별 취업자 증감율(%)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2019년 1월	1,479	1,118	1,185	7	1,188	-0.4	1.2	-2.1	-27.7	-8.3
2019년 2월	1,491	1,113	1,173	7	1,174	1.1	0.2	-2.2	-18.9	-7.3
2019년 3월	1,501	1,103	1,164	11	1,204	0.5	-0.8	-2.4	27.1	-5.8
2019년 4월	1,508	1,117	1,151	12	1,265	2.1	-0.6	-3.7	27.7	-2.2
2019년 5월	1,522	1,123	1,173	12	1,278	2.4	0.7	-1.8	14.3	-0.9
2019년 6월	1,518	1,151	1,173	12	1,279	1.5	1.9	-3.2	16.5	0.3
2019년 7월	1,518	1,141	1,185	12	1,297	2.3	3.0	-4.1	18.6	2.6
2019년 8월	1,522	1,178	1,149	12	1,271	3.1	6.4	-5.7	29.7	1.3
2019년 9월	1,555	1,176	1,155	10	1,255	5.1	5.5	-2.5	31.6	-0.7
2019년 10월	1,560	1,152	1,143	14	1,275	6.0	2.6	-3.9	68.8	0.9
2019년 11월	1,547	1,145	1,147	9	1,281	4.7	2.8	-4.1	9.8	-0.9
2019년 12월	1,554	1,156	1,146	9	1,253	4.9	5.1	-3.6	11.0	-0.4
2020년 1월	1,559	1,146	1,147	9	1,228	5.4	2.5	-3.2	27.4	3.4
2020년 2월	1,543	1,131	1,177	8	1,244	3.5	1.6	0.3	13.7	6.0
2020년 3월	1,512	1,131	1,133	10	1,230	0.7	2.6	-2.6	-3.7	2.2
2020년 4월	1,503	1,142	1,099	11	1,231	-0.3	2.3	-4.4	-11.7	-2.7
2020년 5월	1,533	1,122	1,118	11	1,249	0.8	-0.1	-4.6	-10.0	-2.3
2020년 6월	1,512	1,130	1,135	11	1,261	-0.4	-1.9	-3.2	-10.8	-1.5
2020년 7월	1,520	1,139	1,141	9	1,268	0.1	-0.2	-3.7	-23.1	-2.3
2020년 8월	1,511	1,136	1,133	9	1,294	-0.7	-3.6	-1.4	-20.3	1.8
2020년 9월	1,510	1,122	1,107	9	1,272	-2.9	-4.6	-4.1	-11.5	1.4
2020년 10월	1,518	1,118	1,121	11	1,281	-2.7	-2.9	-2.0	-22.2	0.5
2020년 11월	1,518	1,127	1,130	9	1,314	-1.8	-1.6	-1.4	2.2	2.6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9] 서울지역 직종별 취업자 증감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3. 서울지역 구직급여

1)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2020년 2월 이후,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적게는 3천명에서 많게는 7천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²⁾ 통상 구직급여 신청자는 고용보험 상실자가 급증하는 1월에 신청자 규모가 가장 크고 3월과 7월에 반등하는 형태³⁾인데, 이전과 형태는 유사하나, 규모는 훨씬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급자격 총 신청자 수는 14만 7,625명이었으며, 2019년 같은 기간에는 15만 5,563명, 그리고 2020년 동일 기간에는 19만 3,331명으로 2020년에 큰 폭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2)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요건, 수급기간, 지급액 등의 제도변경으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여 전년동월과의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

3) 구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가능하고, 보통 고용계약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 1월, 3월, 7월에 상실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윤정혜, 2020).

<표 2-10>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수급자격 신청자			실업급여 지급자		
	신청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신청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2019년 1월	32,447	2,214	7.3	88,407	6,818	8.4
2019년 2월	16,010	243	1.5	88,365	4,437	5.3
2019년 3월	23,276	967	4.3	95,531	4,988	5.5
2019년 4월	18,868	945	5.3	99,622	8,973	9.9
2019년 5월	15,896	978	6.6	95,823	7,845	8.9
2019년 6월	14,271	710	5.2	91,839	8,380	10.0
2019년 7월	19,639	1,406	7.7	94,807	9,733	11.4
2019년 8월	15,156	475	3.2	90,102	7,350	8.9
2019년 9월	13,763	1,155	9.2	84,723	10,580	14.3
2019년 10월	16,174	1,188	7.9	83,320	5,990	7.7
2019년 11월	16,496	1,117	7.3	79,371	5,485	7.4
2019년 12월	17,655	2,117	13.6	80,409	7,861	10.8
2020년 1월	33,444	997	3.1	94,118	5,711	6.5
2020년 2월	20,690	4,680	29.2	102,150	13,785	15.6
2020년 3월	29,481	6,205	26.7	116,578	21,047	22.0
2020년 4월	26,174	7,306	38.7	126,189	26,567	26.7
2020년 5월	22,116	6,220	39.1	131,243	35,420	37.0
2020년 6월	20,616	6,345	44.5	138,899	47,060	51.2
2020년 7월	22,655	3,016	15.4	142,869	48,062	50.7
2020년 8월	18,155	2,999	19.8	138,013	47,911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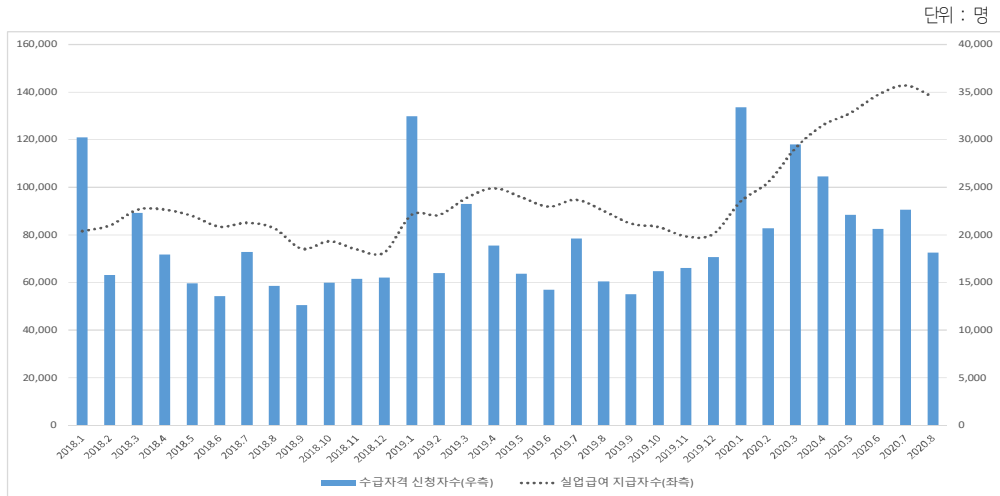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의 증가와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는 2020년 2월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는 14만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3월의 신청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3, 4월의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도 증가하지만, 이전 연도가 3, 4월 이후에 감소하는 형태였던데 비해, 2020년에는 매일 지속적으로 수급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구직급여 총 수급자는 68만 5,972명이었으며, 2019년 같은 기간에는 74만 4,496명, 그리고 2020년 동일 기간에는 거의 백만명에 육박하는 99만 5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8개월간의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는 이미 2018년 연간 수급자 총 규모인 98만 3,879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2020년의 구직급여 수급자와 신청자 규모의 증가는 2019년 10월의 제도변경⁴⁾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가는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최근 구직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윤정혜, 2020).

[그림 2-10]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추이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 인적 속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1) 성별

성별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를 보면, 2020년 1월 상실자가 급증함에 따라 남녀 모두 신청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전 년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2월 이후 신청자 규모는 2019년에는 크게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 1월 증가 규모는 남녀 각각 618명, 379명이었지만, 2월부터는 2천명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신

4) 주요 변경사항은 (1) 구직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2)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 (3)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이 기존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노동에서 '24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유급노동'으로 변경 등이다(김준영, 2020).

청한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남녀별 2019년과 2020년 구직급여 신청자를 살펴보면, 남성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신청자 수는 5만 8,025명이었으며, 2020년 같은 기간 총 신청자는 7만 4,245명으로 1만 6,220명이 증가하였다. 여성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6만 5,091명 신청했으며, 2020년 동일기간 신청자 수는 8만 5,642명으로 2만 551명이 증가하였다. 남녀별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28.0%였으며, 여성은 31.6%로 증가폭에 차이가 있었다.

남녀별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도 유사하다.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남성은 31만 1,157명에서 2020년 같은 기간 41만 9,108명으로 10만 7,951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2019년 34만 4,932명에서 2020년 47만 6,833명으로 13만 1,901명 증가하였다. 수급자 규모 증가율은 남녀 각각 34.7%와 38.3%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남녀 모두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2-11>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남성			여성		
	신청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신청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2019년 1월	16,414	1,329	8.8	16,033	885	5.8
2019년 2월	8,187	303	3.8	7,823	-60	-0.8
2019년 3월	9,307	552	6.3	13,969	415	3.1
2019년 4월	8,827	460	5.5	10,041	485	5.1
2019년 5월	7,612	490	6.9	8,284	488	6.3
2019년 6월	6,768	258	4.0	7,503	452	6.4
2019년 7월	9,705	883	10.0	9,934	523	5.6
2019년 8월	7,619	564	8.0	7,537	-89	-1.2
2019년 9월	6,498	613	10.4	7,265	542	8.1
2019년 10월	8,037	808	11.2	8,137	380	4.9
2019년 11월	8,157	739	10.0	8,339	378	4.7
2019년 12월	8,899	1,202	15.6	8,756	915	11.7
2020년 1월	17,032	618	3.8	16,412	379	2.4
2020년 2월	10,329	2,142	26.2	10,361	2,538	32.4
2020년 3월	11,849	2,542	27.3	17,632	3,663	26.2
2020년 4월	12,154	3,327	37.7	14,020	3,979	39.6
2020년 5월	10,158	2,546	33.4	11,958	3,674	44.4
2020년 6월	9,871	3,103	45.8	10,745	3,242	43.2

구분	남성			여성		
	신청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신청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2020년 7월	11,221	1,516	15.6	11,434	1,500	15.1
2020년 8월	8,663	1,044	13.7	9,492	1,955	25.9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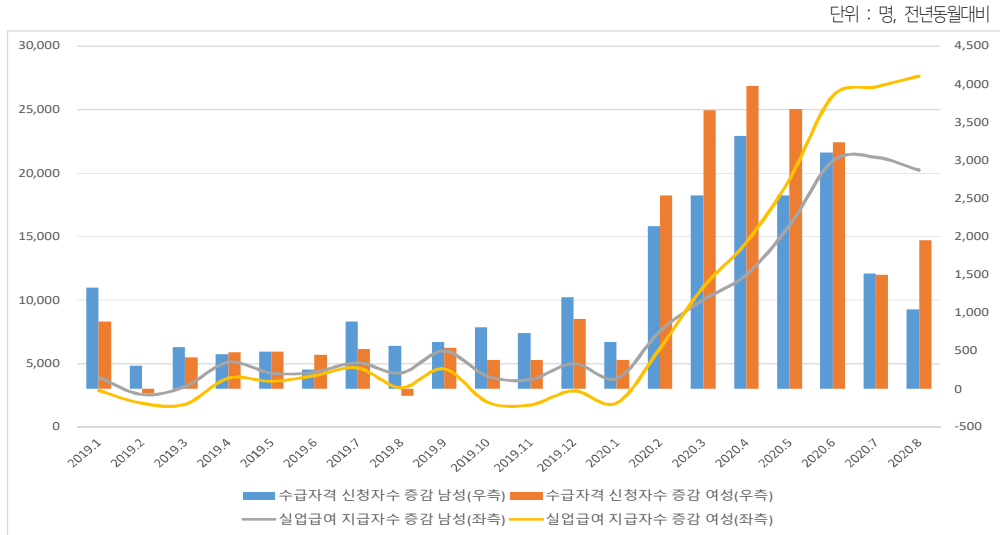
<표 2-12>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수급자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남성			여성		
	수급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수급자수(명)	증감(명)	증감율(%)
2019년 1월	43,143	3,934	5.8	45,264	2,884	6.8
2019년 2월	43,371	2,562	-0.8	44,994	1,875	4.3
2019년 3월	45,881	3,191	3.1	49,650	1,797	3.8
2019년 4월	46,813	5,115	5.1	52,809	3,858	7.9
2019년 5월	44,665	4,239	6.3	51,158	3,606	7.6
2019년 6월	42,745	4,323	6.4	49,094	4,057	9.0
2019년 7월	44,532	5,068	5.6	50,275	4,665	10.2
2019년 8월	43,150	4,256	-1.2	46,952	3,094	7.1
2019년 9월	41,193	5,998	8.1	43,530	4,582	11.8
2019년 10월	40,684	4,016	4.9	42,636	1,974	4.9
2019년 11월	38,852	3,738	4.7	40,519	1,747	4.5
2019년 12월	39,599	5,004	11.7	40,810	2,857	7.5
2020년 1월	46,960	3,817	2.4	47,158	1,894	4.2
2020년 2월	50,932	7,561	32.4	51,218	6,224	13.8
2020년 3월	55,905	10,024	26.2	60,673	11,023	22.2
2020년 4월	58,815	12,002	39.6	67,374	14,565	27.6
2020년 5월	60,551	15,886	44.4	70,692	19,534	38.2
2020년 6월	63,715	20,970	43.2	75,184	26,090	53.1
2020년 7월	65,791	21,259	15.1	77,078	26,803	53.3
2020년 8월	63,399	20,249	25.9	74,614	27,662	58.9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2-11]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감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 연령별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통해 코로나19의 연령별 영향을 분석하면 다른 연령보다 20대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살펴보면, 20대는 2020년 2월 이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대의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률은 2020년 2월 41.0%에서 4월에는 50.7%, 6월 50.1%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직급여 신청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구직급여 수급자 증감율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2020년 6월, 7월은 전년동월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상황이다. 각각 99.1%, 97.7% 증가하여, 2019년 6, 7월보다 거의 두 배 규모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에 의한 실직이 다른 연령대에서도 크게 나타나지만, 20대에게는 훨씬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2-13> 서울지역 연령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구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률(%)					구직급여 수급자 증감률(%)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년 1월	5.8	2.1	4.4	4.2	17.5	5.4	-0.3	7.8	10.5	18.8
2019년 2월	1.1	-1.9	-5.6	3.2	13.8	3.0	-1.7	3.5	4.2	17.4
2019년 3월	0.7	-0.5	7.2	7.1	10.3	0.9	-1.2	3.8	6.4	17.5
2019년 4월	4.2	3.4	4.9	8.4	6.3	7.4	3.4	8.5	10.2	20.9
2019년 5월	11.6	0.6	3.8	6.0	14.4	6.4	3.3	6.6	9.1	20.4
2019년 6월	9.4	0.8	2.7	5.2	10.3	9.1	4.7	7.4	9.2	21.0
2019년 7월	10.7	2.4	1.7	6.2	18.7	12.3	5.6	8.2	11.0	21.5
2019년 8월	6.9	1.4	5.3	-0.8	3.9	10.0	3.2	5.8	8.3	18.3
2019년 9월	18.6	1.1	4.8	8.5	15.6	19.0	9.5	10.8	12.2	22.2
2019년 10월	4.8	9.7	5.0	11.4	8.8	9.6	2.9	3.8	7.9	16.0
2019년 11월	9.2	3.6	3.4	10.3	10.6	8.1	4.1	3.6	7.8	14.2
2019년 12월	20.1	8.4	7.7	14.9	17.8	12.8	6.7	7.4	11.0	17.3
2020년 1월	4.6	-7.6	0.9	3.0	10.7	9.7	1.6	2.7	6.9	11.6
2020년 2월	41.0	22.3	18.9	28.6	35.6	22.4	9.3	10.9	16.0	20.1
2020년 3월	39.6	16.9	20.4	32.3	25.4	42.2	14.7	15.7	20.0	22.6
2020년 4월	50.7	23.6	29.0	48.2	44.2	52.8	17.6	19.6	24.9	24.3
2020년 5월	45.8	28.4	34.4	44.3	42.3	74.9	24.9	28.9	34.3	31.0
2020년 6월	50.1	40.6	39.1	43.0	45.9	99.1	40.6	43.8	45.3	40.1
2020년 7월	24.9	9.6	14.4	11.1	14.0	97.7	38.6	42.1	46.1	42.6
2020년 8월	30.0	12.7	7.9	23.6	23.7	105.2	43.0	45.6	45.2	43.4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3)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표 2-14>는 2020년 1월 이후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이다. 2020년 1월 이후 8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는 도소매업 2만 8,645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2만 8,19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만 8,91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만 8,319명, 제조업 1만 6,891명 등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신청자 증가가 큰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58.4%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는 1만 1,566명이었지만, 2020년 같은 기간에는 1만 8,319명이 신청하여 증가폭이 다른 업종보다 컸다.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

업 2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27.2%, 정보통신업 22.0% 순이었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등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4>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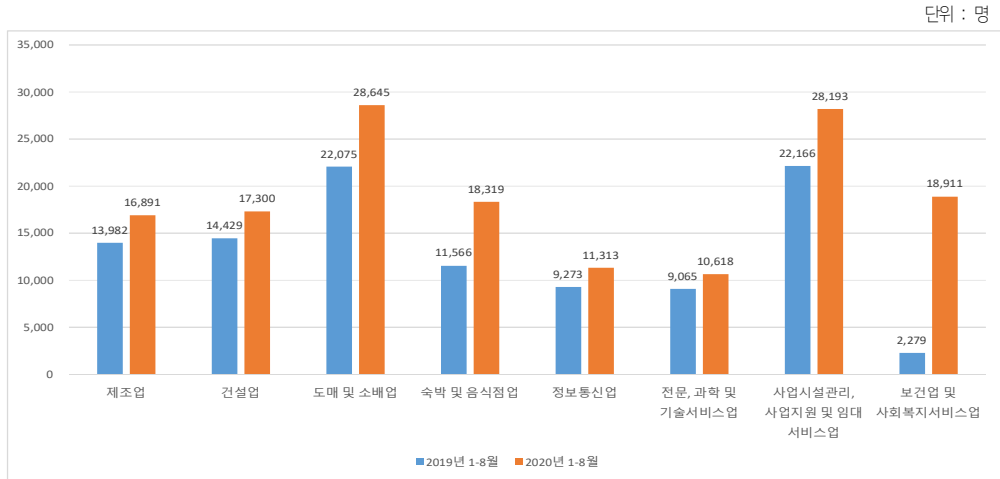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제조업	2,310	1,902	2,106	2,400	2,404	2,100	1,974	1,695	16,891
건설업	2,952	2,190	2,225	1,992	1,964	1,983	2,126	1,868	17,300
도매 및 소매업	3,382	3,100	3,691	4,210	3,948	3,441	3,636	3,237	28,645
운수 및 창고업	1,292	656	951	1,105	884	781	859	717	7,245
숙박 및 음식점업	1,871	1,771	2,902	3,193	2,230	2,220	2,173	1,959	18,319
정보통신업	1,642	1,327	1,388	1,674	1,492	1,371	1,408	1,011	11,313
금융 및 보험업	1,052	968	534	524	452	485	691	435	5,141
부동산업	1,328	705	764	828	616	744	814	600	6,39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8	1,169	1,323	1,466	1,263	1,253	1,335	1,171	10,61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916	3,102	3,765	4,120	3,202	2,699	3,020	2,369	28,1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94	670	496	265	277	587	1,119	316	7,624
교육서비스업	1,256	550	2,829	1,106	726	573	579	596	8,21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7	1,661	5,401	2,159	1,731	1,607	1,878	1,457	18,911
기타	1,894	919	1,106	1,132	927	772	1,043	724	8,514
전체	33,444	20,690	29,481	26,174	22,116	20,616	22,655	18,155	193,331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2-12]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표 2-15>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단위 : 명, %, 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9년 1-8월(명)	13,982	14,429	22,075	11,566	9,273	9,065	22,166	16,420
2020년 1-8월(명)	16,891	17,300	28,645	18,319	11,313	10,618	28,193	18,911
증가율(%)	20.8	19.9	29.8	58.4	22.0	17.1	27.2	15.2
증감(명)	2,909	2,871	6,570	6,753	2,040	1,553	6,027	2,491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4)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사업체 규모별로 구직급여 신청자를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는 10인 미만 사업장 6만 6,533명, 10인~29인 사업장 3만 2,621명, 1,000인 이상 사업장 2만 8,58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2019년 보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신청자가 33.6%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30인~49인 사업장 28.7%, 50인~69인 사업장 20.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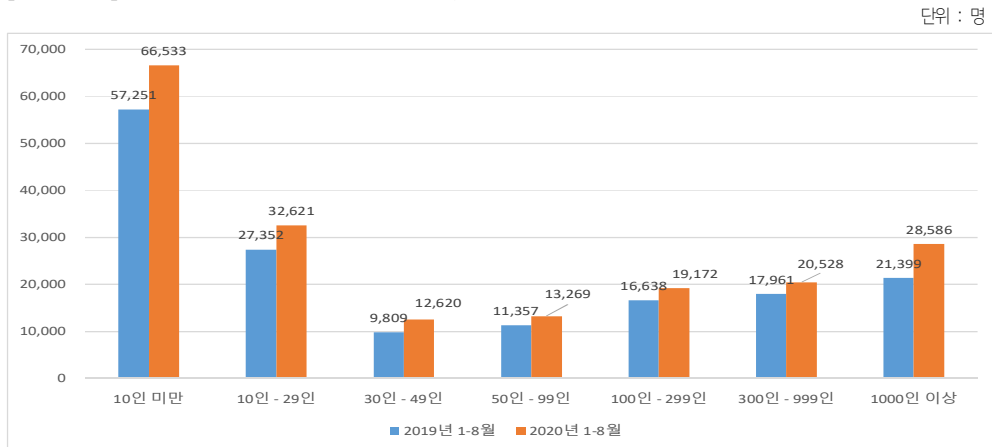
<표 2-16>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10인 미만	8,222	7,464	11,332	9,352	8,051	7,689	7,717	6,706	66,533
10인 ~ 29인	4,841	3,395	5,844	4,514	3,836	3,463	3,580	3,148	32,621
30인 ~ 49인	2,148	1,159	2,040	1,680	1,411	1,388	1,544	1,250	12,620
50인 ~ 99인	2,460	1,320	1,918	1,855	1,463	1,398	1,575	1,280	13,269
100인 ~ 299인	3,650	1,931	2,553	2,595	2,427	1,973	2,270	1,773	19,172
300인 ~ 999인	5,688	2,026	2,418	2,362	2,032	1,843	2,588	1,571	20,528
1000인 이상	6,435	3,395	3,375	3,815	2,896	2,862	3,381	2,427	28,586
전체	33,444	20,690	29,480	26,173	22,116	20,616	22,655	18,155	193,329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분류불능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2-13]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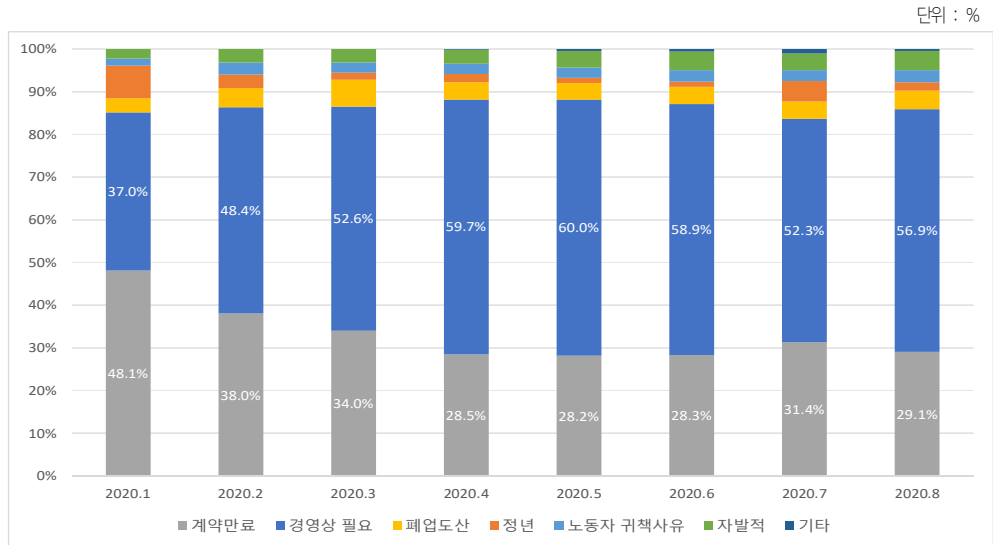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분류불능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5)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그림-15]는 2020년 월별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이다. 1~2월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자가 많은 달로, 2020년 1월과 2월은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가 각각 48.1%, 38.0%로 다른 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 2월에 계약

만료에 의한 실직과 코로나19에 의한 재취업 어려움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은 것이 라면, 3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윤정혜, 2020). 이직사유 중 경영상 필요와 폐업·도산 비율이 1, 2월은 40.4%, 52.8%에서 3월 부터는 58.9%, 5월에는 63.9%까지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4] 서울지역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표 2-17> 서울지역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노동자 귀책사유	563	564	693	635	530	544	564	512	4,605
정년	2,534	586	493	504	276	258	1,111	345	6,107
계약만료	16,090	7,237	10,015	7,456	6,238	5,834	7,106	5,281	65,257
폐업·도산	1,126	854	1,853	1,067	856	816	905	785	8,262
경영상 필요	12,387	10,780	15,509	15,624	13,273	12,144	11,848	10,324	101,889
자발적	726	647	904	850	847	899	892	820	6,585
기타	18	22	14	38	96	121	229	88	626
전체	33,444	20,690	29,481	26,174	22,116	20,616	22,655	18,155	193,331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4.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표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경우 지급하는 휴업지원금, 유급휴직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의 규모가 코로나 19로 대폭 늘어났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지급인원은 수십에서 수백명에 불과했으며, 지급액도 많을 경우 2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급요건 완화와 지원금액 상향으로 2020년 들어서는 4월부터 급격히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월 지급인원 1만 7,558명에 지급액 185억원, 7월에는 지급인원 11만명에 지급액은 1,419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2-18〉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단위 : 건, 명, 억원

구분	지급건수(건)	지급인원(명)	지급액(억원)
2019년 1월	8	147	2.3
2019년 2월	10	163	2.4
2019년 3월	13	154	2.4
2019년 4월	19	159	2.7
2019년 5월	11	144	2.4
2019년 6월	9	119	2.2
2019년 7월	19	91	1.3
2019년 8월	8	283	2.0
2019년 9월	12	32	0.5
2019년 10월	13	54	0.8
2019년 11월	17	476	2.0
2019년 12월	17	64	0.8
2020년 1월	20	121	1.5
2020년 2월	13	165	0.9
2020년 3월	12	39	0.5
2020년 4월	2,489	17,558	186.4
2020년 5월	10,371	70,342	784.5
2020년 6월	12,918	98,056	1,124.4
2020년 7월	12,792	110,535	1,419.3
2020년 8월	11,955	80,737	1,029.8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표 2-19> 서울지역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지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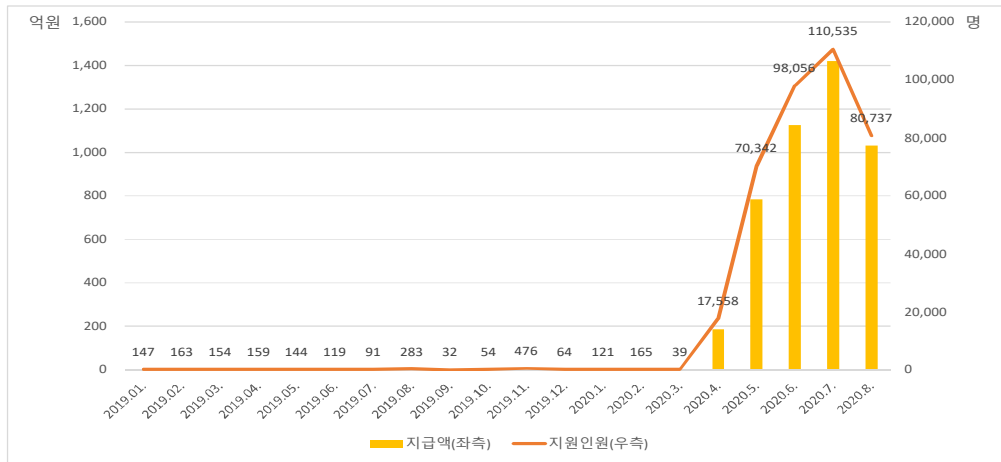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전체
2020년 1월	31	90	0	121
2020년 2월	132	33	0	165
2020년 3월	11	28	0	39
2020년 4월	8,892	8,666	0	17,558
2020년 5월	34,591	35,751	0	70,342
2020년 6월	47,399	50,436	221	98,056
2020년 7월	40,478	67,307	2,750	110,535
2020년 8월	32,032	45,186	3,519	80,737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2-15]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단위 : 억원, 명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지원인원을 보면,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8만 1,370명이었으며,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이 7만 6,676명, 운수창고업 6만 3,568명, 숙박 및 음식점업 3만 9,068명 순이었다. 이들 4개 업종이 지급인원의 70%를 차지하여, 해당 업종의 코로나19 영향 피해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집중된

이들 업종은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업종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1~8월과 비교하여 2020년 같은 기간에 구직급여 신청자가 숙박 및 음식점업 58.4%, 도소매업 2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27.2% 등이었다. [그림 2-17]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업종들은 2020년 6월을 정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0>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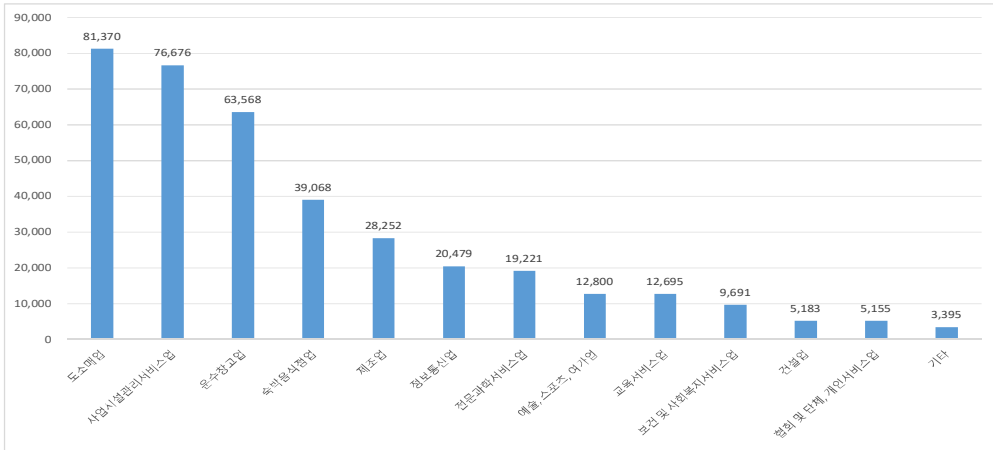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제조업	27	122	1	398	4,568	7,496	8,112	7,528	28,252
건설업	0	0	0	264	960	1,300	1,357	1,302	5,183
도매 및 소매업	14	5	10	2,570	15,574	24,922	20,162	18,113	81,370
운수 및 창고업	0	0	0	642	4,480	11,961	31,980	14,505	63,568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1,206	9,742	10,802	10,420	6,898	39,068
정보통신업	0	3	0	675	4,661	5,373	5,353	4,414	20,47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0	9	798	4,068	5,380	5,067	3,886	19,22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7	35	19	8,077	15,287	19,075	17,082	17,034	76,676
교육서비스업	0	0	0	1,163	3,804	3,151	2,515	2,062	12,69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	0	0	438	2,393	2,268	3,352	1,240	9,691
예술, 스포츠, 여가업	0	0	0	1,059	2,688	3,769	3,134	2,150	12,800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0	0	0	212	1,367	1,498	1,049	1,029	5,155
기타	0	0	0	56	750	1,061	952	576	3,395
전체	121	165	39	17,558	70,342	98,056	110,535	80,737	377,553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2-16]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2020년 1월~8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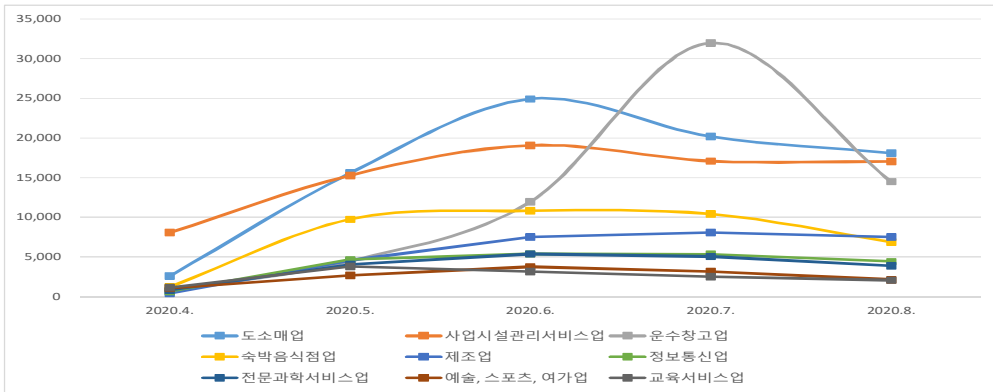
단위 : 명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2-17] 서울지역 2020년 월별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변화

단위 : 명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3)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사업장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은 <표 2-21>과 같다. 2020년 1월부터 8월 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누적 지급인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10만 5,9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29인 사업장 7만 4,648명, 1,000인 이상 사업장 7만 4,551명, 100~299인 사업장 3만 6,663명 등의 순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지급인원의

47.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6월을 정점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도 7월에 가장 많이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감소한 형태이다.

<표 2-21>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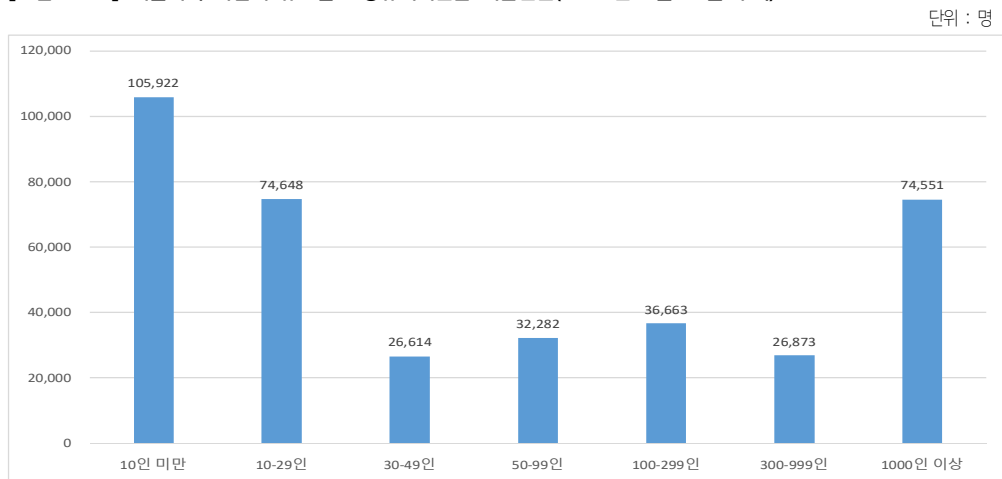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10인 미만	20	9	26	5,877	22,795	26,737	26,337	24,121	105,922
10 ~ 29인	59	24	4	3,998	16,121	19,478	18,259	16,705	74,648
30 ~ 49인	21	0	0	1,198	6,322	6,926	6,634	5,513	26,614
50 ~ 99인	9	10	9	1,763	6,563	8,875	7,899	7,154	32,282
100 ~ 299인	0	122	0	1,244	8,033	10,262	9,524	7,478	36,663
300 ~ 999인	12	0	0	876	6,162	7,392	8,783	3,648	26,873
1000인 이상	0	0	0	2,602	4,346	18,386	33,099	16,118	74,551
전체	121	165	39	17,558	70,342	98,056	110,535	80,737	377,553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2-18]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2020년 1월~8월 누적)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5. 소결

본 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사하여 매월 고용동향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실직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기에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률은 약 45% 수준(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보험의 빈 구석이 많다(장지연·홍민기, 2020).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고용안전망 내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고용보험 바깥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시장 변화를 요약하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지속했던 서울지역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전 연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년동월보다 감소하였으나, 2020년 4월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전환되어, 전년동월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의 감소폭이 컸으며, 건설업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은 직종이었다.

서울지역 고용보험통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는 이전 년도와 유사하게 1월과 3월, 7월에 반등하는 모양새이지만, 규모는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2018년 연간 총 수급자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여성, 20대가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남성과 다른 연령대보다 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9년 1~8월과 비교하여 2020년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58.4%가 증가하여 실직자가 크게 증가한 업종이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전년과 비교하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구직급여 신청 증가율이 큰 것이 특징으로, 2019년 1~8월 누적 신청자와 비교하여 올해

는 33.6% 증가하여, 다른 사업체 규모보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이직사유별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친 2020년 3월부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영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직사유 중 경영상 필요와 폐업·도산 비율이 1, 2월은 40.4%, 52.9%에서 3월에는 58.9%, 5월에는 63.9%까지 증가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도 노동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 연도와 비교할 수 없을 규모의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4월부터 정책적 노력으로 휴업 및 유급휴직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집중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급인원의 절반 가까이 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로 본 서울지역 노동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서울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서비스업종 중 종사자가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이다.⁵⁾ 그런데 이들 3개 업종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으로, 향후 고용위기 대책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지원이 중요하다. 남성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여성과 20대가 코로나19로 큰 고용위기를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설계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다. 제도 자체가 보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이의 모호한 고용관계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은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체제로 보호하지 못하는 취업자가 과반인 상황에서 고용보험 바깥의 취약계층노동자의 실직과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안전망 설계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5) 2018년 서울지역 기준으로, 도소매업 89만 6,326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49만 6,433명, 숙박 및 음식점업 49만 5,092명이 종사하고 있다(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kr).

Ⅲ. 코로나19 노동자 지원정책

1. 개요

코로나19 확산은 사회경제적으로 우리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 고용충격에 의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생존위기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고용 불안과 소득감소 등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국내 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20년 4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47만 6천명이 감소하여, 1999년 2월 이해 최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경제 및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시기를 경제전시상황에 비유하며,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3월 처음 개최한데 이어 4월부터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가동하면서 범정부 차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⁶⁾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망에서 제외된 노동자 지원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도 중앙정부 정책지원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정책 대응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중지·제한으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를 위해 중앙정부보다 완화된 지원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서울형 강소기업 200개사에 취업 징검다리로서 청년인턴 400명을 매칭하여 인건비와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 등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4,528개도 신규 창출해 방역지원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인력수요를 충당하면서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0.10.5.).

이하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했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요 노동자 지원정책을 확인하고, 향후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2020.12.15. 검색)

2. 중앙정부 노동자 지원정책

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장지연, 2020). 고용주의 고용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주의 고용유지를 위한 유인을 높이고, 고용유지조치로 크게 줄어든 임금을 보조하여 노동자의 불필요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고용주의 고용유지노력의 효과를 높이는 조치이다(오상봉, 202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은 재고량 증가와 매출액 감소로 증빙토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주요 개편방향은 지원대상 요건 완화와 지원금액 상향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대해 재고량 50% 이상 증가 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를 요건으로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인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적극 적용하여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재고나 매출 등의 증명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가능토록 하였다. 지원금액은 기존에 휴업·휴직수당의 1/2~1/3에서 2/3~9/10까지 상향하였으며, 1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정업종으로 지정하여, 수당의 최대 90%까지, 1일 한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였다.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만 부담하면 휴업·휴직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고용유지지원제도 중 하나로, 기존 제도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가 불가피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피보험자수 10% 이상(최소 10인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그래서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되게 하였으며,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으로, 2020년 12월 10일까지 7만 1천여개 기업의 76만명에게 2조 1천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2.22.).

<표 3-1>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고용주 지원	고용조정 불가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월평균 재고 대비 50% 증가하였거나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 • 지난해 월평균 또는 지난해 같은 달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생산이나 매출 대비 15% 감소하였거나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 사업규모를 축소했거나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변경이 있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코로나19로 조업이 (부분)중단된 사업장은 재고나 생산, 매출 등의 증명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지원요건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무시간을 단축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은 수당의 2/3 • 대기업은 수당의 1/2(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 일 상한은 6만 6천원(실업급여 일 상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은 3/4 → 9/10 • 대기업은 2/3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중 180일까지 	
노동자 지원	고용조정 불가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월평균 재고 대비 50% 증가하였거나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 지난해 월평균 또는 지난해 같은 달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생산이나 매출 대비 30% 감소하였거나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계속 20%이상 감소 추세 •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코로나19로 조업이 (부분)중단된 사업장은 재고나 생산, 매출 등의 증명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지원요건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위원회 승인 하에 일정비율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30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 중 휴업으로 임금의 50% 이상 삭감된 노동자 	
	지원요건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직(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부여한 이후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90일 이상의 무급휴직한 경우 해당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지원 추가 :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의 50% 미만(심사위원회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지원 추가 : 월 50만원
특별고용 지원업종	해당업종 및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신국제회의업 추가
	고용주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은 9/10, 대기업은 2/3(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우선지원대상의 일 상한은 7만원, 대기업의 일 상한 6만 6천원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노동자 지원요건 (휴직)	노동자 지원금액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부여한 이후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무급휴직한 경우 해당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지원 추가 : 즉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금액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의 50% 미만(심사위원회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지원 추가 : 월 50만원

자료 : 오상봉(2020)

<표 3-2>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부담 변화

구분	코로나19 이전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부담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직수당의 1/3(일 상한 내) + 휴업·휴직수당의 일 상한 초과액 +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직수당의 1/10(일 상한 내) + 휴업·휴직수당의 일 상한 초과액 +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직수당의 1/2 또는 1/3(일 상한 내) + 휴업·휴직수당의 일 상한 초과액 +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직수당의 1/3(일 상한 내) + 휴업·휴직수당의 일 상한 초과액 +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특별고용지원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직수당의 1/10(일 상한 내) + 휴업·휴직수당의 일 상한 초과액 +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없음
특별고용지원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직수당의 1/3 또는 1/4(일 상한 내) + 휴업·휴직수당의 일 상한 초과액 +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없음

자료 : 오상봉(2020)

2)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2020년 기준) 노동자에게 임금보조금이 지원된다. 중앙정부는 저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주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월 4~7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1인당 월 9~11만원 지원금은 월 13~18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에 2020년 11월말 기준 81만개 사업장, 345만명 노동자에게 2조 4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사업장(89.3%)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점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이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2.23.)

<표 3-3>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예외)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장애인직업재활·재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사업체중 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2020년 기준, 월 215만원 이하) · 지원금 신청 이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 · 지원대상자를 퇴직시킬 경우, 매출액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 소명될시 계속 지급, 소명되지 않으면 지급 종료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 중단 												
지원수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5인 미만 사업장</td> <td>1인당 월 11만원</td> <td>1인당 월 18만원</td> </tr> <tr> <td>5~9인 미만 사업장</td> <td>1인당 월 9만원</td> <td>1인당 월 16만원</td> </tr> <tr> <td>10~29인 사업장</td> <td>1인당 월 9만원</td> <td>1인당 월 13만원</td> </tr> </tbody> </table> <p>*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노동시간(근무일)에 비례하여 지원</p>	구분	기존	변경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	1인당 월 18만원	5~9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9만원	1인당 월 16만원	10~29인 사업장	1인당 월 9만원	1인당 월 13만원
구분	기존	변경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	1인당 월 18만원											
5~9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9만원	1인당 월 16만원											
10~29인 사업장	1인당 월 9만원	1인당 월 13만원											

자료 : 이창근(2020)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전망으로부터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을 수립하여, 2020년 두 차례 지원하였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차는 2020년 6월에, 2차는 2020년 10월에 신청을 받았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직종 특성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감소기간의 전년 동월(2019

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월~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였다.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해당 기간에 매출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하였다.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노동자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5.18.). 대상자에게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로 나눠 지원하였다.

<표 3-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 특성상 '19.12~'20.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감소 기간의 전년동월('19. 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영세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 종사자는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하나의 요건 충족) • 소득감소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소득·매출수준</th> <th>소득·매출감소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구간</td> <td>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td> <td rowspan="2">25% 이상 감소</td> </tr> <tr> <td>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td> </tr> <tr> <td>2구간</td> <td>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td> <td>50% 이상 감소</td> </tr> </tbody> </table>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구분	세부내용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지원수준	· 월 50만원 *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5.18.)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20년 9월에 추진되었다. 국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7조 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하였다. 1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하였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6만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영세자영업자가 109.8만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1만명(4.0%)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93.9만명(53.5%), 남성 81.7만명(46.5%)로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25.6%), 50대(28.0%)가 가장 많았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종별로는 보험설계기사 10만 4,525명(1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관련종사원 10만 3,267명(17.6%), 서비스관련종사원 3만 8,581명(6.6%), 판매관련종사원 2만 3,987명(4.1%), 학습지도사 2만 2,744명(3.9%), 대리운전기사 2만 2,581명(3.8%), 방문판매원 2만 2,513명(3.8%) 등의 순이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코로나19 이후 월 소득 감소율은 69.1%로, 생계의 큰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일자리의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코로나19의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1.3.).

5) 가족돌봄휴가

중앙정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개학 연기에 따라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였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노동자가 가족과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법으로 유급휴가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2020년 1월 20일 이후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0일(1일 지원금액 5만원)까지 지원하였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개학연기, 휴교를 실시하여,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2020년 9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및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자,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10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부모는 15일을 더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8.5%, 10~29인 13.3%, 30~99인 10.8%, 100~299인 9.2%, 300인 이상 38.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도소매업 9.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1.19.).

<표 3-5> 가족돌봄휴가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20일 이후 무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 계속근로 6개월 이상 노동자 신청 가능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로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시행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구분	세부내용			
지원수준	· 노동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최대 50만원(부부합상 최대 100만원) 지원 * 최대 휴가 사용일수는 1년 10일			
	구분	1차 대책 (2020. 2. 8.)	2차 대책 (2020. 4. 9.)	2차 대책 (2020. 9. 7.)
	지원일수(노동자 1인당)	5일	10일	20일
	지원금액(1일)	5만원	5만원	5만원
	최대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원	노동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료 : 이창근(2020) 수정

6) 건설일용직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지원을 위해 건설노동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건설경기 침체로 처음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고용형태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직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로, 본인 적립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하였다.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총 5만 7천명의 건설노동자가 약 733억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8월 장마가 길어지면서 건설노동자의 생계 어려움이 예상되자, 신청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추진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8.13.).

7)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연계 지원사업이다.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정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토록 하였다.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보전을 지원받고 있어 이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월 20만원, 최대 3개월을 지원하였다.

8) 청년구직활동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취업준비 비용(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처음 도입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래 계획했던 인원보다 5만명, 예산은 약 1,300억원 증액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가능토록 개선하였다.

2020년 9월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시행하였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으로,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2.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9~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였다.

3. 서울시 노동자 지원정책

1)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30일,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면서,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가 2월말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은 유급

휴직에 대한 지원으로,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조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수는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설계하였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로,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노동자가 중점 지원대상이었다. 추경을 통해 250억원을 편성하고, 최소 2만 5천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체만 대상이었는데, 지원대상을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송업 소상공인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체당 1명 지원에서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최대 9명까지,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기존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하게 하였다. 2020년 5월에는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였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하여 추진한 정책이다.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10인 미만 사업체는 제외되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최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표 3-6>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소속 무급 휴직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신노동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3(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대비 기준 완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지원요건</th> <th>고용노동부</th> <th>서울시</th> </tr> </thead> <tbody> <tr> <td>휴직기간</td> <td>90일 이상</td> <td>5일 이상</td> </tr> <tr> <td>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td> <td>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td> <td>1명 이상</td> </tr> </tbody> </table>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서울시	휴직기간	90일 이상	5일 이상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1명 이상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서울시										
휴직기간	90일 이상	5일 이상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1명 이상										

구분	세부내용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수준	·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무급휴직일 수 기준 40일)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최소 25,000명 지원 * 소상공인 업체당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20.4.20.)

<표 3-7>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내용

구분	최초(3.30.)	1차 확대(4.13)	2차 확대(5.1)	비고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 50인 미만 사업체	· 서울시 자체 변경
사업체당 지원자 수	· 사업체당 1명 (관광업종 2명)	· 제한없음 (최대 9명까지 지원)	· 제한없음 (최대 49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 월 1회 (매월 1~10일)	· 월 2회 (매월 1~10일, 22~24일)	· 상시 신청	
지원금액 산정방식	· 무급휴직 일수 당 2.5만원씩 일할계산하여 지급 (월 최대 50만원)		· 5일 이상 무급휴직시 무조건 50만원씩 지원	·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이중수급	·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와 중복지급 불가 (단,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가능)		· 지자체 긴급재난 생활비 와 중복지급 허용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20.5.6.)

2020년 10월, 서울시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업중단 및 제한이 불가피했던 사업체의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였다. 중앙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급휴직일이 30일 이상 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5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재고량,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요건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중앙정부 지원대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이라도, 영업중단 등 상황에서 무급휴직으로 고용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표 3-8>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비교

구분	고용노동부	서울시
신청자	노사합의 후 사업주가 신청	노동자 또는 사업주 신청
무급휴직일	30일 이상	5일 이상
재고량	50% 이상 증가	해당 없음
매출액/생산량	30% 이상 감소	해당 없음
무급휴직자수	10명 이상	해당 없음
사전 고용유지 조치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해당 없음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20.10.5.)

2)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초기 고영영향이 지자체별로 다른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안정방안을 설계·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였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대상 기간 동안 20일 이상 일을 못했거나,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었다. 총 지원대상은 1만 7,800명으로, 국비 30억원에 시비 59억원 등 총 89억원을 책정하였다.

<표 3-9>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5.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7,800명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4.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20.2.23(심각단계)~‘20.5.4. 이내)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합산 :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 모두 합산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임이 입증되고, 노무미제공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입증 :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 노무미제공 : 위기경보 심각단계('20.2.3.) 이후 공고일('20.5.4.까지) 20일 이상 노무미제공 - 소득감소 : 소득이 30% 이상 감소 				
	구분	입증서류(예시)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운전보험계약서, 유상운송보험계약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플랫폼노동(대기운전 업, 기사노동자 등) 화면 캡처 등 * 명칭불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table border="1"> <tr> <td>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td> <td>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휴업확인서, 휴관확인서, 휴강확인서, 공연취소 확인서, 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처 등 명칭 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 </tr> <tr> <td>소득감소 30% 이상 확인</td> <td>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계산서(개인사업자용), 소득확인서, 수수료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 </tr> </table>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휴업확인서, 휴관확인서, 휴강확인서, 공연취소 확인서, 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처 등 명칭 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 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계산서(개인사업자용), 소득확인서, 수수료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휴업확인서, 휴관확인서, 휴강확인서, 공연취소 확인서, 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처 등 명칭 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 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계산서(개인사업자용), 소득확인서, 수수료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수준	· 가구당 50만원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20.5.3.)

2020년 8월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용자사업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였다. 이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을 활용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용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자사업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용자하고, 수행기관이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에게 채용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였다.

<표 3-10>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용자 사업

구분	세부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 노동자 단체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여 용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구분	세부내용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용자(서울시→수행기관) - 용자한도 : 수행기관 당 30억원 - 용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 : 무이자 · 불안정고용노동자 대상 채용자(수행기관→노동자) - 용자대상 : 서울시 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 용자조건 : 서울시 내 노동자 단체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활동하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및 활동을 하는 노동자 - 용자한도 : 1인당 최대 500만원(노동자 단체 당 최대 2억원) 부금 적립 노동자 단체 : 최대 3억원 조합원 수 증가시 증가수에 비례하여 한도 증액(최대 4억원) - 용자기간 : 최대 3년 - 용자용도 : 긴급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 용도 - 용자금리 : :최고 3% 이내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20.8.11.)

3) 청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기존에 단기로 일하던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20.1.20~'20.3.20 사이에 그만둔 서울지역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다.

또한 사업연기,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청년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창작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지역 청년 또는 대표자가 청년인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프리랜서 대상 사업제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4) 노동권리대책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취약계층노동자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하였다. 노동권리대책반은 '시민명예노동옹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으로 구성하여,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이들 전문가 그룹이 피해를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소송대행까지

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권리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 대상 심리상담도 추진하였다.

4. 소결

코로나19의 의한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방향은 크게 고용유지 지원, 생계안정 지원,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이다. 먼저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다. 기업 지원시 고용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노사의 고용유지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에 고용유지지원금 2조 3천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34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고용안정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 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였다. 2020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11만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은 18.5만명에게,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만명에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29만명에게 지원하는 등 총 267만명에게 3조원을 지급하였다.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해 약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회복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구직급여 제도 변경으로 실업자의 구직급여가 확대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이 기존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노동에서 24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유급노동으로 변경되면서 구직급여가 확대된 것도 위기대응의 대책으로 작동하였다. 중앙정부 제도개선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제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취업자가 보편적 고용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예술인부터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2.23.)

서울시도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여 서울형 제도를 시행하거나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실시하였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으로, 중앙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의 지급요건보다 완화하여 지급대

상을 확대하였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대상의 용자사업도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이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서울시 사회투자자금을 활용하여 용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을 ‘노동권리대책반’으로 구성하여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무급휴직 지원,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지원정책은 모두 고용보험을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 밖의 취약계층노동자에게 고용충격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구직급여 확대 등의 정책적 효과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제한적이다. 무급휴직자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했지만,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시 지원하는 제도로, 파견·용역과 같이 여러 개의 다른 사업체에서 분산해서 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사용자업체 일부만 경영활동이 악화되면, 파견 및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다. 파견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 파견업체는 파견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하기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후 1개월간 계속고용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고용안전망은 정규직의 안정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취약계층노동자일수록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취업자 중심으로 고용보험체계를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취약계층노동자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

으로 한 고용보험이 완료되면, 그동안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상당수의 취약계층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다만, 단계별 시행에 따른 쟁점이 많고, 구체적인 계획도 보완되어야 한다. 소득파악방법, 보험료 분담방안, 수급요건 등 확정해야 할 중요문제들이 산적한 만큼,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IV.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생활실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6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오감리서치에서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지난 9개월간 미취업자는 제외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1) 일하는 지역이 서울지역인지 여부 2)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0년 2월에 취업상태 여부를 질문하여 조사대상을 확인하였다. 표본은 고용형태별, 사업체규모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였으며 최종 유효부수는 1,003부였다. 주요 설문조사 문항은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생활실태와 만족도, 환경변화 인식, 정책수요 등이었다. 조사시점에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 46.5%, 여성 53.5%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9.8%, 30대 15.1%, 40대 18.0%, 50대 21.9%, 60대 이상 25.1%였으며, 평균연령은 46.2세였다. 학력은 고졸이하 60.1%, 대졸 이상 39.9%였으며, 혼인여부는 기혼 70.7%, 비혼 29.3%였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 10.1%, 비정규직 89.9%였으며, 비정규직은 구체적으로 계약직 21.9%, 시간제 21.9%, 일용직 13.1%, 파견·하청·용역 13.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0%였다. 취약계층노동자인 비정규직의 코로나19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정규직에 10% 임의할당하고, 비정규직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9)의 비정규직 규모 추정과 정흥준 외(2018) 연구의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종합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업종은 제조업 7.0%, 건설업 9.3%, 도소매업 14.0%, 운수 및 창고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정보통신업 2.9%, 금융 및 보험업 7.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기타 업종은 3.2%였다. 서울지역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종사자가 많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응답자가 42.6%였다. 사업장규모는 1~4인 30.5%, 5~9인 23.4%, 10~29인 21.3%, 30~99인 14.1%,

100인 이상 10.1%로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53.9%로 과반 이상이였다. 직종은 관리자 및 전문직 4.5%, 사무직 19.7%, 서비스직 29.0%, 판매직 15.5%, 기능직 7.8%, 단순노무직 23.5%였다. 응답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3년이였으며, 1년 미만이 13.3%, 1년 이상~3년 미만 38.8%, 3년 이상~5년 미만 19.1%, 5년 이상 28.8%, 3년 미만 응답자가 전체의 52.1%였다.

<표 4-1> 주요 설문조사 문항

구성 영역	주요 문항(예시)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 직업, 근속기간 코로나19 영향 여부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간, 업무강도, 소득의 변화 불이익 조치 경험, 과정, 사업장에서 발생 정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유급병가제도 사업장 안전 : 방역 조치, 감염으로부터 안전 인식 실직 : 경험, 실직 이유, 실직기간, 실업급여 수혜, 실직기간 동안 활동 등
환경변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인식 : 안전성, 불안감, 우울감, 지속가능성, 회복가능성, 일자리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 가장 우려되는 점 코로나19의 사회 영향 인식, 변화 인식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수혜 : 인지, 신청(미신청 사유), 수혜, 도움 정도 단기 정책 필요성 : 소득지원, 사회보험 지원, 생활안정자금 용자,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피해노동자 권리구제, 방역 지원 등 장기 정책 필요성 : 확대 재정정책, 사회적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확대, 보편적 복지 확대, 국민연금/의료보장 확대, 소득재분배 정책, 노동기본권 강화
생활실태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소득, 가구 생활비, 생활비 대비 소득 수준, 소득과 부채 변화, 가구 소득 감소액, 부족 생활비 총당, 현재 재정상태, 향후 재정예상 만족도 변화 : 건강, 일자리, 가계재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
애로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면서 또는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서울시 역할 제안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연령, 학력, 혼인, 맞벌이, 자녀, 가구원 수, 거주지

<표 4-2>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퍼센트
전체		1003	100.0
성별	남	466	46.5
	녀	537	53.5
연령	20대 이하	199	19.8
	30대	151	15.1
	40대	181	18.0
	50대	220	21.9
	60대 이상	252	25.1
학력	고졸이하	603	60.1
	대졸(재학/중퇴포함)	394	38.3
	대학원 이상	6	0.6
혼인	비혼	294	29.3
	기혼	709	70.7
고용형태1	정규직	101	10.1
	비정규직	902	89.9
고용형태2	정규직	101	10.1
	계약직	220	21.9
	시간제	220	21.9
	일용직	131	13.1
	파견/하청/용역	130	13.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20.0
사업장규모	1~4인	306	30.5
	5~9인	235	23.4
	10~29인	214	21.3
	30~99인	141	14.1
	100인 이상	101	10.1
	잘 모르겠음	6	0.6
업종	제조업	70	7.0
	건설업	93	9.3
	도소매업	140	14.0
	운수 및 창고업	40	4.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13.3
	정보통신업	29	2.9
	금융 및 보험업	78	7.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15.3

구분		사례수	퍼센트
	교육서비스업	85	8.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4	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10.3
	기타	35	3.2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4.5
	사무직	198	19.7
	서비스직	291	29.0
	판매직	155	15.5
	기능직	78	7.8
	단순노무직	238	23.5
근속기간	1년 미만	133	13.3
	1년 이상~3년 미만	389	38.8
	3년 이상~5년 미만	192	19.1
	5년 이상	289	28.8

2. 노동환경 변화

1) 노동시간 변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에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변화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52.2%는 변화가 없었지만, 42.2%는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85.1%는 일하는 시간에 변화가 없었고,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14.9%였다.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정규직 응답자는 없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노동시간의 변화가 없는 비율이 48.6%, 줄어든 비율 45.2%, 늘어난 비율 6.2%였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계약직 29.5%, 시간제 59.5%, 일용직 69.5%, 파견·하청·용역 11.5%,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52.7%였다. 시간제,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일수록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사업장 규모별로 각각 1~4인 54.2%, 5~9인 37.4%, 10~29인 37.4%, 30~99인 41.8%, 100인 이상

25.7%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보다 노동시간 감소 응답 비율이 2 배 이상 높았다. 업종별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은 제조 및 건설업 64.4%, 도소매업 40.0%, 숙박 및 음식점업 61.7%, 금융보험업 51.3%, 교육서비스업 69.4% 등이었다. 직종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데, 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은 노동시간의 변화가 없는 비율이 91.1%, 줄었다는 비율이 8.9%였지만, 사무직은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36.9%, 서비스직 46.7%, 판매직 49.0%, 기능직 55.1%, 단순노무직 38.6%로, 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과 비교하여 다른 직종의 노동시간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적속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 응답자의 35.0%가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한 반면, 여성은 48.4%였다. 연령별로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은 20대 이하 36.2%, 30대 34.4%, 40대 45.3%, 50대 54.1%, 60대 이상 38.9%였으며,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 45.4%, 대졸 이상 37.3%로 나타났다. 40, 50대와 고졸 이하 응답자일수록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 주당 평균노동시간 변화1

단위 : %

구분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	변화가 없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	전체	
고용 형태	정규직	0.0%	85.1%	14.9%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6.2%	48.6%	45.2%	100.0%
		계약직	0.5%	70.0%	29.5%	100.0%
		시간제	0.5%	40.0%	59.5%	100.0%
		일용직	1.5%	29.0%	69.5%	100.0%
		파견·하청·용역	1.5%	86.9%	11.5%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4.9%	22.4%	52.7%	100.0%
규모	1-4명	3.9%	41.8%	54.2%	100.0%	
	5-9명	6.0%	56.6%	37.4%	100.0%	
	10-29명	12.1%	50.5%	37.4%	100.0%	
	30-99명	0.7%	57.4%	41.8%	100.0%	
	100인 이상	2.0%	72.3%	25.7%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0.0%	35.6%	64.4%	100.0%	
	도소매업	0.0%	60.0%	40.0%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0.8%	37.6%	61.7%	100.0%	
	금융보험업	0.0%	48.7%	51.3%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	86.3%	11.8%	100.0%	

구분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	변화가 없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	전체
	교육서비스업	0.0%	30.6%	69.4%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32.0%	35.0%	33.0%	100.0%
	기타	12.8%	67.6%	19.6%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0.0%	91.1%	8.9%	100.0%
	사무직	0.0%	63.1%	36.9%	100.0%
	서비스직	16.5%	36.8%	46.7%	100.0%
	판매직	0.0%	51.0%	49.0%	100.0%
	기능직	0.0%	44.9%	55.1%	100.0%
	단순노무직	3.4%	58.1%	38.6%	100.0%
성	남	11.4%	53.6%	35.0%	100.0%
	여	0.6%	51.0%	48.4%	100.0%
연령	20대 이하	11.1%	52.8%	36.2%	100.0%
	30대	7.3%	58.3%	34.4%	100.0%
	40대	7.2%	47.5%	45.3%	100.0%
	50대	2.7%	43.2%	54.1%	100.0%
	60대 이상	1.6%	59.5%	38.9%	100.0%
전체		5.6%	52.2%	4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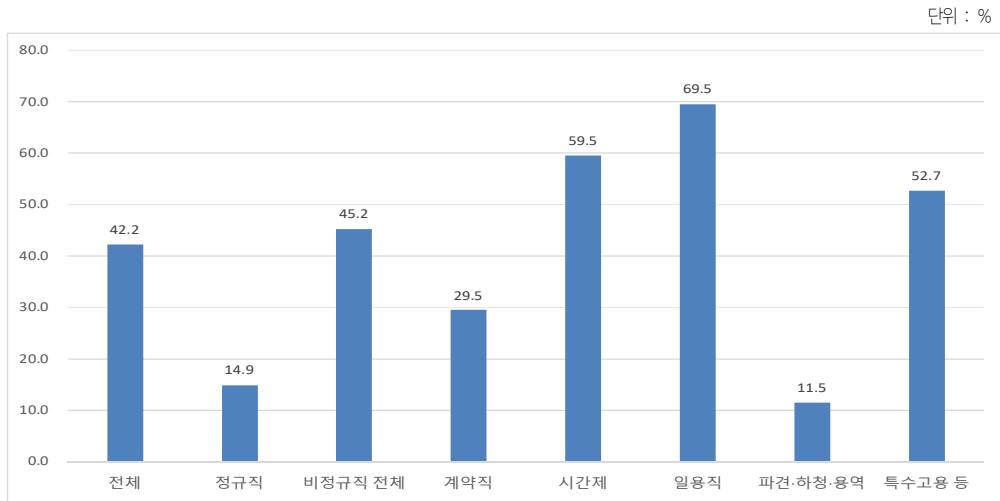
<표 4-4> 주당 평균노동시간 변화2

단위 : 시간, %

구분		주당 평균노동시간(시간)		코로나19 전후 증감(시간)	코로나19 전후 증감율(%)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고용 형태	정규직	41.7	40.2	-1.5	-3.6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43.0	37.0	-6.0	-14.0
		계약직	42.9	38.4	-4.5	-10.4
		시간제	33.9	26.0	-7.9	-23.3
		일용직	45.9	33.7	-12.2	-26.5
		파견·하청·용역	49.2	48.0	-1.2	-2.4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47.1	42.2	-4.9	-10.4		
규모	1-4명	41.0	33.6	-7.5	-18.2	
	5-9명	44.0	38.7	-5.3	-12.1	
	10-29명	43.9	39.3	-4.6	-10.4	
	30-99명	43.0	38.0	-5.0	-11.5	
	100인 이상	43.7	39.1	-3.5	-8.2	

구분		주당 평균노동시간(시간)		코로나19 전후 증감(시간)	코로나19 전후 증감율(%)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1.1	39.3	-1.8	-4.3
	사무직	40.7	35.2	-5.4	-13.4
	서비스직	42.8	37.6	-5.2	-12.1
	판매직	38.0	31.7	-6.3	-16.5
	기능직	46.2	38.9	-7.3	-15.8
	단순노무직	47.3	41.3	-5.9	-12.5
성	남	46.7	42.5	-4.2	-9.1
	여	39.5	32.8	-6.7	-17.0
연령	20대 이하	39.1	35.5	-3.6	-9.3
	30대	41.0	36.9	-4.1	-10.0
	40대	42.7	36.3	-6.4	-14.9
	50대	43.2	35.4	-7.8	-18.1
	60대 이상	46.7	41.2	-5.5	-11.7
전체		42.9	37.3	-5.6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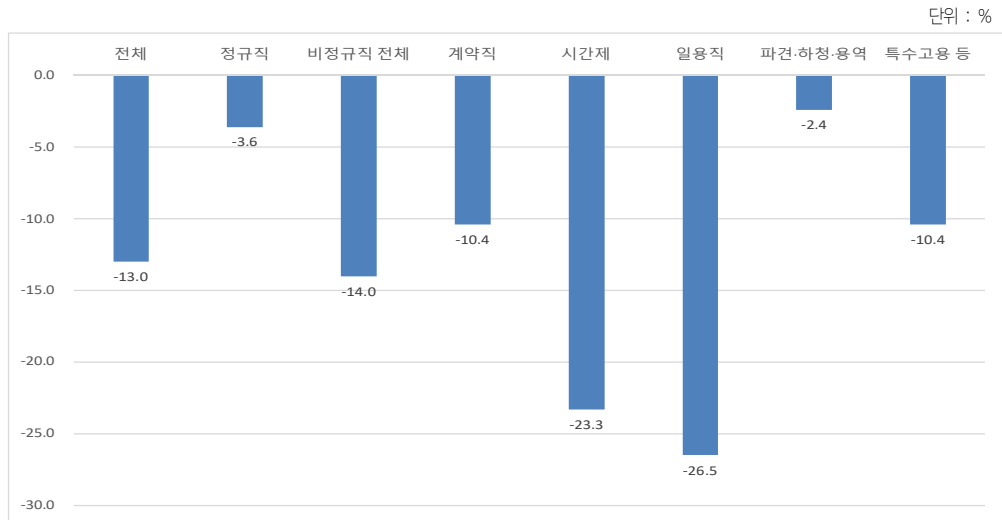
[그림 4-1]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



코로나19 전후로 실제 노동시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2.9시간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7.3시간으로, -5.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3.0%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이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코로나19 이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1.7시간에서 코로나19 이후 40.2시간으로 -1.5시간 줄어 노동시간 감소율은 -3.6%였지만, 비정규직은 43.0시간에서 37.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6.0시간 줄어 -14.0%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배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비정규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계약직은 -10.4%, 시간제는 -23.3%, 일용직은 -26.5%, 파견·하청·용역 -2.4%,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10.4%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 감소가 두드러져 코로나19가 임시일용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에서는 -18.2%, 5~9인 사업장은 -12.1%, 10~29인 사업장은 -10.4%, 30~99인 사업장은 -11.5%, 100인 이상 사업장은 -8.2%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이 -4.3% 감소하였으며, 사무직 -13.4%, 서비스직 -12.1%, 판매직 -16.5%, 기능직 -15.8%, 단순노무직 -12.5%씩 노동시간이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9.1%)보다 여성(-17.0%)의 주당 평균노동시간 감소율이 컸으며, 연령별로는 40대(-14.9%), 50대(-18.1%)의 노동시간 감소 정도가 컸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감소 정도를 확인하면, 코로나19 이전 43.4시간에서 코로나19 이후 28.7시간으로 -14.7시간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4.0%였다. 일하는 시간이 1/3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림 4-2]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전후 주당 평균노동시간 감소율



2) 임금(소득) 변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월 평균임금(소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은 43.5%, 변화가 없다는 비율 50.8%, 늘었다는 비율 5.7%로 노동시간 변화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이 감소한 만큼, 소득도 줄어든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중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은 13.9%였으며, 비정규직은 46.8%로, 비정규직의 임금 감소 비율이 3.4배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 비율은 계약직 29.5%, 시간제 59.5%, 일용직 71.0%, 파견·하청·용역 11.5%,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58.7%였다. 노동시간 감소처럼 시간제,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서도 노동시간 변화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5.6%, 5~9인 사업장 38.7%, 10~29인 사업장 38.8%, 30~99인 사업장 45.4%, 100인 이상 23.8%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업종별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은 교육서비스업 70.6%, 제조 및 건설업 63.8%, 숙박 및 음식점업 62.4%, 금융보험업 60.3%, 도소매업 42.1%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기능직 55.1%, 판매직 53.5%, 서비스직 48.5%, 단순노무직 39.0% 등의 순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50.1%)이 남성(35.8%)보다, 연령별로는 40대(47.5%), 50대(54.5%)가 20대(35.2%)와 30대(37.7%)보다 임금 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4-5> 월 평균임금(소득) 변화1

단위 : %

구분		임금(소득)이 줄었다	임금(소득) 변화가 없었다	임금(소득)이 늘었다	전체	
고용 형태	정규직	13.9%	85.1%	1.0%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46.8%	47.0%	6.2%	100.0%
		계약직	29.5%	70.5%	0.0%	100.0%
		시간제	59.5%	40.0%	0.5%	100.0%
		일용직	71.0%	27.5%	1.5%	100.0%
		파견·하청·용역	11.5%	86.9%	1.5%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58.7%	15.9%	25.4%	100.0%
규모	1-4명	55.6%	40.5%	3.9%	100.0%	
	5-9명	38.7%	54.9%	6.4%	100.0%	
	10-29명	38.8%	49.1%	12.1%	100.0%	
	30-99명	45.4%	53.9%	0.7%	100.0%	

구분		임금(소득)이 줄었다	임금(소득) 변화가 없었다	임금(소득)이 늘었다	전체
업종	100인 이상	23.8%	74.3%	2.0%	100.0%
	제조 및 건설업	63.8%	36.2%	0.0%	100.0%
	도소매업	42.1%	57.1%	0.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62.4%	36.8%	0.8%	100.0%
	금융보험업	60.3%	39.7%	0.0%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1.8%	86.9%	1.3%	100.0%
	교육서비스업	70.6%	29.4%	0.0%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34.0%	33.0%	33.0%	100.0%
직종	기타	20.3%	66.9%	12.8%	100.0%
	관리자 및 전문직	8.9%	91.1%	0.0%	100.0%
	사무직	36.9%	63.1%	0.0%	100.0%
	서비스직	48.5%	34.7%	16.8%	100.0%
	판매직	53.5%	45.8%	0.6%	100.0%
	기능직	55.1%	44.9%	0.0%	100.0%
성	단순노무직	39.0%	58.1%	3.0%	100.0%
	남	35.8%	52.4%	11.8%	100.0%
연령	여	50.1%	49.5%	0.4%	100.0%
	20대 이하	35.2%	53.3%	11.6%	100.0%
	30대	37.7%	55.0%	7.3%	100.0%
	40대	47.5%	45.3%	7.2%	100.0%
	50대	54.5%	42.7%	2.7%	100.0%
60대 이상		40.9%	57.5%	1.6%	100.0%
전체		43.5%	50.8%	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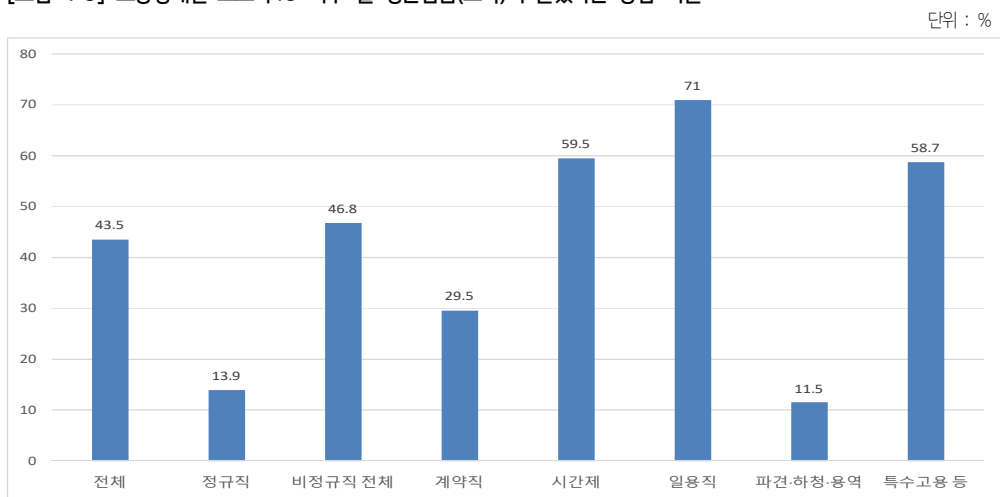
<표 4-6> 월 평균임금(소득) 변화2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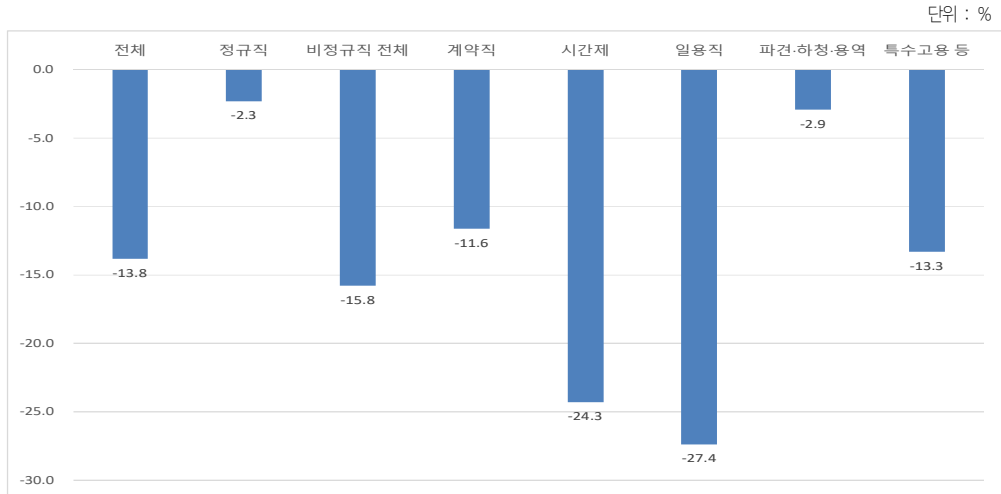
구분		월 평균임금(만원)		코로나19 전후 증감(만원)	코로나19 전후 증감율(%)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고용 형태	정규직	346.2	338.3	-7.9	-2.3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223.4	188.2	-35.2	-15.8
		계약직	252.4	223.1	-29.3	-11.6
		시간제	147.0	111.3	-35.7	-24.3
		일용직	260.9	189.4	-71.5	-27.4
		파견·하청·용역	184.8	179.5	-5.3	-2.9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75.8	239.0	-36.8	-13.3

구분	월 평균임금(만원)		코로나19 전후 증감(만원)	코로나19 전후 증감율(%)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규모	1-4명	198.7	159.4	-39.4	-19.8
	5-9명	223.9	194.6	-29.4	-13.1
	10-29명	243.3	216.7	-26.6	-10.9
	30-99명	263.2	226.8	-36.5	-13.8
	100인 이상	319.8	295.2	-24.6	-7.7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374.2	356.9	-17.3	-4.6
	사무직	272.7	237.6	-35.1	-12.9
	서비스직	206.4	187.2	-19.2	-9.3
	판매직	195.2	150.1	-45.2	-23.1
	기능직	292.8	244.6	-48.2	-16.5
	단순노무직	222.3	186.5	-35.9	-16.1
성	남	271.6	248.6	-23.1	-8.5
	여	204.7	164.0	-40.6	-19.8
연령	20대 이하	197.4	186.3	-11.1	-5.6
	30대	251.5	225.7	-25.8	-10.3
	40대	265.2	219.5	-45.7	-17.2
	50대	251.7	209.1	-42.7	-16.9
	60대 이상	221.5	186.7	-34.9	-15.7
전체		235.8	203.3	-32.5	-13.8

[그림 4-3]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임금(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



[그림 4-4]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임금 감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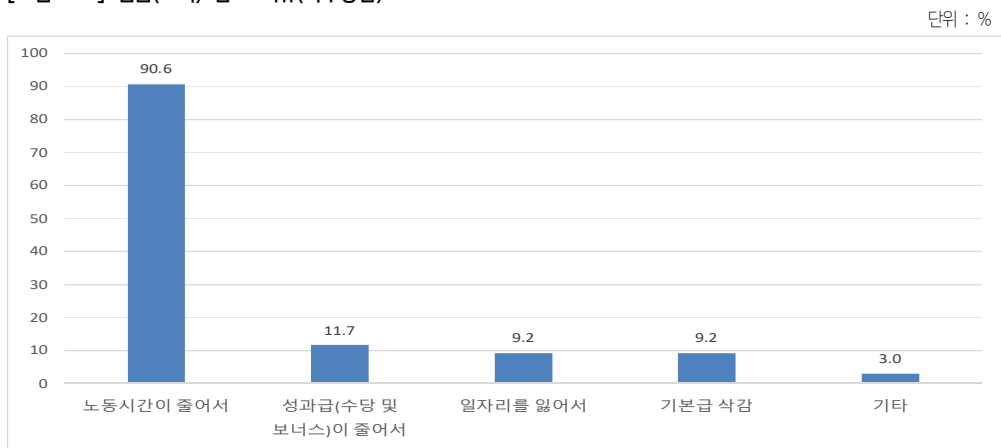


월 평균임금(소득)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로 각각 월 평균임금을 작성토록 하였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임금은 235.8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203.3만원으로 -32.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3.8%의 월 임금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13.0% 감소한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임금 감소 정도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정규직이 346.2만원에서 338.3만원으로 -2.3%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23.4만원에서 188.2만원으로 -15.8%가 감소하여 비정규직의 임금감소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제와 일용직은 각각 -24.3%, -27.4% 감소하여 월 평균임금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도 판매직 -23.1%, 기능직 -16.5%, 단순노무직 -16.1%의 임금 감소를 보인데 비해, 관리자 및 전문직은 -4.6%로 큰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코로나19 이전 271.6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248.6만원으로 -8.5% 감소하였지만, 여성은 204.7만원에서 164.0만원으로 -19.8%의 임금이 감소하여 남성보다 임금감소율이 2배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2%, 50대가 -16.9% 감소하여 코로나19 전후 임금이 크게 감소한 연령층이었다. 임금이 감소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 정도를 확인하면, 코로나19 이전 245.7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160.0만원으로 -85.7만원 감소하여, 임금감소율은 -34.9%로 소득의 1/3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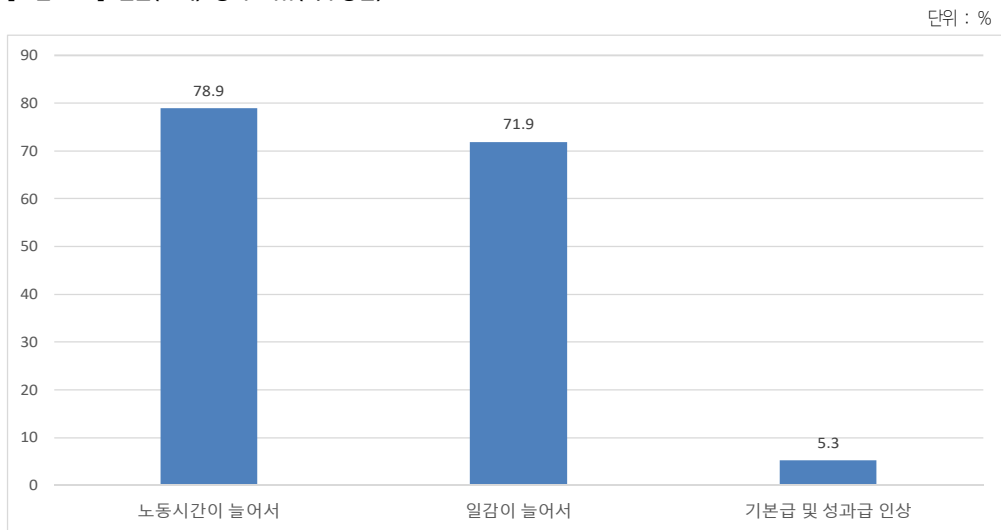
3) 임금(소득) 변화 이유

임금(소득) 변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어든 응답자의 90.6%는 ‘노동 시간이 줄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성과급(수당 및 보너스)이 줄어서 11.7%, 일자리를 잃어서 9.2%, 기본급 삭감 9.2%였다. 반대로 임금이 늘어난 이유는 노동시간이 늘어서 78.9%, 일감이 늘어서 71.9%, 기본급 및 성과급 인상 5.3%였다.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노동시간 변화가 고스란히 임금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 임금(소득) 감소 이유(복수응답)



[그림 4-6] 임금(소득) 증가 이유(복수응답)



4)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특성

<표 4-7>은 집단별로 코로나19 이후 임금과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한 응답자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임금과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1,003명 중, 임금과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한 노동자는 419명으로 41.3%였다. 특성별로 보면, 정규직 중 임금과 노동시간이 감소한 비율은 10.9%였지만, 비정규직은 45.2%로 비정규직의 코로나19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용직은 응답자의 69.5%, 시간제는 59.5%,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는 52.2%가 코로나19 이후 임금과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하였다. 규모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임금 및 노동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1~4인 사업장 54.2%, 5~9인과 10~20인 사업장은 동일하게 37.4%, 30~99인 사업장은 41.1%, 100인 이상 사업장은 22.8% 등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임금과 노동시간 감소를 겪은데 비해,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10명 중 2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69.4%), 제조 및 건설업(63.2%), 숙박 및 음식점업(61.7%)에서 응답자 10명 중 6~7명은 일하는 시간이 줄고 임금은 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은 8.9%였지만, 서비스직(46.7%), 판매직(49.0%), 기능직(55.1), 단순노무직(38.2%)은 그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4.3%, 여성이 48.2%로 여성의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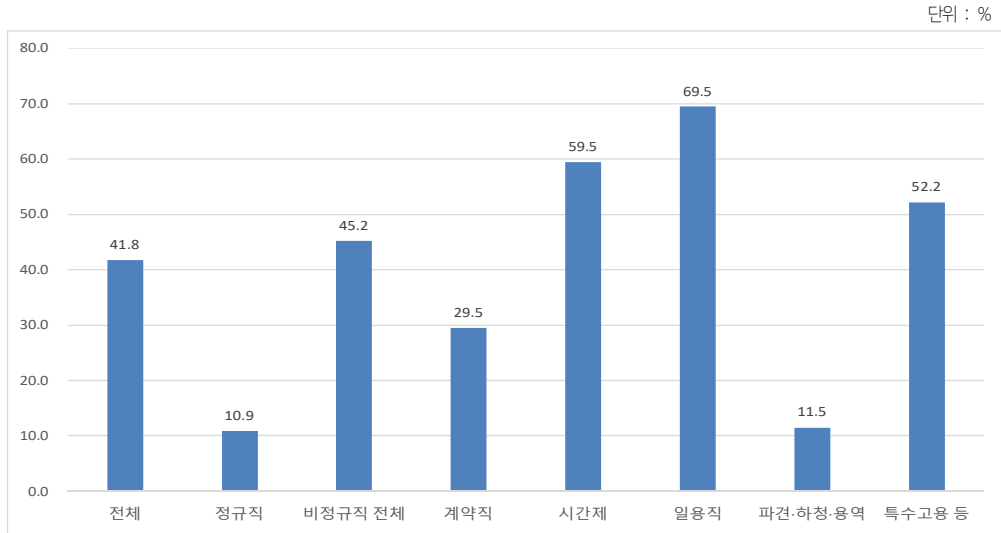
<표 4-7>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응답자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전체 응답자 중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비율	
고용 형태	정규직	101	11	10.9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408	45.2
		계약직	220	65	29.5
		시간제	220	131	59.5
		일용직	131	91	69.5
		파견·하청·용역	130	15	11.5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105	52.2
규모	1-4명	306	166	54.2	
	5-9명	235	88	37.4	

구분		전체 응답자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전체 응답자 중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비율
	10-29명	214	80	37.4
	30-99명	141	58	41.1
	100인 이상	101	23	22.8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103	63.2
	도소매업	140	56	4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82	61.7
	금융보험업	78	40	51.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17	11.1
	교육서비스업	85	59	6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33	32.0
	기타	148	29	19.6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4	8.9
	사무직	198	69	34.8
	서비스직	291	136	46.7
	판매직	155	76	49.0
	기능직	78	43	55.1
	단순노무직	238	91	38.2
성	남	466	160	34.3
	여	537	259	48.2
연령	20대 이하	199	70	35.2
	30대	151	52	34.4
	40대	181	81	44.8
	50대	220	118	53.6
	60대 이상	252	98	38.9
전체		1003	419	41.8

[그림 4-7] 코로나19이후 임금과 노동시간이 모두 줄어든 응답자 비율



5) 업무강도 변화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업무강도 변화를 보면,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는 23.2%, 변화가 없었다는 59.6%, 낮아졌다는 17.1%였다. 정규직(12.9%)보다 비정규직(24.4%)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37.3%)가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종에서는 서비스직(39.2%)과 단순노무직(25.0%)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코로나19 이후 높아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업무강도 변화에서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을 필수업무 노동자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Robert Reich(The Guardian, 2020.4.26.)의 코로나19 시대 신노동계급 구분(new kind of class divide)에 맞춰, 코로나19 영향으로 본인이 1)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2) 필수적 일을 하는 노동자, 3) 코로나19로 실직 위험, 일감 및 임금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체크토록 하였다. 필수업무 노동자는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32.9%, 원격근무 가능 노동자는 9.0%,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1.5%로 나타나, 필수업무 노동자일수록 업무강도가 코로나19 이후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필수업무 노동자의 업무강도 증가는 노동시간 및 업무강도 변화의 교차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간이 증가한 경우, 전체 응답자와 필수업무 노동자 모두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비율이 각각 89.3%, 90.7%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 15.3%, 필수업무 노동자

19.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강도가 증가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가 24.3%였는데 비해, 필수업무 노동자는 61.5%로 필수업무 노동자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주당 평균노동시간과 업무강도 교차분석

단위 : %

구분		업무강도						전체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전체 응답자	필수업무 노동자	전체 응답자	필수업무 노동자	전체 응답자	필수업무 노동자	
노동시간	증가	0.0%	0.0%	10.7%	9.3%	89.3%	90.7%	100.0%
	변화 없음	5.9%	5.4%	78.8%	74.7%	15.3%	19.9%	100.0%
	감소	33.3%	15.4%	42.3%	23.1%	24.3%	61.5%	100.0%
전체		17.1%	5.3%	59.6%	61.8%	23.2%	32.9%	100.0%

<표 4-9> 업무강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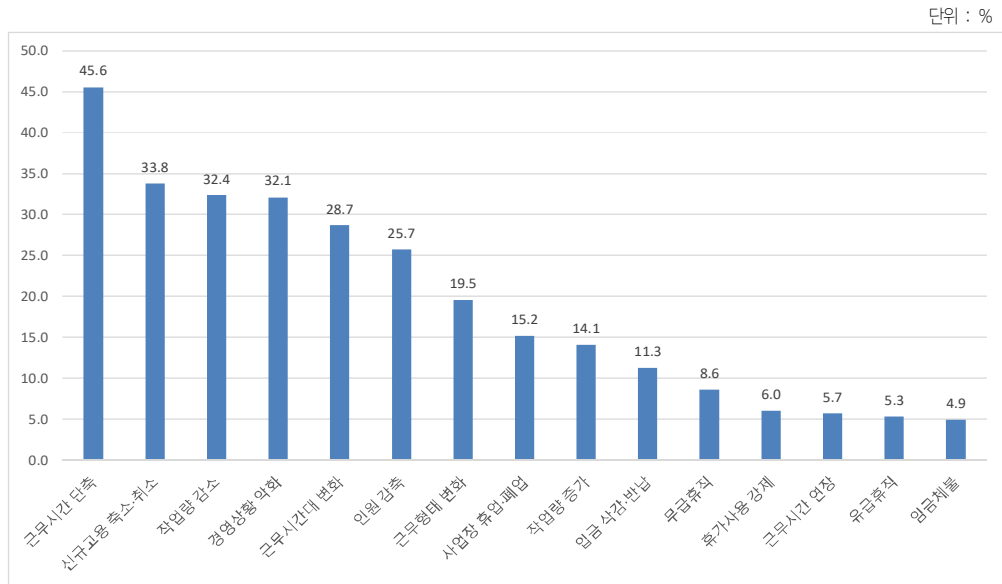
구분		업무강도가 낮아졌다	업무강도에 변화가 없었다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전체	
고용 형태	정규직	9.9%	77.2%	12.9%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8.0%	57.6%	24.4%	100.0%
		계약직	11.8%	74.1%	14.1%	100.0%
		시간제	22.3%	57.7%	20.0%	100.0%
		일용직	21.4%	54.2%	24.4%	100.0%
		파견·하청·용역	0.0%	70.8%	29.2%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9.4%	33.3%	37.3%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15.6%	80.0%	4.4%	100.0%	
	사무직	15.7%	68.2%	16.2%	100.0%	
	서비스직	20.3%	40.5%	39.2%	100.0%	
	판매직	23.9%	65.8%	10.3%	100.0%	
	기능직	14.1%	73.1%	12.8%	100.0%	
	단순노무직	11.4%	63.6%	25.0%	100.0%	
코로나19 영향	원격근무 가능 노동자	7.6%	83.4%	9.0%	100.0%	
	필수업무 노동자	5.3%	61.8%	32.9%	100.0%	
	부정적 영향 노동자	34.2%	44.3%	21.5%	100.0%	
	해당사항 없음	1.4%	87.5%	11.1%	100.0%	
전체		17.1%	59.6%	23.2%	100.0%	

6) 사업장(일자리) 조치와 경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일자리)에서 주요하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단축 45.6%, 신규고용 축소·취소 33.8%, 작업량 감소 32.4%, 경영상황 악화 32.1%, 근무시간대 변화 28.7%, 인원감축 25.7%, 근무형태(재택·원격근무 등) 변화 15.2%, 사업장 휴업·폐업 15.2%, 작업량 증가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일하는 사업장(일자리)의 절반 가까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근무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작업량 감소 및 경영상황 악화, 그리고 신규고용 축소·취소한 경우도 각각 1/3씩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작업량이 감소하며, 근무시간도 단축되는 등 노동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조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장 많은데, 근무시간 단축 45.6%, 근무시간대 변화 28.7%, 근무형태 변화 19.5%, 근무시간 연장 5.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경영환경 변화로 작업량 감소 32.4%, 경영상황 악화 32.1%, 사업장 휴업·폐업 15.2%, 작업량 증가 14.1% 등이다. 고용과 관련한 조치로는 신규고용 축소·취소 33.8%, 인원감축 25.7%, 무급 및 유급휴직 13.9%이었으며, 임금관련 조치로는 임금삭감·반납 11.3%, 임금체불 4.9%이었다.

[그림 4-8]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일자리)에서 발생한 일(복수응답)



<표 4-10>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

단위 : %

유형	발생한 일	퍼센트	유형	발생한 일	퍼센트
일하는 형태 변화	근무시간 단축	45.6%	고용 조치	신규고용 축소·취소	33.8%
	근무시간대 변화	28.7%		인원감축	25.7%
	근무형태 변화	19.5%		무급 및 유급휴직	13.9%
	근무시간 연장	5.7%		휴가 강제 사용	6.0%
경영환경 변화	작업량 감소	32.4%	임금 관련 조치	임금삭감·반납	11.3%
	경영상황 악화	32.1%		임금체불	4.9%
	사업장 휴업·폐업	15.2%			
	작업량 증가	14.1%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과 함께 본인이 직접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도 조사한 결과, 불이익 경험 비율은 14.1%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임금삭감·반납·체불 경험 7.5%,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경험 3.0%, 특정지역 방문금지 등 과도한 사생활 제한 1.8%, 무급휴업 1.5% 등이었다. 불이익 경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이익 경험자 141명 중 71명은 경영악화 및 일감 감소로 노동시간이 줄어 기본급 또는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임금이 체불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갑작스럽게 해고하거나 일방적인 사업장 폐지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29명이었다. 1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생활 제한을 경험하였으며, 14명은 무급휴직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다.

7)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32.3%,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67.7%로 2배 이상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 74.6%, 동의하지 않는 편이 25.4%로, 정부지원정책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았다. “사업주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들과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편이 64.9%, 그렇지 않다는 편이 35.1%로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는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74.5%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25.5%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과도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응답이 49.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6% 다

른 문항과 달리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코로나19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노력 및 정부정책 활용, 그에 따른 사업주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노동자들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표 4-11>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단위 :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아닌 편	③ 그런 편	④ 매우 그렇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평균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003	0.8	31.5	56.5	11.2	32.3	67.7	100.0	2.78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03	2.6	22.8	55.1	19.4	25.4	74.6	100.0	2.91
사업주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와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1003	4.6	30.5	48.8	16.2	35.1	64.9	100.0	2.76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는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003	2.9	22.6	62.2	12.3	25.5	74.5	100.0	2.84
사업주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과도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03	7.7	43.0	44.3	5.1	50.6	49.4	100.0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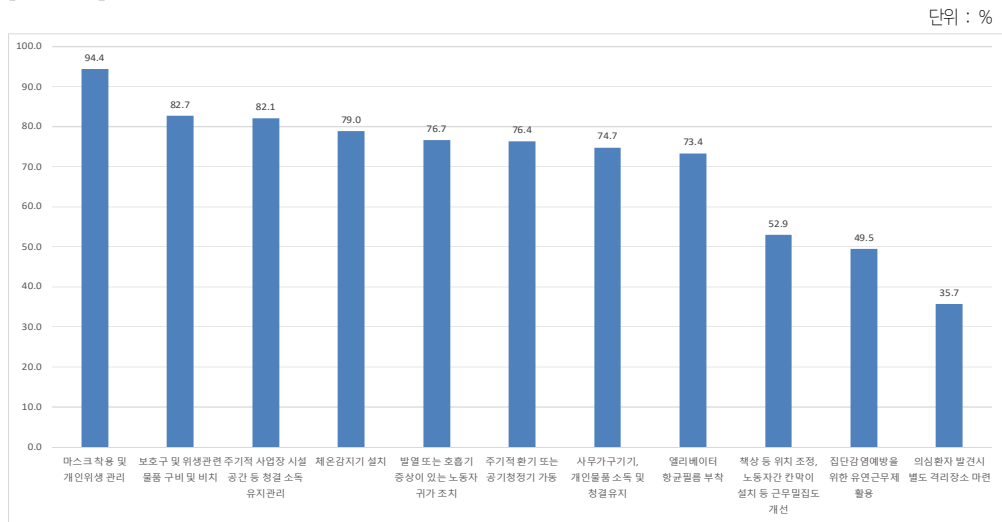
8) 사업장 방역 활동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비교적 다양한 방역활동들이 실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94.4%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82.7%, 주기적인 청결·소독 관리 82.1%, 체온감지기 설치 79.0%,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노동자 귀가 조치 76.7%, 주기적 환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76.4%, 사무기기 및 개인물품 청결유지 74.7%, 엘리베이터 항균필름 부착 7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근무밀집도 개선을 위한 조치(52.9%), 유연근무제 활용(49.5%), 의심환자 격리시설 마련(35.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설문조사 시점이 2020년 10월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2020년초 1차 유행시기의 경험이 있어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비교적 잘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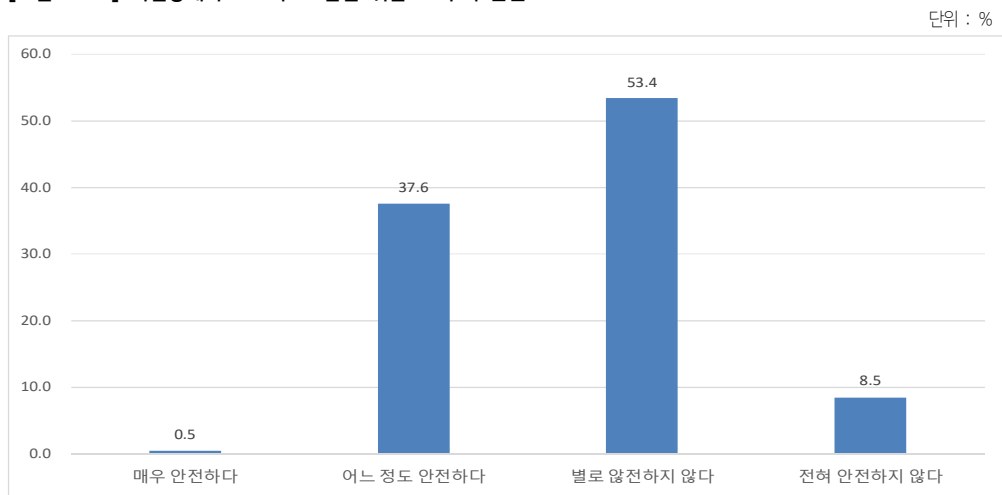
하지만, 사업장에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

한 우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우 안전하다 0.5%, 어느 정도 안전하다 37.6%, 별로 안전하지 않다 53.4%, 전혀 안전하지 않다 8.5%로 안전한 편이 38.1%, 안전하지 않은 편이 61.9%로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는 전반적인 코로나 19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안전한 편 28.7%, 안전하지 않은 편 71.3%로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업장 방역활동으로 사업장에서의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림 4-9] 사업장 방역 활동



[그림 4-10]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



3. 실직경험과 구직

1) 실직경험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에 취업 상태였던 서울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2020년 2월부터 조사시점인 10월 사이에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가 실직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코로나19가 실직의 직접적 이유였다는 응답자는 86명으로 8.6%였다. 즉, 서울지역 노동자 중 코로나19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취업상태였다가 일자리를 잃은 비율은 8.6%라고 할 수 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정규직에서는 실직경험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실직 경험자 모두는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표본설계시 취약계층노동자인 비정규직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직은 10% 임의로 표본을 할당하여 고용형태별 비율을 고려하면 과소 할당된 것이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제와 일용직이 각각 15.0%, 26.0%로 나타나,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1%였지만, 1~4인 사업장 노동자는 12.4%, 5~9인 사업장은 8.1%, 10~29인 사업장은 10.3% 등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 및 건설업 19.0%, 숙박 및 음식점업 18.0%, 교육서비스업 10.6%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는 서비스직 10.7%, 기능직 9.0%, 단순노무직 12.3%로 관리자 및 전문직(4.4%)이나 사무직(6.1%)보다 일자리를 잃은 경험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7.5%)보다 여성(9.9%)이, 연령에서는 50대(11.4%)와 60대(10.3%) 고연령층의 실직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및 고령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편이어서, 실직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

단위 : %

구분		실직한 경험이 있음	실직한 경험이 없음	전체	
고용 형태	정규직	0.0%	100.0%	100.0%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9.8%	90.2%	100.0%
		계약직	4.5%	95.5%	100.0%
		시간제	15.0%	85.0%	100.0%
		일용직	26.0%	74.0%	100.0%
		파견·하청·용역	1.5%	9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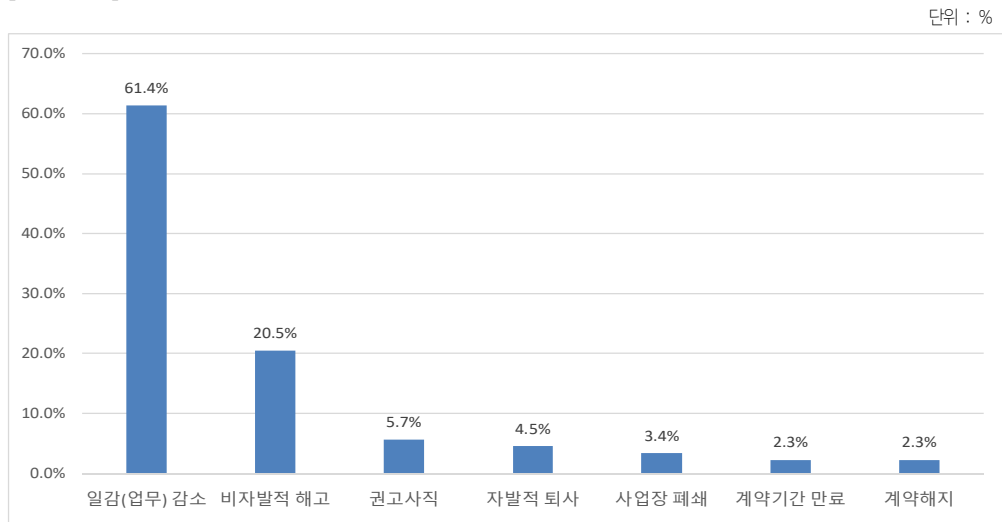
구분		실직한 경험이 있음	실직한 경험이 없음	전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4.5%	95.5%	100.0%
규모	1-4명	12.4%	87.6%	100.0%
	5-9명	8.1%	91.9%	100.0%
	10-29명	10.3%	89.7%	100.0%
	30-99명	5.7%	94.3%	100.0%
	100인 이상	1.0%	99.0%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9.0%	81.0%	100.0%
	도소매업	6.4%	93.6%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8.0%	82.0%	100.0%
	금융보험업	0.0%	100.0%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	98.0%	100.0%
	교육서비스업	10.6%	89.4%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3.9%	96.1%	100.0%
	기타	5.4%	94.6%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4%	95.6%	100.0%
	사무직	6.1%	93.9%	100.0%
	서비스직	10.7%	89.3%	100.0%
	판매직	4.5%	95.5%	100.0%
	기능직	9.0%	91.0%	100.0%
	단순노무직	12.3%	87.7%	100.0%
성	남	7.5%	92.5%	100.0%
	여	9.9%	90.1%	100.0%
연령	20대 이하	8.5%	91.5%	100.0%
	30대	5.3%	94.7%	100.0%
	40대	6.6%	93.4%	100.0%
	50대	11.4%	88.6%	100.0%
	60대 이상	10.3%	89.7%	100.0%
전체		8.8%	91.2%	100.0%

2) 실직 이유와 기간

일자리를 잃게 된 이유로는 일감(업무) 감소 61.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비자발적 해고 20.5%, 권고사직 5.7%, 자발적 퇴사 4.5%, 사업장 폐쇄 3.4%,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해지가 각각 2.3%였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용직은 일감감소로 인한 실직이 91.2%였는데 비해, 시간제는 비자발적 해고가 48.5%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따른 실직 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직종별로도 일용직이 많은 단순노무직은 일감감소로 인한 실직이 93.1%였지만,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비자발적 해고가 각각 35.5%, 57.1%로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실업기간은 2.9개월이었으며, 계약직은 평균 4.5개월, 시간제 2.9개월, 일용직 2.6개월 등으로 계약직의 실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그림 4-11] 실직 이유



<표 4-13> 특성별 실직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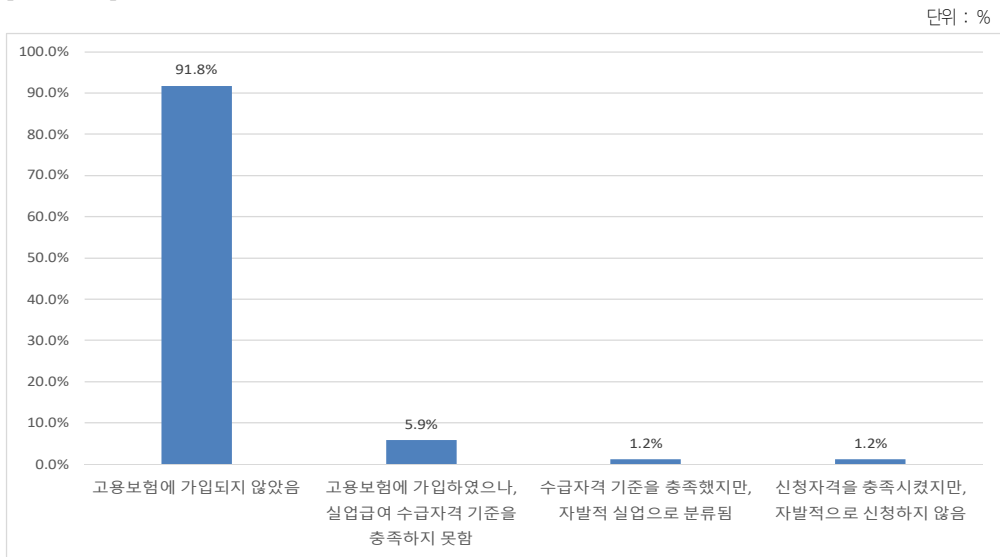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일감(업무) 감소	비자발적 해고	기타	전체
고용 형태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88)	61.4%	20.5%	18.2%	100.0%
	계약직	(10)	40.0%	10.0%	50.0%	100.0%
	시간제	(33)	33.3%	48.5%	18.2%	100.0%
	일용직	(34)	91.2%	2.9%	5.9%	100.0%
	파견·하청·용역	(2)	100.0%	0.0%	0.0%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9)	66.7%	0.0%	33.3%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1)	100.0%	0.0%	0.0%	100.0%
	사무직	(12)	41.7%	8.3%	50.0%	100.0%
	서비스직	(31)	41.9%	35.5%	22.6%	100.0%
	판매직	(7)	28.6%	57.1%	14.3%	100.0%
	기능직	(7)	71.4%	14.3%	14.3%	100.0%

구분	사례수	일감(업무) 감소	비자발적 해고	기타	전체
단순노무직	(29)	93.1%	3.4%	3.4%	100.0%
전체	(88)	61.4%	20.5%	18.2%	100.0%

3) 실업급여 수급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절대 다수의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91.8%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계약직(55.6%)은 물론, 시간제(96.9%), 일용직(93.9%), 파견·하청·용역(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100.0%) 노동자 절대 다수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실직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수혜를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4-12] 실업급여 미수급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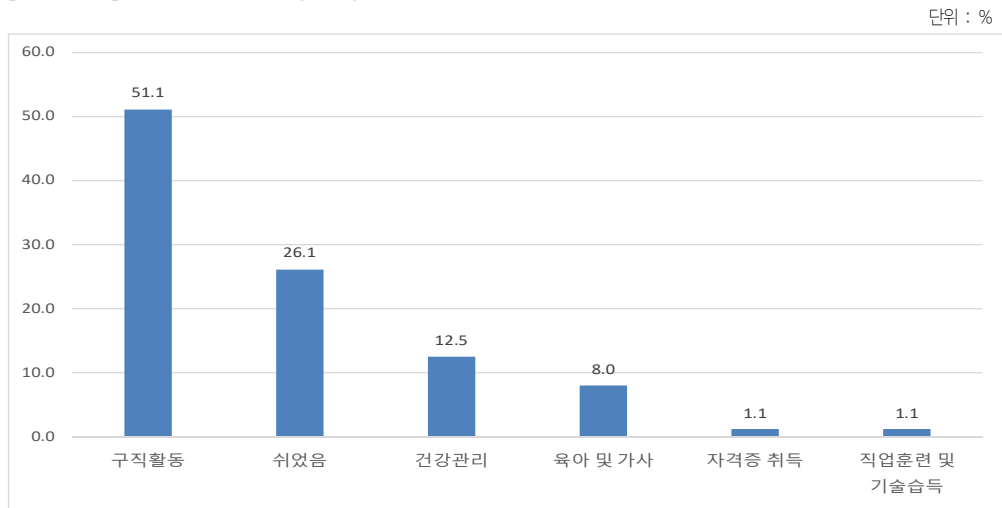


4) 실직기간 활동

실직기간 동안 주로 한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는 구직활동(창업 준비)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쉬었음 및 별다른 활동 없었음 26.1%, 건강관리 12.5%, 육아 및 가사 8.0%,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및 기술습득이 각각 1.1%였다.

현재 실직상태인 응답자 19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조사한 결과, 현재 구직 중인 응답자는 84.2%였으며, 구직중 애로사항(1순위)으로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경쟁률이 치열함 47.4%, 원하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음 36.8%로 나타나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향후계획(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73.7%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취업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29.2%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실직기간 주된 활동(1순위)



4. 환경변화 인식

1) 코로나19 감염 우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28.7%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인식 비율이 50.5%, 비정규직은 73.6%로, 비정규직이 코로나19 감염을 더 우려하였다. 비정규직은 계약직(64.1%)을 제외하고 시간제(77.7%), 일용직(77.1), 파견·하청·용역(78.5%),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74.1%) 모두 코로나19 감염위험 우려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응답자는 감염우려 비율이 70%대였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7.4%(30~99인), 65.0%(100인 이상)이었다.

업종별로는 대면 업무가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78.6%, 7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도 대면 업무 중심 직종인 서비스직(78.7%), 판매직(77.4%)의 감염 우려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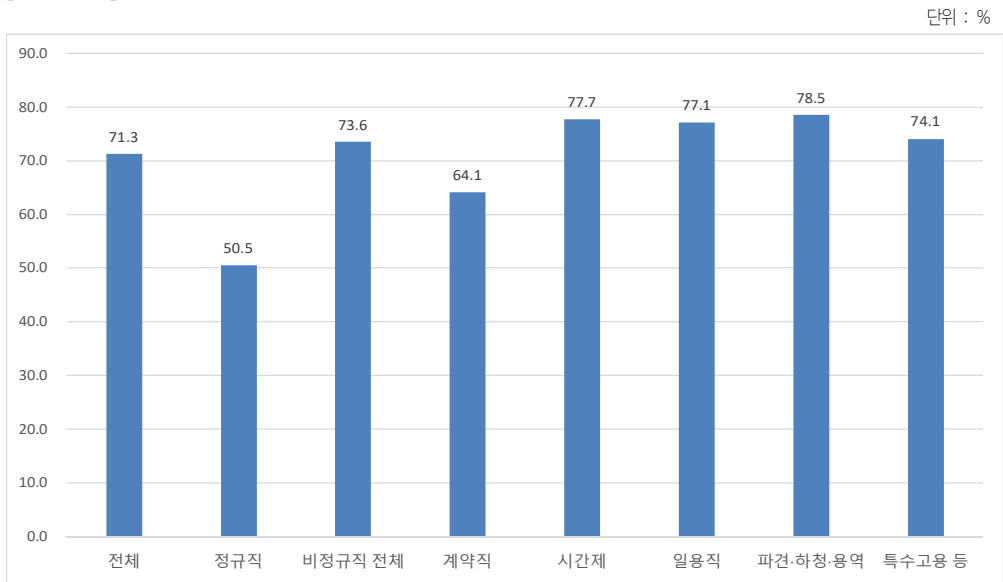
<표 4-14> 코로나19 감염 우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② 별로 안전하지 않다	③ 어느정도 안전하다	④ 매우 안전하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2.0%	48.5%	49.5%	0.0%	50.5%	49.5%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10.0%	63.6%	25.9%	0.4%	73.6%	26.4%	100.0%
		계약직	220	5.5%	58.6%	34.1%	1.8%	64.1%	35.9%	100.0%
		시간제	220	12.7%	65.0%	22.3%	0.0%	77.7%	22.3%	100.0%
		일용직	131	16.0%	61.1%	22.9%	0.0%	77.1%	22.9%	100.0%
		파견·하청·용역	130	10.8%	67.7%	21.5%	0.0%	78.5%	21.5%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7.5%	66.7%	25.9%	0.0%	74.1%	25.9%	100.0%
규모	1-4명	306	10.5%	63.4%	25.8%	0.3%	73.9%	26.1%	100.0%	
	5-9명	235	10.6%	60.4%	28.9%	0.0%	71.1%	28.9%	100.0%	
	10-29명	214	11.2%	65.9%	22.4%	0.5%	77.1%	22.9%	100.0%	
	30-99명	141	3.5%	65.2%	29.8%	1.4%	68.8%	31.2%	100.0%	
	100인 이상	101	5.9%	51.5%	42.6%	0.0%	57.4%	42.6%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9.8%	55.2%	35.0%	0.0%	65.0%	35.0%	100.0%	
	도소매업	140	5.0%	73.6%	21.4%	0.0%	78.6%	21.4%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18.8%	59.4%	21.8%	0.0%	78.2%	21.8%	100.0%	
	금융보험업	78	0.0%	60.3%	39.7%	0.0%	60.3%	39.7%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9.2%	64.7%	26.1%	0.0%	73.9%	26.1%	100.0%	
	교육서비스업	85	1.2%	63.5%	32.9%	2.4%	64.7%	35.3%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11.7%	64.1%	24.3%	0.0%	75.7%	24.3%	100.0%	
기타	148	11.5%	57.4%	29.7%	1.4%	68.9%	31.1%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8.9%	44.4%	46.7%	0.0%	53.3%	46.7%	100.0%	
	사무직	198	2.0%	57.6%	38.4%	2.0%	59.6%	40.4%	100.0%	
	서비스직	291	15.1%	63.6%	21.3%	0.0%	78.7%	21.3%	100.0%	
	판매직	155	3.9%	73.5%	22.6%	0.0%	77.4%	22.6%	100.0%	
	기능직	78	15.4%	53.8%	30.8%	0.0%	69.2%	30.8%	100.0%	
	단순노무직	236	9.3%	62.7%	28.0%	0.0%	72.0%	28.0%	100.0%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② 별로 안전하지 않다	③ 어느정도 안전하다	④ 매우 안전 하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성	남	466	10.9%	61.6%	27.0%	0.4%	72.5%	27.5%	100.0%
	여	537	7.6%	62.6%	29.4%	0.4%	70.2%	29.8%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11.6%	59.8%	27.1%	1.5%	71.4%	28.6%	100.0%
	30대	151	3.3%	60.3%	36.4%	0.0%	63.6%	36.4%	100.0%
	40대	181	6.1%	62.4%	30.9%	0.6%	68.5%	31.5%	100.0%
	50대	220	10.9%	64.5%	24.5%	0.0%	75.5%	24.5%	100.0%
	60대 이상	252	11.5%	62.7%	25.8%	0.0%	74.2%	25.8%	100.0%
전체		1003	9.2%	62.1%	28.3%	0.4%	71.3%	28.7%	100.0%

[그림 4-14] 코로나19 감염 우려



2)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코로나19로 인해 느끼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 2.9%, 불안감이 심각한 편이다 25.0%, 불안감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64.4%, 불안감이 전혀 없다 7.7%로 나타났다.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 27.9%,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편이 72.1%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편이 다수였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 18.8%였으며, 비정규직은 28.9%로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제 35.0%, 일용직 29.0%,

파견·하청·용역 27.7%,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31.3%였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일수록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1~4인 33.0%, 5~9인 31.1%였으며, 10인 이상 사업체는 20%대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업종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직종에서는 서비스직(34.4%), 기능직(42.3%), 단순노무직(26.3%)이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서는 50대(31.8%), 60대 이상(31.3%)에서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가 크게 나타난 집단일수록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일용직, 소규모 사업체 소속,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직 등은 코로나19로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던 집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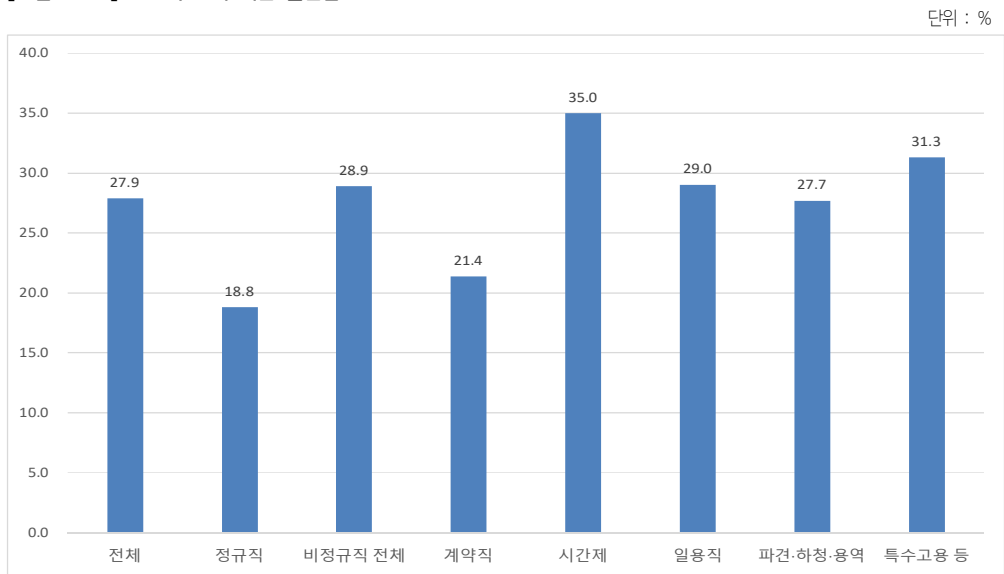
<표 4-15>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	② 불안감이 심각한 편이다	③ 불안감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④ 불안감 이 전혀 없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2.0%	16.8%	76.2%	5.0%	18.8%	81.2%	100.0%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3.0%	25.9%	63.1%	8.0%	28.9%	71.1%	100.0%
		계약직	220	1.8%	19.5%	66.8%	11.8%	21.4%	78.6%	100.0%
		시간제	220	1.8%	33.2%	60.5%	4.5%	35.0%	65.0%	100.0%
		일용직	131	3.8%	25.2%	67.9%	3.1%	29.0%	71.0%	100.0%
		파견·하청·용역	130	4.6%	23.1%	60.0%	12.3%	27.7%	72.3%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 플랫폼	201	4.0%	27.4%	60.7%	8.0%	31.3%	68.7%	100.0%
규모	1-4명	306	3.6%	29.4%	61.1%	5.9%	33.0%	67.0%	100.0%	
	5-9명	235	3.4%	27.7%	61.7%	7.2%	31.1%	68.9%	100.0%	
	10-29명	214	3.7%	20.1%	66.4%	9.8%	23.8%	76.2%	100.0%	
	30-99명	141	0.7%	23.4%	66.7%	9.2%	24.1%	75.9%	100.0%	
	100인 이상	101	1.0%	19.8%	71.3%	7.9%	20.8%	79.2%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4.3%	23.9%	67.5%	4.3%	28.2%	71.8%	100.0%	
	도소매업	140	0.7%	23.6%	71.4%	4.3%	24.3%	75.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3.0%	36.1%	49.6%	11.3%	39.1%	60.9%	100.0%	
	금융보험업	78	0.0%	19.2%	66.7%	14.1%	19.2%	80.8%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3.9%	23.5%	62.1%	10.5%	27.5%	72.5%	100.0%	
	교육서비스업	85	1.2%	21.2%	63.5%	14.1%	22.4%	77.6%	100.0%	

구분		사례수	① 불안감이 매우 심하다	② 불안감이 심각한 편이다	③ 불안감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④ 불안감이 전혀 없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3.9%	24.3%	68.9%	2.9%	28.2%	71.8%	100.0%
	기타	148	4.1%	25.0%	66.2%	4.7%	29.1%	70.9%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8.9%	82.2%	8.9%	8.9%	91.1%	100.0%
	사무직	198	2.0%	19.7%	69.2%	9.1%	21.7%	78.3%	100.0%
	서비스직	291	3.8%	30.6%	57.4%	8.2%	34.4%	65.6%	100.0%
	판매직	155	0.6%	23.9%	70.3%	5.2%	24.5%	75.5%	100.0%
	기능직	78	6.4%	35.9%	55.1%	2.6%	42.3%	57.7%	100.0%
	단순노무직	236	3.4%	22.9%	64.8%	8.9%	26.3%	73.7%	100.0%
	남	466	3.0%	24.5%	64.4%	8.2%	27.5%	72.5%	100.0%
여	537	2.8%	25.5%	64.4%	7.3%	28.3%	71.7%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2.5%	24.6%	64.8%	8.0%	27.1%	72.9%	100.0%
	30대	151	0.7%	23.2%	66.9%	9.3%	23.8%	76.2%	100.0%
	40대	181	2.2%	20.4%	71.8%	5.5%	22.7%	77.3%	100.0%
	50대	220	3.6%	28.2%	59.5%	8.6%	31.8%	68.2%	100.0%
	60대 이상	252	4.4%	27.0%	61.5%	7.1%	31.3%	68.7%	100.0%
전체		1003	2.9%	25.0%	64.4%	7.7%	27.9%	72.1%	100.0%

[그림 4-15]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3)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코로나19로 인해 느끼고 있는 우울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우울감이 매우 심각하다 1.0%, 우울감이 심각한 편이다 13.1%, 우울감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67.9%, 우울감이 전혀 없다 18.0%로, 우울감이 심각한 편 14.1%, 심각하지 않은 편 85.9%였다. 응답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우울감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도 다른 문항과 유사하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의 시간제,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가, 규모에서는 대규모 사업체보다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직종은 서비스직과 기능직이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규직 응답자 중 우울감이 심각한 편은 2.0%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15.4%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거의 8배 수준이었다. 그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22.9%)과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18.9%) 노동자의 우울감 비율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4.0%만이 우울감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그 이하의 사업체 규모 응답자는 14.1%~17.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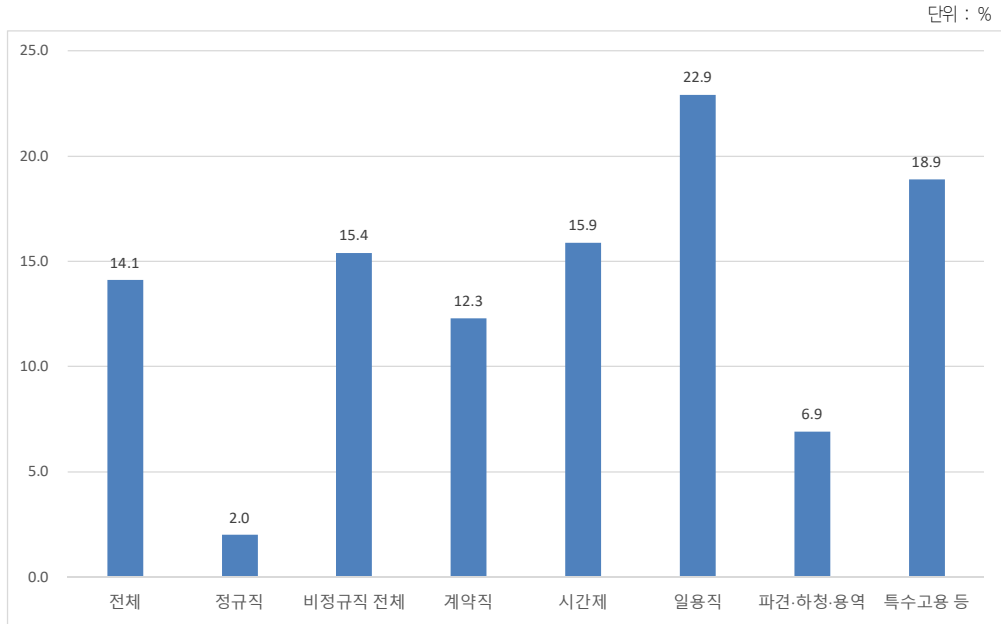
<표 4-16>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우울감이 매우 심각하다	② 우울감이 심각한 편이다	③ 우울감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④ 우울감이 전혀 없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0.0%	2.0%	76.2%	21.8%	2.0%	98.0%	100.0%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1.1%	14.3%	67.0%	17.6%	15.4%	84.6%	100.0%
		계약직	220	0.9%	11.4%	68.2%	19.5%	12.3%	87.7%	100.0%
		시간제	220	1.8%	14.1%	72.7%	11.4%	15.9%	84.1%	100.0%
		일용직	131	1.5%	21.4%	66.4%	10.7%	22.9%	77.1%	100.0%
		파견·하청·용역	130	0.8%	6.2%	68.5%	24.6%	6.9%	93.1%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 플랫폼	201	0.5%	18.4%	58.7%	22.4%	18.9%	81.1%	100.0%
규모	1-4명	306	1.6%	12.4%	68.0%	18.0%	14.1%	85.9%	100.0%	
	5-9명	235	1.3%	14.5%	69.8%	14.5%	15.7%	84.3%	100.0%	
	10-29명	214	0.9%	14.0%	64.5%	20.6%	15.0%	85.0%	100.0%	
	30-99명	141	0.0%	17.0%	63.1%	19.9%	17.0%	83.0%	100.0%	

구분	사례수	① 우울감이 매우 심각하다	② 우울감이 심각한 편이다	③ 우울감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④ 우울감이 전혀 없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100인 이상	101	0.0%	4.0%	76.2%	19.8%	4.0%	96.0%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1.2%	16.6%	69.9%	12.3%	17.8%	82.2%	100.0%
	도소매업	140	0.7%	9.3%	71.4%	18.6%	10.0%	90.0%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1.5%	21.8%	64.7%	12.0%	23.3%	76.7%	100.0%
	금융보험업	78	0.0%	14.1%	60.3%	25.6%	14.1%	85.9%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0.7%	7.8%	69.9%	21.6%	8.5%	91.5%	100.0%
	교육서비스업	85	1.2%	17.6%	60.0%	21.2%	18.8%	81.2%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1.0%	9.7%	68.0%	21.4%	10.7%	89.3%	100.0%
	기타	148	1.4%	9.5%	71.6%	17.6%	10.8%	89.2%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4.4%	75.6%	20.0%	4.4%	95.6%	100.0%
	사무직	198	0.5%	10.1%	70.7%	18.7%	10.6%	89.4%	100.0%
	서비스직	291	1.7%	15.5%	64.6%	18.2%	17.2%	82.8%	100.0%
	판매직	155	0.6%	14.8%	65.8%	18.7%	15.5%	84.5%	100.0%
	기능직	78	2.6%	19.2%	65.4%	12.8%	21.8%	78.2%	100.0%
	단순노무직	236	0.4%	11.0%	70.3%	18.2%	11.4%	88.6%	100.0%
성	남	466	0.9%	11.6%	68.0%	19.5%	12.4%	87.6%	100.0%
	여	537	1.1%	14.3%	67.8%	16.8%	15.5%	84.5%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0.5%	8.0%	75.4%	16.1%	8.5%	91.5%	100.0%
	30대	151	0.0%	10.6%	71.5%	17.9%	10.6%	89.4%	100.0%
	40대	181	1.1%	13.8%	61.3%	23.8%	14.9%	85.1%	100.0%
	50대	220	1.4%	16.8%	66.8%	15.0%	18.2%	81.8%	100.0%
	60대 이상	252	1.6%	14.7%	65.5%	18.3%	16.3%	83.7%	100.0%
전체	1003	1.0%	13.1%	67.9%	18.0%	14.1%	85.9%	100.0%	

[그림 4-16]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4) 코로나19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절대 다수는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12.6%, 그런 편이다 6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0%, 전혀 그렇지 않다 0.1%였으며, 응답자의 81.9%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응답자의 18.1%만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고용형태, 규모, 업종, 직종, 성, 연령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17> 코로나19 영향 지속가능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8.9%	73.3%	17.8%	0.0%	82.2%	17.8%	100.0%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13.0%	68.8%	18.1%	0.1%	81.8%	18.2%	100.0%
		계약직	220	12.3%	70.9%	16.8%	0.0%	83.2%	16.8%	100.0%

구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시간제	220	9.1%	74.1%	16.4%	0.5%	83.2%	16.8%	100.0%
	일용직	131	14.5%	63.4%	22.1%	0.0%	77.9%	22.1%	100.0%
	파견·하청·용역	130	13.8%	70.0%	16.2%	0.0%	83.8%	16.2%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16.4%	63.7%	19.9%	0.0%	80.1%	19.9%	100.0%
규모	1-4명	306	13.1%	66.3%	20.3%	0.3%	79.4%	20.6%	100.0%
	5-9명	235	13.6%	71.9%	14.5%	0.0%	85.5%	14.5%	100.0%
	10-29명	214	13.1%	66.8%	20.1%	0.0%	79.9%	20.1%	100.0%
	30-99명	141	10.6%	73.8%	15.6%	0.0%	84.4%	15.6%	100.0%
	100인 이상	101	8.9%	74.3%	16.8%	0.0%	83.2%	16.8%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11.7%	64.4%	23.9%	0.0%	76.1%	23.9%	100.0%
	도소매업	140	7.9%	75.7%	16.4%	0.0%	83.6%	16.4%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11.3%	72.9%	15.0%	0.8%	84.2%	15.8%	100.0%
	금융보험업	78	10.3%	62.8%	26.9%	0.0%	73.1%	26.9%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15.7%	70.6%	13.7%	0.0%	86.3%	13.7%	100.0%
	교육서비스업	85	5.9%	74.1%	20.0%	0.0%	80.0%	20.0%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22.3%	60.2%	17.5%	0.0%	82.5%	17.5%	100.0%
	기타	148	14.2%	70.9%	14.9%	0.0%	85.1%	14.9%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8.9%	73.3%	17.8%	0.0%	82.2%	17.8%	100.0%
	사무직	198	9.6%	72.2%	18.2%	0.0%	81.8%	18.2%	100.0%
	서비스직	291	14.8%	66.0%	18.9%	0.3%	80.8%	19.2%	100.0%
	판매직	155	10.3%	76.1%	13.5%	0.0%	86.5%	13.5%	100.0%
	기능직	78	14.1%	62.8%	23.1%	0.0%	76.9%	23.1%	100.0%
	단순노무직	236	14.0%	67.8%	18.2%	0.0%	81.8%	18.2%	100.0%
성	남	466	14.2%	68.2%	17.6%	0.0%	82.4%	17.6%	100.0%
	여	537	11.2%	70.2%	18.4%	0.2%	81.4%	18.6%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12.6%	65.8%	21.1%	0.5%	78.4%	21.6%	100.0%
	30대	151	8.6%	74.8%	16.6%	0.0%	83.4%	16.6%	100.0%
	40대	181	13.3%	65.7%	21.0%	0.0%	79.0%	21.0%	100.0%
	50대	220	12.7%	70.0%	17.3%	0.0%	82.7%	17.3%	100.0%
	60대 이상	252	14.3%	70.6%	15.1%	0.0%	84.9%	15.1%	100.0%
전체		1003	12.6%	69.3%	18.0%	0.1%	81.9%	18.1%	100.0%

5) 과거로 회복가능성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과거와 같은 상태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6.1%,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4%, 그런 편이다 36.6%, 매우 그렇다 1.9%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38.5%만 동의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다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과거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편이었다.

<표 4-18> 코로나19 이후 과거로 회복가능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2.0%	57.4%	38.6%	2.0%	59.4%	40.6%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6.5%	55.2%	36.4%	1.9%	61.8%	38.2%	100.0%
		계약직	220	5.5%	55.0%	37.7%	1.8%	60.5%	39.5%	100.0%
		시간제	220	5.0%	54.5%	38.6%	1.8%	59.5%	40.5%	100.0%
		일용직	131	8.4%	58.8%	29.8%	3.1%	67.2%	32.8%	100.0%
		파견·하청·용역	130	10.0%	40.8%	46.9%	2.3%	50.8%	49.2%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6.0%	63.2%	29.9%	1.0%	69.2%	30.8%	100.0%
규모	1-4명	306	5.9%	57.2%	34.3%	2.6%	63.1%	36.9%	100.0%	
	5-9명	235	7.2%	54.5%	35.7%	2.6%	61.7%	38.3%	100.0%	
	10-29명	214	8.4%	53.3%	36.9%	1.4%	61.7%	38.3%	100.0%	
	30-99명	141	3.5%	57.4%	38.3%	0.7%	61.0%	39.0%	100.0%	
	100인 이상	101	3.0%	51.5%	44.6%	1.0%	54.5%	45.5%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8.0%	61.3%	29.4%	1.2%	69.3%	30.7%	100.0%	
	도소매업	140	5.7%	57.1%	36.4%	0.7%	62.9%	37.1%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6.8%	54.1%	36.8%	2.3%	60.9%	39.1%	100.0%	
	금융보험업	78	6.4%	62.8%	30.8%	0.0%	69.2%	30.8%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9.8%	42.5%	44.4%	3.3%	52.3%	47.7%	100.0%	
	교육서비스업	85	2.4%	47.1%	48.2%	2.4%	49.4%	50.6%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5.8%	67.0%	27.2%	0.0%	72.8%	27.2%	100.0%	
	기타	148	2.0%	54.7%	39.2%	4.1%	56.8%	43.2%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55.6%	37.8%	6.7%	55.6%	4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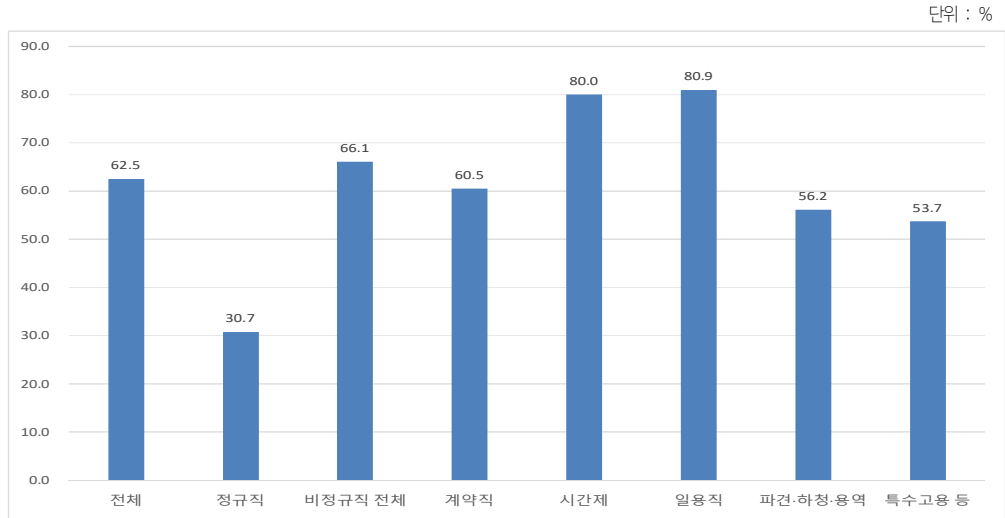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사무직	198	4.5%	48.5%	45.5%	1.5%	53.0%	47.0%	100.0%
	서비스직	291	7.6%	57.4%	33.3%	1.7%	64.9%	35.1%	100.0%
	판매직	155	7.1%	61.9%	30.3%	.6%	69.0%	31.0%	100.0%
	기능직	78	7.7%	65.4%	21.8%	5.1%	73.1%	26.9%	100.0%
	단순노무직	236	5.5%	51.3%	41.9%	1.3%	56.8%	43.2%	100.0%
성	남	466	6.4%	56.9%	34.5%	2.1%	63.3%	36.7%	100.0%
	여	537	5.8%	54.2%	38.4%	1.7%	60.0%	40.0%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3.5%	56.3%	38.7%	1.5%	59.8%	40.2%	100.0%
	30대	151	6.0%	54.3%	37.1%	2.6%	60.3%	39.7%	100.0%
	40대	181	8.3%	55.8%	34.3%	1.7%	64.1%	35.9%	100.0%
	50대	220	5.0%	55.9%	37.3%	1.8%	60.9%	39.1%	100.0%
	60대 이상	252	7.5%	54.8%	35.7%	2.0%	62.3%	37.7%	100.0%
전체	1003	6.1%	55.4%	36.6%	1.9%	61.5%	38.5%	100.0%	

6) 코로나19에 의한 실직 우려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코로나19 인한 실직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 5.1%, 그런 편이다 57.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5.7%, 전혀 그렇지 않다 1.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5%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실직에 대한 우려는 고용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는데, 정규직은 30.7%, 비정규직은 66.1%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은 10명 중 3명만이,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의한 실직 우려가 있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와 일용직은 80.0%, 80.9%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실직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임금과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이기에 실직우려 또한 다른 고용형태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일수록 실직 우려가 컸다. 1~4인 사업장 69.6%, 5~9인 67.2%, 10~29인 62.1%, 30~99인 54.6%, 100인 이상 44.6%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실직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79.7%, 제조 및 건설업 77.3%, 도소매업 69.3%, 교육서비스업 63.5%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46.7%)과 사무직(51.5%)에 비해 기타 나머지 직종에서 실직 우려

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7.1%)보다 여성(67.2%)이, 연령별로는 30대(51.0%)가 가장 낮았으며, 50대(66.4%), 60대 이상(66.7%)이 상대적으로 실직 우려가 높았다.

[그림 4-17] 코로나19에 의한 실직우려



<표 4-19> 코로나19에 의한 실직 우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8.9%	60.4%	30.7%	0.0%	69.3%	30.7%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1.0%	32.9%	60.4%	5.7%	33.9%	66.1%	100.0%
		계약직	220	0.0%	39.5%	55.0%	5.5%	39.5%	60.5%	100.0%
		시간제	220	0.0%	20.0%	71.4%	8.6%	20.0%	80.0%	100.0%
		일용직	131	0.0%	19.1%	71.8%	9.2%	19.1%	80.9%	100.0%
		파견·하청·용역	130	3.1%	40.8%	53.1%	3.1%	43.8%	56.2%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2.5%	43.8%	51.7%	2.0%	46.3%	53.7%	100.0%
규모	1-4명	306	1.0%	29.4%	64.4%	5.2%	30.4%	69.6%	100.0%	
	5-9명	235	0.9%	31.9%	58.7%	8.5%	32.8%	67.2%	100.0%	
	10-29명	214	2.8%	35.0%	57.5%	4.7%	37.9%	62.1%	100.0%	
	30-99명	141	2.1%	43.3%	52.5%	2.1%	45.4%	54.6%	100.0%	
	100인 이상	101	4.0%	51.5%	42.6%	2.0%	55.4%	44.6%	100.0%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BOT2	③+④ TOP2	계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1.8%	20.9%	68.7%	8.6%	22.7%	77.3%	100.0%
	도소매업	140	2.1%	28.6%	65.0%	4.3%	30.7%	69.3%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0.0%	20.3%	72.9%	6.8%	20.3%	79.7%	100.0%
	금융보험업	78	2.6%	52.6%	44.9%	0.0%	55.1%	44.9%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2.6%	46.4%	47.1%	3.9%	49.0%	51.0%	100.0%
	교육서비스업	85	0.0%	36.5%	57.6%	5.9%	36.5%	63.5%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0.0%	44.7%	52.4%	2.9%	44.7%	55.3%	100.0%
	기타	148	4.1%	45.9%	44.6%	5.4%	50.0%	50.0%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53.3%	44.4%	2.2%	53.3%	46.7%	100.0%
	사무직	198	2.5%	46.0%	45.5%	6.1%	48.5%	51.5%	100.0%
	서비스직	291	1.4%	33.3%	60.1%	5.2%	34.7%	65.3%	100.0%
	판매직	155	1.3%	31.6%	63.2%	3.9%	32.9%	67.1%	100.0%
	기능직	78	3.8%	25.6%	61.5%	9.0%	29.5%	70.5%	100.0%
	단순노무직	236	1.7%	32.6%	61.4%	4.2%	34.3%	65.7%	100.0%
성	남	466	3.0%	39.9%	52.4%	4.7%	42.9%	57.1%	100.0%
	여	537	0.7%	32.0%	61.8%	5.4%	32.8%	67.2%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1.5%	35.7%	57.3%	5.5%	37.2%	62.8%	100.0%
	30대	151	3.3%	45.7%	49.0%	2.0%	49.0%	51.0%	100.0%
	40대	181	0.6%	38.1%	57.5%	3.9%	38.7%	61.3%	100.0%
	50대	220	3.2%	30.5%	58.6%	7.7%	33.6%	66.4%	100.0%
	60대 이상	252	0.8%	32.5%	61.5%	5.2%	33.3%	66.7%	100.0%
전체		1003	1.8%	35.7%	57.4%	5.1%	37.5%	62.5%	100.0%

7)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일자리 유지 36.9%, 건강 22.9%, 구직 10.5%, 생계비 9.4%, 노동안전 7.9%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유지와 구직을 합한 고용이슈가 47.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건강과 노동안전을 포함한 안전건강 이슈가 30.8%였다.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 위기와 감염병 우려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규직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건강(48.5%)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유지

23.8%, 구직과 노동안전이 각각 5.9%순이었다. 이에 반해,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은 일자리 유지 38.4%, 건강 20.1%, 구직 11.0%, 생계비 10.3%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유지와 구직을 합한 고용이슈를 가장 어려운 점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정규직 29.8%, 비정규직 49.4%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생계비를 현재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정규직 1.0%, 비정규직은 10.3%로,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위협을 비정규직이 더욱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1>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의 1, 2순위 합계 결과이다. 일자리 유지 52.5%, 건강 45.0%, 노동안전 23.9%, 구직 23.3%, 생계비 20.4%, 임금보장 15.0%, 과로 13.6%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건강 우려가 58.4%, 일자리 유지 35.6%, 노동안전 29.7%였으며, 생계비를 선택한 응답자는 12.9%였다. 비정규직은 일자리 유지 54.4%, 건강 43.5%, 구직 24.2%, 노동안전 23.3%, 생계비 21.3%였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1, 2순위 합계 결과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선택한 항목에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은 코로나19에 의한 건강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선택한 반면, 비정규직은 일자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생계비를 선택한 응답자도 정규직은 10명 중 약 1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약 2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표 4-20>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유지	구직	생계비	과로	건강	노동 안전	자녀 양육	임금 보장	없음	
고용 형태	정규직	101	23.8%	5.9%	1.0%	1.0%	48.5%	5.9%	2.0%	5.9%	5.9%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38.4%	11.0%	10.3%	7.2%	20.1%	8.1%	0.1%	3.7%	1.2%
		계약직	220	38.6%	13.2%	10.5%	4.1%	25.5%	7.3%	0.5%	.5%	0.0%
		시간제	220	56.4%	8.6%	8.2%	2.7%	16.8%	3.2%	0.0%	3.6%	0.5%
		일용직	131	37.4%	17.6%	17.6%	6.1%	10.7%	6.9%	0.0%	3.8%	0.0%
		파견·하청·용역	130	27.7%	9.2%	10.0%	8.5%	29.2%	14.6%	0.0%	.8%	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25.9%	8.0%	8.0%	15.4%	17.9%	10.9%	0.0%	9.0%	5.0%
규모	1-4명	306	46.1%	8.5%	12.4%	3.6%	17.3%	6.9%	0.0%	4.6%	0.7%	
	5-9명	235	37.9%	10.2%	9.8%	8.9%	22.1%	8.1%	0.4%	1.7%	0.9%	
	10-29명	214	31.3%	15.0%	8.9%	11.2%	19.6%	7.9%	0.0%	4.7%	1.4%	
	30-99명	141	28.4%	12.1%	5.7%	5.0%	30.5%	9.2%	0.0%	6.4%	2.8%	
	100인 이상	101	29.7%	5.0%	5.9%	3.0%	37.6%	8.9%	2.0%	2.0%	5.9%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42.3%	12.3%	19.6%	1.8%	11.0%	6.1%	0.0%	4.9%	1.8%	

구분		사례수	일자리 유지	구직	생계비	과로	건강	노동 안전	자녀 양육	임금 보장	없음
	도소매업	140	44.3%	8.6%	5.0%	2.9%	27.1%	7.1%	0.0%	4.3%	0.7%
	숙박 및 음식점업	133	56.4%	11.3%	6.8%	1.5%	16.5%	4.5%	0.0%	2.3%	0.8%
	금융보험업	78	34.6%	6.4%	12.8%	0.0%	24.4%	11.5%	0.0%	9.0%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27.5%	9.2%	7.2%	9.2%	34.0%	12.4%	0.0%	.7%	0.0%
	교육서비스업	85	41.2%	17.6%	8.2%	2.4%	18.8%	3.5%	0.0%	7.1%	1.2%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25.2%	7.8%	6.8%	12.6%	20.4%	13.6%	0.0%	4.9%	8.7%
	기타	148	23.0%	10.8%	7.4%	18.9%	29.7%	5.4%	2.0%	2.0%	0.7%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33.3%	6.7%	2.2%	11.1%	33.3%	6.7%	0.0%	2.2%	4.4%
	사무직	198	37.4%	15.7%	6.1%	2.0%	26.8%	4.0%	1.5%	4.0%	2.5%
	서비스직	291	38.5%	8.9%	8.9%	10.3%	20.3%	6.5%	0.0%	3.1%	3.4%
	판매직	155	41.3%	6.5%	7.1%	1.9%	26.5%	9.7%	0.0%	7.1%	0.0%
	기능직	78	32.1%	12.8%	16.7%	5.1%	20.5%	9.0%	0.0%	3.8%	0.0%
	단순노무직	236	33.9%	10.6%	13.1%	8.5%	19.5%	11.4%	0.0%	3.0%	0.0%
성	남	466	31.8%	11.2%	9.9%	9.2%	22.1%	9.7%	0.2%	3.2%	2.8%
	여	537	41.3%	9.9%	8.9%	4.3%	23.6%	6.3%	0.4%	4.5%	0.7%
연령	20대 이하	199	44.7%	10.6%	6.0%	4.0%	20.6%	8.0%	0.0%	3.5%	2.5%
	30대	151	37.1%	11.3%	5.3%	6.6%	25.8%	10.6%	0.0%	1.3%	2.0%
	40대	181	35.4%	12.7%	6.6%	6.6%	25.4%	5.0%	1.7%	5.0%	1.7%
	50대	220	35.5%	10.9%	9.5%	5.9%	22.3%	7.3%	0.0%	5.9%	2.7%
	60대 이상	252	32.9%	7.9%	16.3%	9.1%	21.8%	8.7%	0.0%	3.2%	0.0%
전체		1003	36.9%	10.5%	9.4%	6.6%	22.9%	7.9%	0.3%	3.9%	1.7%

<표 4-21>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유지	구직	생계비	과로	건강	노동 안전	자녀 양육	임금 보장	없음	
고용 형태	정규직	101	35.6%	15.8%	12.9%	8.9%	58.4%	29.7%	3.0%	14.9%	5.9%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54.4%	24.2%	21.3%	14.1%	43.5%	23.3%	1.0%	15.0%	1.2%
		계약직	220	50.5%	25.5%	22.3%	8.6%	52.7%	27.3%	2.7%	9.1%	0.0%
		시간제	220	73.2%	28.2%	19.1%	6.4%	33.2%	17.3%	1.4%	19.5%	0.5%
		일용직	131	56.5%	33.6%	32.8%	16.0%	31.3%	15.3%	0.0%	14.5%	0.0%
		파견·하청·용역	130	50.0%	20.8%	15.4%	13.1%	56.9%	36.9%	0.0%	4.6%	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39.8%	14.4%	18.9%	27.9%	43.8%	21.9%	0.0%	23.4%	5.0%

구분		사례수	일자리 유지	구직	생계비	과로	건강	노동 안전	자녀 양육	임금 보장	없음
규모	1-4명	306	65.4%	24.8%	27.1%	7.8%	32.4%	21.6%	1.0%	18.0%	0.7%
	5-9명	235	51.9%	23.4%	19.6%	14.0%	48.1%	23.4%	1.3%	15.3%	0.9%
	10-29명	214	46.3%	27.1%	19.6%	22.4%	47.2%	22.4%	0.9%	10.7%	1.4%
	30-99명	141	41.8%	19.9%	15.6%	11.3%	51.8%	29.8%	1.4%	17.7%	2.8%
	100인 이상	101	42.6%	15.8%	11.9%	13.9%	59.4%	28.7%	2.0%	9.9%	5.9%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58.3%	31.9%	34.4%	9.2%	31.9%	13.5%	1.2%	15.3%	1.8%
	도소매업	140	57.1%	22.1%	12.1%	5.7%	41.4%	35.7%	1.4%	18.6%	0.7%
	숙박 및 음식점업	133	78.2%	28.6%	25.6%	3.0%	30.8%	15.0%	0.0%	17.3%	0.8%
	금융보험업	78	51.3%	11.5%	35.9%	5.1%	42.3%	24.4%	0.0%	26.9%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46.4%	19.6%	13.1%	16.3%	57.5%	38.6%	0.0%	5.9%	0.0%
	교육서비스업	85	56.5%	29.4%	14.1%	8.2%	51.8%	12.9%	3.5%	21.2%	1.2%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36.9%	14.6%	12.6%	28.2%	47.6%	24.3%	1.0%	17.5%	8.7%
기타	148	34.5%	23.0%	16.9%	29.7%	58.1%	23.0%	2.7%	6.8%	0.7%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42.2%	17.8%	4.4%	15.6%	64.4%	24.4%	2.2%	11.1%	4.4%
	사무직	198	49.5%	28.3%	18.7%	9.6%	49.0%	18.2%	3.0%	15.7%	2.5%
	서비스직	291	56.0%	21.3%	21.0%	18.9%	41.2%	18.9%	0.3%	15.5%	3.4%
	판매직	155	55.5%	18.1%	14.8%	5.2%	43.9%	37.4%	1.3%	21.9%	0.0%
	기능직	78	50.0%	25.6%	32.1%	14.1%	41.0%	21.8%	2.6%	11.5%	0.0%
	단순노무직	236	51.7%	25.4%	24.2%	15.3%	44.5%	26.7%	0.0%	11.0%	0.0%
성	남	466	46.1%	23.0%	20.8%	16.7%	45.1%	26.2%	0.6%	13.7%	2.8%
	여	537	58.1%	23.6%	20.1%	10.8%	44.9%	22.0%	1.7%	16.0%	0.7%
연령	20대 이하	199	56.8%	30.2%	17.1%	10.6%	37.2%	25.1%	0.5%	15.6%	2.5%
	30대	151	51.0%	21.9%	16.6%	14.6%	49.7%	23.8%	3.3%	12.6%	2.0%
	40대	181	49.2%	21.5%	17.7%	16.0%	44.2%	21.5%	2.8%	21.5%	1.7%
	50대	220	53.2%	22.7%	25.5%	13.2%	41.8%	22.3%	0.0%	15.5%	2.7%
	60대 이상	252	52.0%	20.6%	23.0%	13.9%	51.6%	26.2%	0.4%	10.7%	0.0%
전체		1003	52.5%	23.3%	20.4%	13.6%	45.0%	23.9%	1.2%	15.0%	1.7%

8)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

코로나19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1순위로 경기침체 장기화 31.3%, 일자리 유지 29.6%, 소득저하 13.2%, 감염위험 10.0% 등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경기침체에 장기화(39.6%), 감염위험(19.8%), 일자리 유지(15.8%), 생계(10.9%), 소득저하(9.9%)

순이었다면, 비정규직은 일자리 유지(31.2%), 경기침체 장기화(30.4%), 소득저하(13.5%), 생계(8.8%)순으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은 코로나19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 일자리 유지가 3순위였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1순위였으며, 소득저하에 대한 우려도 정규직이 9.9%였지만, 비정규직은 13.5%로, 비정규직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와 일용직이 일자리 유지와 소득저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이다. 코로나19 전후로 임금과 노동시간의 감소가 가장 컸던 집단이기에 고용과 소득이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한 1, 2순위 합계 결과를 보면, 경기침체 장기화 55.7%, 일자리 유지 46.9%, 감염위험 28.5%, 소득저하 25.9%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은 경기침체 장기화를 가장 크게 우려하여 정규직 응답자 10명 중 약 7명(69.3%)이 선택하였으며, 감염우려도 48.5%로 응답자 10명 중 약 5명이 선택하여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일자리 유지 26.7%, 소득저하 21.8%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경기침체 장기화(54.2%)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유지 49.1%였다. 소득저하(26.4%), 감염위험(26.3%)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한 1, 2순위 합계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경기침체 장기화, 일자리 유지, 소득저하, 감염위험을 우려사항으로 선택했지만, 우선순위와 선택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경기침체 장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규직은 감염우려를, 비정규직은 일자리 유지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따라 우려사항에 차이가 있었다. 고용불안과 임금감소를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는 비정규직은 일자리와 소득 유지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기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표 4-22>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유지	구직	소득 저하	생계	경기침체에 장기화	감염 위험	없음	
고용 형태	정규직	101	15.8%	3.0%	9.9%	10.9%	39.6%	19.8%	1.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31.2%	7.2%	13.5%	8.8%	30.4%	8.9%	0.1%
		계약직	220	28.2%	10.9%	10.5%	7.7%	34.1%	8.6%	0.0%
		시간제	220	39.1%	7.7%	15.5%	10.5%	23.6%	3.6%	0.0%
		일용직	131	39.7%	9.9%	16.0%	8.4%	23.7%	2.3%	0.0%
		파견·하청·용역	130	29.2%	3.8%	6.9%	6.2%	36.2%	17.7%	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21.4%	3.0%	17.4%	10.0%	34.3%	13.4%	0.5%

구분		사례수	일자리 유지	구직	소득 저하	생계	경기침체에 장기화	감염 위험	없음
규모	1-4명	306	36.3%	5.6%	16.3%	10.5%	26.8%	4.6%	0.0%
	5-9명	235	29.4%	7.7%	14.5%	6.4%	31.5%	10.6%	0.0%
	10-29명	214	31.3%	4.2%	8.4%	8.9%	33.6%	13.1%	0.5%
	30-99명	141	22.7%	6.4%	13.5%	9.9%	34.8%	12.8%	0.0%
	100인 이상	101	16.8%	11.9%	10.9%	9.9%	35.6%	13.9%	1.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30.7%	8.6%	20.9%	12.3%	25.2%	1.8%	0.6%
	도소매업	140	31.4%	7.1%	7.1%	10.7%	35.7%	7.9%	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48.1%	5.3%	15.0%	8.3%	19.5%	3.8%	0.0%
	금융보험업	78	24.4%	9.0%	10.3%	17.9%	32.1%	6.4%	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30.1%	2.6%	6.5%	4.6%	37.3%	19.0%	0.0%
	교육서비스업	85	25.9%	15.3%	18.8%	4.7%	28.2%	7.1%	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16.5%	5.8%	14.6%	8.7%	36.9%	17.5%	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22.2%	4.4%	8.9%	4.4%	37.8%	22.2%	0.0%
	사무직	198	23.2%	13.1%	10.1%	11.1%	30.8%	11.1%	0.5%
	서비스직	291	30.6%	4.8%	16.2%	9.6%	27.1%	11.3%	0.3%
	판매직	155	31.0%	4.5%	9.7%	9.7%	38.7%	6.5%	0.0%
	기능직	78	38.5%	2.6%	24.4%	7.7%	25.6%	1.3%	0.0%
	단순노무직	236	31.4%	7.2%	11.4%	7.2%	32.6%	10.2%	0.0%
성	남	466	29.0%	6.2%	10.7%	7.1%	33.7%	12.9%	0.4%
	여	537	30.2%	7.3%	15.3%	10.6%	29.2%	7.4%	0.0%
연령	20대 이하	199	31.2%	9.0%	8.0%	11.1%	26.6%	14.1%	0.0%
	30대	151	29.1%	9.9%	8.6%	9.9%	35.1%	6.6%	0.7%
	40대	181	26.5%	5.0%	14.4%	9.4%	35.4%	9.4%	0.0%
	50대	220	31.8%	6.4%	18.6%	5.9%	26.8%	10.0%	0.5%
	60대 이상	252	29.0%	4.8%	14.3%	9.1%	33.7%	9.1%	0.0%
전체		1003	29.6%	6.8%	13.2%	9.0%	31.3%	10.0%	0.2%

<표 4-23>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1+2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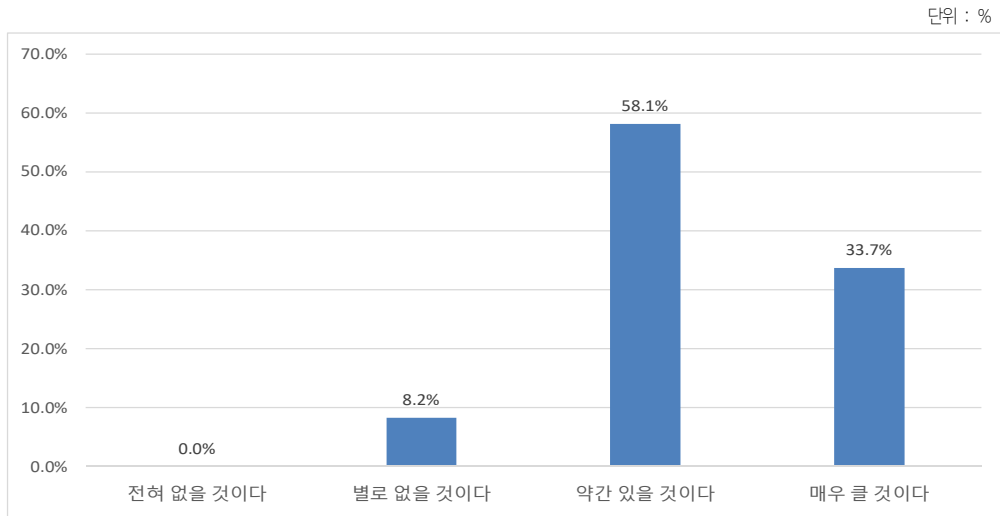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일자리 유지	구직	소득 저하	생계	경기침체에 장기화	감염 위험	없음
고용 형태	정규직	101	26.7%	12.9%	21.8%	17.8%	69.3%	48.5%	1.0%
	비정규직 전체	902	49.1%	22.9%	26.4%	20.0%	54.2%	26.3%	0.1%

구분		사려수	일자리 유지	구직	소득 저하	생계	경기침에 장기화	감염 위험	없음
규직	계약직	220	45.5%	23.6%	18.2%	22.7%	60.5%	29.1%	0.0%
	시간제	220	53.6%	30.5%	31.4%	18.2%	45.5%	20.5%	0.0%
	일용직	131	61.1%	29.0%	33.6%	23.7%	42.0%	9.9%	0.0%
	파견·하청·용역	130	49.2%	21.5%	15.4%	16.2%	56.9%	40.0%	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40.3%	10.9%	32.3%	18.9%	63.2%	31.3%	0.5%
규모	1-4명	306	53.3%	24.2%	34.0%	18.0%	49.0%	21.6%	0.0%
	5-9명	235	48.5%	21.7%	25.1%	17.4%	56.6%	30.2%	0.0%
	10-29명	214	47.7%	22.0%	20.6%	20.1%	55.1%	30.8%	0.5%
	30-99명	141	42.6%	18.4%	24.1%	21.3%	62.4%	30.5%	0.0%
	100인 이상	101	28.7%	18.8%	18.8%	25.7%	66.3%	38.6%	1.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49.7%	28.8%	39.3%	23.3%	41.7%	15.3%	0.6%
	도소매업	140	45.0%	22.9%	24.3%	22.9%	58.6%	25.7%	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60.9%	28.6%	28.6%	15.8%	44.4%	21.8%	0.0%
	금융보험업	78	41.0%	20.5%	33.3%	21.8%	59.0%	24.4%	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45.1%	17.0%	11.1%	17.0%	64.1%	45.1%	0.0%
	교육서비스업	85	45.9%	24.7%	31.8%	21.2%	48.2%	28.2%	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35.9%	12.6%	20.4%	21.4%	68.0%	37.9%	0.0%
기타	148	45.9%	18.2%	22.3%	16.2%	64.2%	30.4%	0.7%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42.2%	13.3%	13.3%	11.1%	75.6%	42.2%	0.0%
	사무직	198	42.4%	24.2%	20.7%	23.7%	58.1%	28.8%	0.5%
	서비스직	291	48.5%	19.6%	26.8%	18.9%	55.3%	28.5%	0.3%
	판매직	155	44.5%	20.0%	29.7%	20.6%	60.0%	25.2%	0.0%
	기능직	78	50.0%	26.9%	39.7%	17.9%	43.6%	21.8%	0.0%
	단순노무직	236	50.0%	24.2%	24.6%	19.1%	51.7%	30.1%	0.0%
성	남	466	45.1%	22.7%	22.3%	15.7%	59.7%	32.6%	0.4%
	여	537	48.4%	21.2%	29.1%	23.3%	52.3%	25.0%	0.0%
연령	20대 이하	199	49.2%	24.1%	20.1%	20.1%	54.8%	29.1%	0.0%
	30대	151	47.0%	23.8%	23.2%	18.5%	55.0%	31.1%	0.7%
	40대	181	40.3%	17.1%	32.0%	23.8%	61.9%	24.3%	0.0%
	50대	220	48.2%	23.6%	31.8%	15.0%	54.1%	25.9%	0.5%
	60대 이상	252	48.4%	21.0%	22.6%	21.4%	54.0%	31.7%	0.0%
전체		1003	46.9%	21.9%	25.9%	19.7%	55.7%	28.5%	0.2%

9) 코로나19 사회변화 영향 인식

코로나19가 우리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별로 없을 것이다 8.2%, 약간 있을 것이다 58.1%, 매우 클 것이다 33.7%로, 코로나19가 우리사회 변화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8] 코로나19 사회변화 영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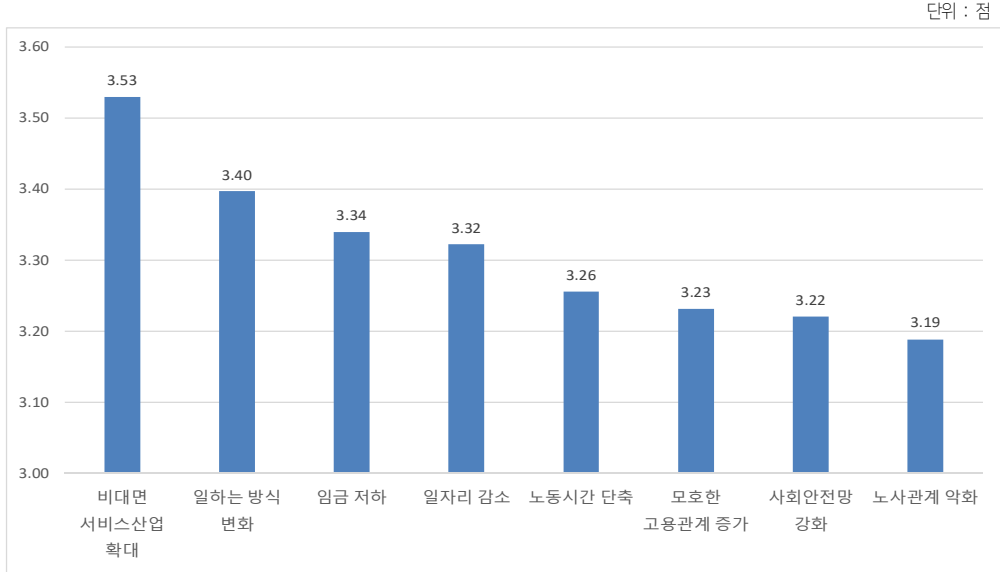


10)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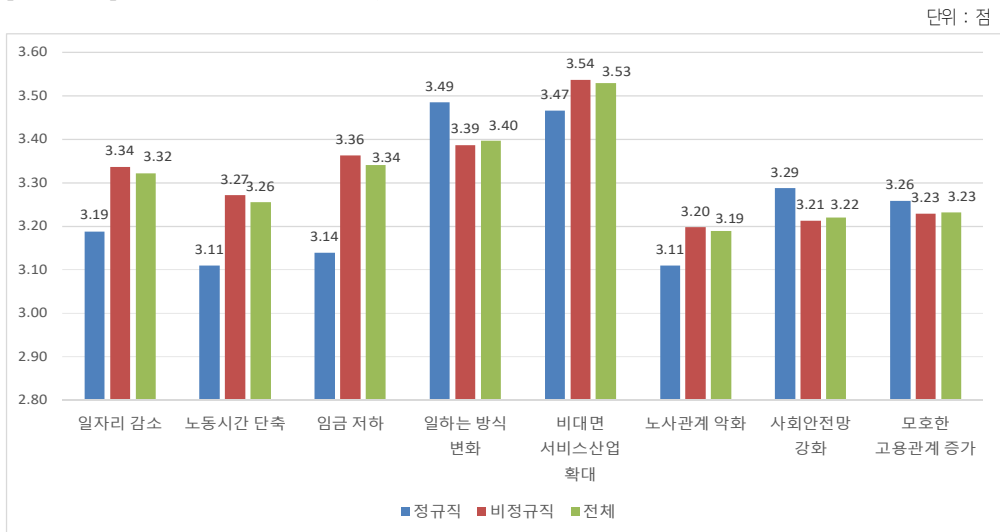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사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확대 3.53, 일하는 방식 변화 3.40, 임금 저하 3.34, 일자리 감소 3.32, 노동시간 단축 3.25, 모호한 고용관계 증가 3.25, 사회안전망 강화 3.22, 노사관계 악화 3.19였다.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단축, 임금저하 등 3개 항목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사회변화 전망에 대해 더 크게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정규직은 3.19, 비정규직은 3.34, 노동시간 단축은 정규직 3.11, 비정규직 3.22, 임금 저하는 정규직 3.14, 비정규직 3.36으로, 다른 항목보다 인식 차이가 있으며,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더 변화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비정규직은 코로나19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임금이 줄면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기에, 이들 3개 항

목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9]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1



[그림 4-20]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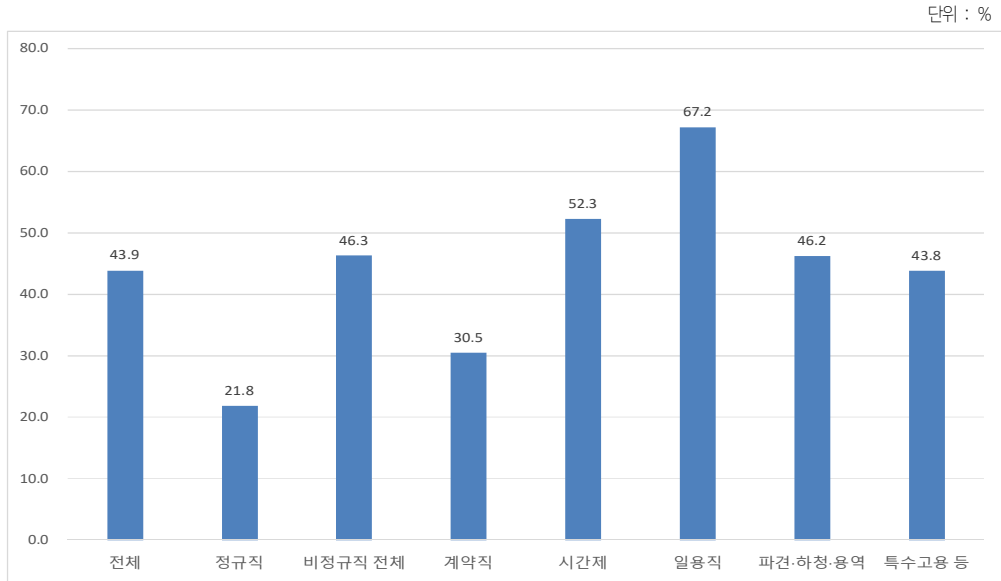


5. 생활실태 및 만족도

1)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변화와 함께, 생활실태와 만족도도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한달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 4.5%, 약간 부족하다 39.4%, 적정하다 50.4%, 약간 여유있다 5.6%, 매우 여유있다 0.1%였다. 가구소득 대비 부족한 편이 43.9%, 적정한 편 50.4%, 여유있는 편 5.7%로, 응답자의 상당수는 생활비를 감안할 때 가구소득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부족한 편 21.8%, 적정한 편 64.4%, 여유있는 편 13.9%였으며, 비정규직은 부족한 편 46.3%, 적정한 편 48.9%, 여유있는 편 4.8%였다. 시간제와 일용직은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각각 52.3%, 67.2%로, 생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가구소득이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서비스직(49.1%), 기능직(51.3%), 단순노무직(55.1%)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보다는 40대 이상 연령에서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이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비혼 가구보다 기혼 가구의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림 4-21] 가구소득 대비 생활비 부족 응답 비율



<표 4-24>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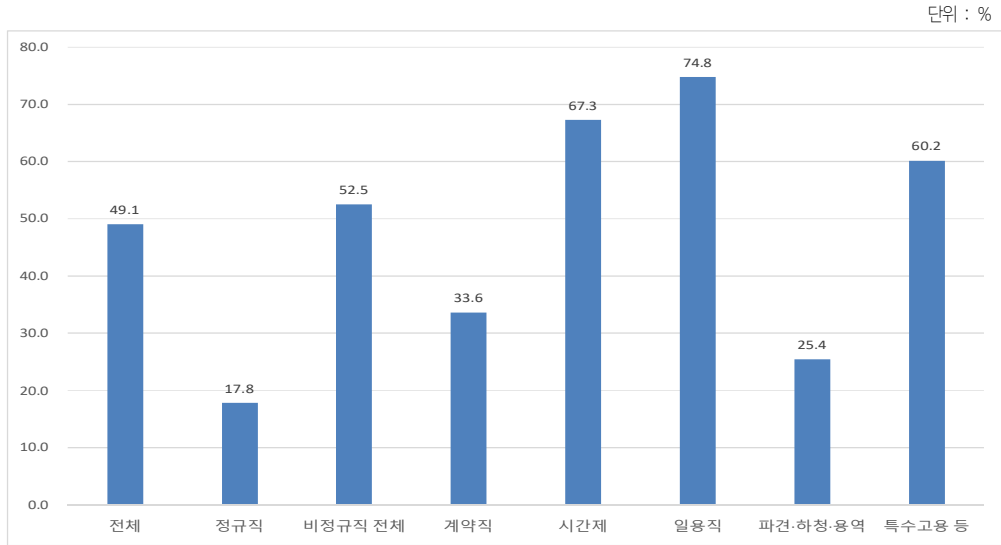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하다	② 약간 부족하다	③ 적정하다	④ 약간 여유 있다	⑤ 매우 여유 있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0.0%	21.8%	64.4%	12.9%	1.0%	21.8%	64.4%	13.9%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5.0%	41.4%	48.9%	4.8%	0.0%	46.3%	48.9%	4.8%	100.0%
		계약직	220	0.9%	29.5%	63.6%	5.9%	0.0%	30.5%	63.6%	5.9%	100.0%
		시간제	220	9.5%	42.7%	42.7%	5.0%	0.0%	52.3%	42.7%	5.0%	100.0%
		일용직	131	6.9%	60.3%	32.1%	0.8%	0.0%	67.2%	32.1%	0.8%	100.0%
		파견·하청·용역	130	2.3%	43.8%	50.8%	3.1%	0.0%	46.2%	50.8%	3.1%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5.0%	38.8%	49.3%	7.0%	0.0%	43.8%	49.3%	7.0%	100.0%
규모	1-4명	306	9.2%	44.1%	41.8%	4.9%	0.0%	53.3%	41.8%	4.9%	100.0%	
	5-9명	235	2.6%	41.3%	52.8%	3.4%	0.0%	43.8%	52.8%	3.4%	100.0%	
	10-29명	214	3.7%	35.0%	56.1%	5.1%	0.0%	38.8%	56.1%	5.1%	100.0%	
	30-99명	141	1.4%	39.0%	53.2%	6.4%	0.0%	40.4%	53.2%	6.4%	100.0%	
	100인 이상	101	1.0%	28.7%	58.4%	10.9%	1.0%	29.7%	58.4%	11.9%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7.4%	53.4%	34.4%	4.9%	0.0%	60.7%	34.4%	4.9%	100.0%	
	도소매업	140	2.9%	32.9%	57.1%	7.1%	0.0%	35.7%	57.1%	7.1%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7.5%	51.1%	39.8%	1.5%	0.0%	58.6%	39.8%	1.5%	100.0%	
	금융보험업	78	3.8%	30.8%	53.8%	11.5%	0.0%	34.6%	53.8%	11.5%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2.6%	40.5%	51.6%	5.2%	0.0%	43.1%	51.6%	5.2%	100.0%	
	교육서비스업	85	4.7%	42.4%	49.4%	3.5%	0.0%	47.1%	49.4%	3.5%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4.9%	37.9%	53.4%	3.9%	0.0%	42.7%	53.4%	3.9%	100.0%	
기타	148	2.0%	22.3%	66.9%	8.1%	0.7%	24.3%	66.9%	8.8%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15.6%	75.6%	8.9%	0.0%	15.6%	75.6%	8.9%	100.0%	
	사무직	198	2.5%	28.3%	59.1%	9.6%	0.5%	30.8%	59.1%	10.1%	100.0%	
	서비스직	291	6.5%	42.6%	46.0%	4.8%	0.0%	49.1%	46.0%	4.8%	100.0%	
	판매직	155	3.2%	34.8%	55.5%	6.5%	0.0%	38.1%	55.5%	6.5%	100.0%	
	기능직	78	3.8%	47.4%	43.6%	5.1%	0.0%	51.3%	43.6%	5.1%	100.0%	
	단순노무직	236	5.5%	49.6%	42.8%	2.1%	0.0%	55.1%	42.8%	2.1%	100.0%	
성	남	466	4.3%	39.5%	49.8%	6.4%	0.0%	43.8%	49.8%	6.4%	100.0%	
	여	537	4.7%	39.3%	51.0%	4.8%	0.2%	43.9%	51.0%	5.0%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3.0%	30.7%	59.3%	7.0%	0.0%	33.7%	59.3%	7.0%	100.0%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하다	② 약간 부족하다	③ 적정하다	④ 약간 여유 있다	⑤ 매우 여유 있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30대	151	3.3%	35.1%	57.0%	4.0%	0.7%	38.4%	57.0%	4.6%	100.0%
	40대	181	5.5%	37.6%	45.9%	11.0%	0.0%	43.1%	45.9%	11.0%	100.0%
	50대	220	5.5%	41.4%	49.5%	3.6%	0.0%	46.8%	49.5%	3.6%	100.0%
	60대 이상	252	4.8%	48.4%	43.7%	3.2%	0.0%	53.2%	43.7%	3.2%	100.0%
혼인	비혼	294	3.4%	35.0%	54.4%	7.1%	0.0%	38.4%	54.4%	7.1%	100.0%
	기혼	709	4.9%	41.2%	48.8%	4.9%	0.1%	46.1%	48.8%	5.1%	100.0%
전체	1003	4.5%	39.4%	50.4%	5.6%	0.1%	43.9%	50.4%	5.7%	100.0%	

2) 가구 소득 및 부채 변화

코로나19 전후로 가구소득과 부채 변화를 조사한 결과, 먼저 가구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비율이 4.7%, 약간 감소했다 44.4%, 동일하다 44.7%, 약간 증가했다 6.1%, 크게 증가했다 0.2%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감소한 비율이 49.1%, 동일한 편이 44.7%, 증가한 편이 6.3%였다. 정규직은 가구소득이 감소한 응답 비율이 17.8%였으며, 동일하다 79.2%, 증가했다 3.0%로, 정규직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가구소득이 코로나19 전후로 변화가 없었다. 비정규직은 가구소득이 줄었다 52.5%, 동일하다 40.8%, 증가했다 6.7%로, 비정규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가구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24.8%였는데 비해, 1~4인 사업장의 가구소득 감소비율은 63.1%, 5~9인은 46.4% 등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가구소득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의 가구소득이 줄었다는 비율은 13.3%였지만, 서비스직(52.9%), 판매직(61.9%), 기능직(61.5%), 단순노무직(47.5%) 등은 관리자 및 전문직보다 높은 가구소득 감소율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30대보다 40대 이상 연령대가, 혼인 여부에서는 비혼 가구보다 기혼 가구가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4-22] 코로나19 전후 가수소득 감소 비율



<표 4-25> 가구 소득 변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① 크게 감소했다	② 약간 감소했다	③ 동일하다	④ 약간 증가했다	⑤ 크게 증가했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0.0%	17.8%	79.2%	3.0%	0.0%	17.8%	79.2%	3.0%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5.2%	47.3%	40.8%	6.4%	0.2%	52.5%	40.8%	6.7%	100.0%
		계약직	220	1.4%	32.3%	65.0%	1.4%	0.0%	33.6%	65.0%	1.4%	100.0%
		시간제	220	4.5%	62.7%	32.3%	0.5%	0.0%	67.3%	32.3%	0.5%	100.0%
		일용직	131	15.3%	59.5%	24.4%	0.8%	0.0%	74.8%	24.4%	0.8%	100.0%
		파견·하청·용역	130	0.8%	24.6%	72.3%	2.3%	0.0%	25.4%	72.3%	2.3%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6.5%	53.7%	13.9%	24.9%	1.0%	60.2%	13.9%	25.9%	100.0%
규모	1-4명	306	4.2%	58.8%	33.3%	3.6%	0.0%	63.1%	33.3%	3.6%	100.0%	
	5-9명	235	5.1%	41.3%	46.8%	6.4%	0.4%	46.4%	46.8%	6.8%	100.0%	
	10-29명	214	5.6%	35.0%	47.7%	11.2%	0.5%	40.7%	47.7%	11.7%	100.0%	
	30-99명	141	2.8%	48.9%	43.3%	5.0%	0.0%	51.8%	43.3%	5.0%	100.0%	
	100인 이상	101	2.0%	22.8%	72.3%	3.0%	0.0%	24.8%	72.3%	3.0%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11.0%	57.1%	30.1%	1.8%	0.0%	68.1%	30.1%	1.8%	100.0%	
	도소매업	140	3.6%	47.1%	48.6%	0.7%	0.0%	50.7%	48.6%	0.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2.3%	66.2%	30.8%	0.8%	0.0%	68.4%	30.8%	0.8%	100.0%	

구분	사례수	① 크게 감소했다	② 약간 감소했다	③ 동일하다	④ 약간 증가했다	⑤ 크게 증가했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금융보험업	78	6.4%	60.3%	33.3%	0.0%	0.0%	66.7%	33.3%	0.0%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2.0%	22.9%	72.5%	2.6%	0.0%	24.8%	72.5%	2.6%	100.0%	
교육서비스업	85	4.7%	62.4%	31.8%	1.2%	0.0%	67.1%	31.8%	1.2%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7.8%	28.2%	29.1%	35.0%	0.0%	35.9%	29.1%	35.0%	100.0%	
기타	148	0.7%	23.0%	64.9%	10.1%	1.4%	23.6%	64.9%	11.5%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13.3%	86.7%	0.0%	0.0%	13.3%	86.7%	0.0%	100.0%
	사무직	198	2.0%	36.4%	60.1%	1.5%	0.0%	38.4%	60.1%	1.5%	100.0%
	서비스직	291	4.5%	48.5%	30.2%	16.2%	0.7%	52.9%	30.2%	16.8%	100.0%
	판매직	155	5.2%	56.8%	37.4%	0.6%	0.0%	61.9%	37.4%	0.6%	100.0%
	기능직	78	9.0%	52.6%	37.2%	1.3%	0.0%	61.5%	37.2%	1.3%	100.0%
	단순노무직	236	6.4%	41.1%	48.7%	3.8%	0.0%	47.5%	48.7%	3.8%	100.0%
성	남	466	5.8%	35.4%	46.4%	12.0%	0.4%	41.2%	46.4%	12.4%	100.0%
	여	537	3.7%	52.1%	43.2%	0.9%	0.0%	55.9%	43.2%	0.9%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2.0%	36.7%	50.8%	10.6%	0.0%	38.7%	50.8%	10.6%	100.0%
	30대	151	2.6%	39.7%	50.3%	7.3%	0.0%	42.4%	50.3%	7.3%	100.0%
	40대	181	4.4%	47.0%	40.9%	7.2%	0.6%	51.4%	40.9%	7.7%	100.0%
	50대	220	5.5%	53.2%	36.4%	4.5%	0.5%	58.6%	36.4%	5.0%	100.0%
	60대 이상	252	7.5%	43.7%	46.4%	2.4%	0.0%	51.2%	46.4%	2.4%	100.0%
혼인	비혼	294	3.4%	38.8%	48.3%	9.5%	0.0%	42.2%	48.3%	9.5%	100.0%
	기혼	709	5.2%	46.7%	43.2%	4.7%	0.3%	51.9%	43.2%	4.9%	100.0%
전체	1003	4.7%	44.4%	44.7%	6.1%	0.2%	49.1%	44.7%	6.3%	100.0%	

가구 부채에 대해서는 약간 증가했다 13.5%, 동일하다 83.3%, 약간 감소했다 3.2%였다. 가구 부채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정규직은 가구 부채가 약간 증가했다 3.0%, 동일하다 93.1%, 약간 감소했다 4.0%였으며, 비정규직은 약간 감소했다 14.6%, 동일하다 82.3%, 약간 감소했다 3.1%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는 비율이 정규직 3.0%, 비정규직 14.6%로 차이가 컸다. 시간제(14.1%), 일용직(23.7%),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16.9%) 응답자의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4-26> 가구 부채 변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② 약간 증가했다	③ 동일하다	④ 약간 감소했다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3.0%	93.1%	4.0%	100.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14.6%	82.3%	3.1%	100.0%
		계약직	220	12.3%	82.7%	5.0%	100.0%
		시간제	220	14.1%	84.1%	1.8%	100.0%
		일용직	131	23.7%	74.8%	1.5%	100.0%
		파견·하청·용역	130	6.9%	93.1%	0.0%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16.9%	77.6%	5.5%	100.0%
규모	1-4명	306	16.0%	81.4%	2.6%	100.0%	
	5-9명	235	12.8%	83.4%	3.8%	100.0%	
	10-29명	214	11.2%	85.0%	3.7%	100.0%	
	30-99명	141	14.2%	83.7%	2.1%	100.0%	
	100인 이상	101	10.9%	86.1%	3.0%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25.2%	71.8%	3.1%	100.0%	
	도소매업	140	7.9%	85.7%	6.4%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15.8%	84.2%	0.0%	100.0%	
	금융보험업	78	26.9%	70.5%	2.6%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5.2%	94.1%	0.7%	100.0%	
	교육서비스업	85	15.3%	83.5%	1.2%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7.8%	84.5%	7.8%	100.0%	
	기타	148	8.1%	87.8%	4.1%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2.2%	93.3%	4.4%	100.0%	
	사무직	198	11.6%	85.4%	3.0%	100.0%	
	서비스직	291	14.1%	82.1%	3.8%	100.0%	
	판매직	155	10.3%	84.5%	5.2%	100.0%	
	기능직	78	23.1%	73.1%	3.8%	100.0%	
	단순노무직	236	15.3%	83.9%	0.8%	100.0%	
성	남	466	14.2%	81.8%	4.1%	100.0%	
	여	537	12.8%	84.7%	2.4%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6.0%	91.5%	2.5%	100.0%	
	30대	151	13.2%	85.4%	1.3%	100.0%	
	40대	181	18.2%	76.8%	5.0%	100.0%	
	50대	220	17.7%	78.2%	4.1%	100.0%	
	60대 이상	252	12.3%	84.9%	2.8%	100.0%	
혼인	비혼	294	8.2%	88.8%	3.1%	100.0%	
	기혼	709	15.7%	81.1%	3.2%	100.0%	
전체		1003	13.5%	83.3%	3.2%	100.0%	

가구 소득이 감소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의 감소액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9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6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94.2만원이었다. 비정규직 중에서 계약직(102.8만원), 일용직(102.9만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108.4만원) 노동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감소 규모가 컸다.

<표 4-27> 월 평균 가구소득 감소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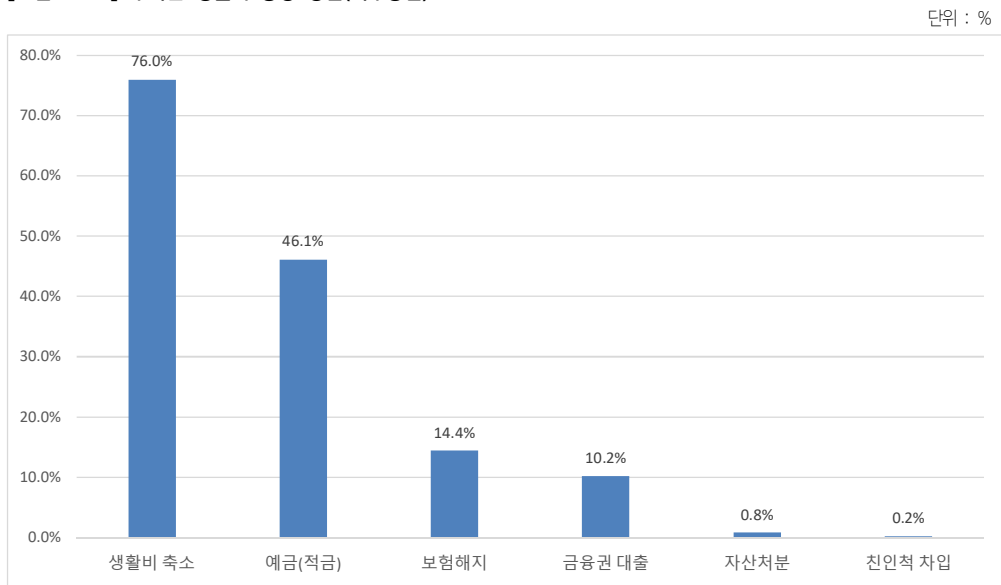
단위 : 명,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고용 형태	정규직	18	65.6	30.3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474	94.2	55.4
		계약직	74	102.8	79.9
		시간제	148	78.2	41.6
		일용직	98	102.9	54.4
		파견·하청·용역	33	68.3	39.4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121	108.4	49.7
규모	1-4명	193	84.6	43.1	
	5-9명	109	97.2	64.0	
	10-29명	87	105.3	70.2	
	30-99명	73	87.4	42.9	
	100인 이상	25	111.6	53.4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11	103.1	54.1	
	도소매업	71	66.3	37.4	
	숙박 및 음식점업	91	78.5	35.6	
	금융보험업	52	119.2	49.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8	69.9	37.6	
	교육서비스업	57	105.0	84.2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37	96.8	45.7	
	기타	35	116.9	61.9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6	171.7	141.5	
	사무직	76	99.4	66.3	
	서비스직	154	86.7	43.0	
	판매직	96	90.9	53.3	
	기능직	48	98.3	56.8	
	단순노무직	112	93.0	51.9	
성	남	192	100.1	56.4	
	여	300	88.6	53.6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20대 이하	77	77.8	40.7
	30대	64	95.5	66.8
	40대	93	101.1	67.8
	50대	129	94.3	50.6
	60대 이상	129	94.1	48.3
혼인	비혼	124	87.9	59.7
	기혼	368	94.9	53.2
전체		492	93.1	54.9

가구 소득이 줄어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사하였다(복수응답). 응답자의 76.0%는 생활비를 줄였으며,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여 생활비를 충당한 경우는 46.1%였다. 보험을 해지한 경우가 14.4%였으며, 금융권 대출 10.2%,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 0.8%,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0.2%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 다수는 생활비를 줄여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보유한 현금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4-23]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복수응답)



3) 현재 가구 재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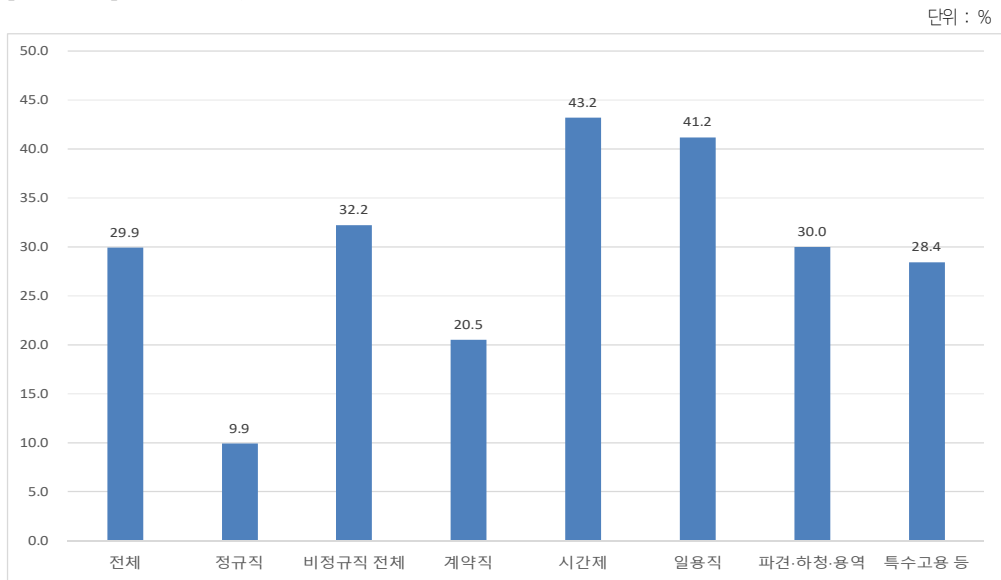
현재 가구의 재정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나쁘다 2.3%, 조금 나쁘다 27.6%, 보통이다 63.0%, 조금 좋다 7.1%였으며, 매우 좋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가구 재정상태가 나쁜 편이 29.9%, 보통 63.0%, 좋은 편 7.1%로, 가구재정이 좋지 않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3명이었다. 하지만, 정규직은 나쁜 편인 응답자가 9.9%였으며, 비정규직은 32.2%로 비정규직 가구의 현재 재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간제(43.2%), 일용직(41.2%)은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현재 가구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해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표 4-28> 현재 가구 재정상태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좋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0.0%	9.9%	69.3%	20.8%	9.9%	69.3%	20.8%	100.0%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2.5%	29.6%	62.3%	5.5%	32.2%	62.3%	5.5%	100.0%
		계약직	220	2.7%	17.7%	72.7%	6.8%	20.5%	72.7%	6.8%	100.0%
		시간제	220	3.2%	40.0%	53.2%	3.6%	43.2%	53.2%	3.6%	100.0%
		일용직	131	4.6%	36.6%	57.3%	1.5%	41.2%	57.3%	1.5%	100.0%
		파견·하청·용역	130	.8%	29.2%	66.9%	3.1%	30.0%	66.9%	3.1%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 ·플랫폼	201	1.5%	26.9%	61.2%	10.4%	28.4%	61.2%	10.4%	100.0%		
규모	1-4명	306	3.9%	36.3%	54.6%	5.2%	40.2%	54.6%	5.2%	100.0%	
	5-9명	235	.9%	28.9%	65.1%	5.1%	29.8%	65.1%	5.1%	100.0%	
	10-29명	214	2.8%	25.2%	65.9%	6.1%	28.0%	65.9%	6.1%	100.0%	
	30-99명	141	0.0%	22.7%	66.7%	10.6%	22.7%	66.7%	10.6%	100.0%	
	100인 이상	101	3.0%	10.9%	72.3%	13.9%	13.9%	72.3%	13.9%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3.1%	41.7%	48.5%	6.7%	44.8%	48.5%	6.7%	100.0%	
	도소매업	140	2.1%	22.9%	69.3%	5.7%	25.0%	69.3%	5.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3	3.0%	39.1%	56.4%	1.5%	42.1%	56.4%	1.5%	100.0%	
	금융보험업	78	0.0%	20.5%	73.1%	6.4%	20.5%	73.1%	6.4%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1.3%	21.6%	71.9%	5.2%	22.9%	71.9%	5.2%	100.0%	
	교육서비스업	85	5.9%	35.3%	49.4%	9.4%	41.2%	49.4%	9.4%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2.9%	21.4%	63.1%	12.6%	24.3%	63.1%	12.6%	100.0%	
기타	148	.7%	16.2%	72.3%	10.8%	16.9%	72.3%	10.8%	100.0%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 이다	④ 조금 좋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11.1%	68.9%	20.0%	11.1%	68.9%	20.0%	100.0%
	사무직	198	2.5%	18.2%	66.7%	12.6%	20.7%	66.7%	12.6%	100.0%
	서비스직	291	3.1%	30.9%	59.5%	6.5%	34.0%	59.5%	6.5%	100.0%
	판매직	155	1.3%	23.9%	69.7%	5.2%	25.2%	69.7%	5.2%	100.0%
	기능직	78	2.6%	47.4%	43.6%	6.4%	50.0%	43.6%	6.4%	100.0%
	단순노무직	236	2.1%	30.5%	65.3%	2.1%	32.6%	65.3%	2.1%	100.0%
성	남	466	3.0%	23.8%	65.2%	7.9%	26.8%	65.2%	7.9%	100.0%
	여	537	1.7%	30.9%	61.1%	6.3%	32.6%	61.1%	6.3%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1.0%	22.6%	67.3%	9.0%	23.6%	67.3%	9.0%	100.0%
	30대	151	2.6%	19.9%	68.2%	9.3%	22.5%	68.2%	9.3%	100.0%
	40대	181	2.8%	25.4%	65.7%	6.1%	28.2%	65.7%	6.1%	100.0%
	50대	220	2.7%	32.3%	58.2%	6.8%	35.0%	58.2%	6.8%	100.0%
	60대 이상	252	2.4%	33.7%	58.7%	5.2%	36.1%	58.7%	5.2%	100.0%
혼인	비혼	294	1.7%	23.1%	66.3%	8.8%	24.8%	66.3%	8.8%	100.0%
	기혼	709	2.5%	29.5%	61.6%	6.3%	32.0%	61.6%	6.3%	100.0%
전체		1003	2.3%	27.6%	63.0%	7.1%	29.9%	63.0%	7.1%	100.0%

[그림 4-24] 현재 가구재정이 나쁜 편 비율



4) 내년 가구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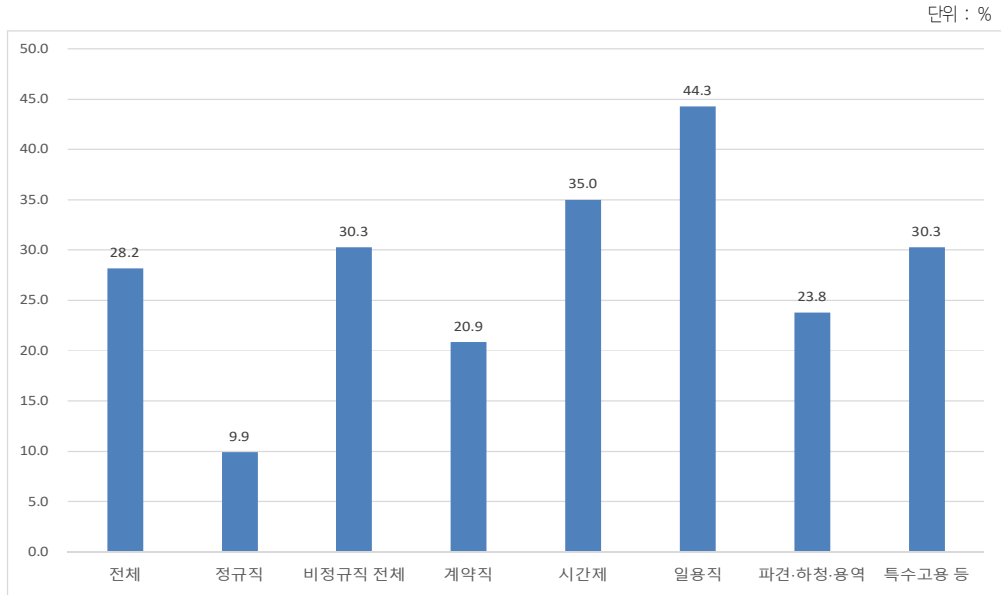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나빠질 것이다 0.7%, 조금 나빠질 것이다 27.9%, 변화 없을 것이다 66.7%, 약간 좋아질 것이다 6.1%였으며,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없었다. 응답자의 28.2%는 내년에 가구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여,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 6.1%와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9.9%였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9%였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84.2%였다. 정규직의 절대 다수는 올해와 같은 재정상태를 예상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0.3%,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6.1%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내년 가구 재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특히 앞서 올해 가구 재정상태에 대해 비정규직의 32.2%는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내년에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0.3%여서,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생활의 어려움이 이후에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4-29> 내년 가구 재정전망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조금 나빠질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고용 형태	정규직	101	0.0%	9.9%	84.2%	5.9%	9.9%	84.2%	5.9%	100.0%	
	비정 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0.8%	29.5%	63.6%	6.1%	30.3%	63.6%	6.1%	100.0%
		계약직	220	0.0%	20.9%	73.2%	5.9%	20.9%	73.2%	5.9%	100.0%
		시간제	220	0.9%	34.1%	59.1%	5.9%	35.0%	59.1%	5.9%	100.0%
		일용직	131	3.1%	41.2%	50.4%	5.3%	44.3%	50.4%	5.3%	100.0%
		파견·하청·용역	130	0.8%	23.1%	73.8%	2.3%	23.8%	73.8%	2.3%	100.0%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0.0%	30.3%	60.2%	9.5%	30.3%	60.2%	9.5%	100.0%	
규모	1-4명	306	2.0%	31.4%	59.8%	6.9%	33.3%	59.8%	6.9%	100.0%	
	5-9명	235	0.4%	30.6%	65.1%	3.8%	31.1%	65.1%	3.8%	100.0%	
	10-29명	214	0.0%	23.4%	67.8%	8.9%	23.4%	67.8%	8.9%	100.0%	
	30-99명	141	0.0%	27.0%	68.1%	5.0%	27.0%	68.1%	5.0%	100.0%	
	100인 이상	101	0.0%	17.8%	78.2%	4.0%	17.8%	78.2%	4.0%	100.0%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2.5%	46.0%	47.9%	3.7%	48.5%	47.9%	3.7%	100.0%	
	도소매업	140	0.7%	16.4%	77.1%	5.7%	17.1%	77.1%	5.7%	100.0%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조금 나빠질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①+② BOT2	③ MID	④+⑤ TOP2	계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133	0.8%	34.6%	57.9%	6.8%	35.3%	57.9%	6.8%	100.0%
	금융보험업	78	0.0%	25.6%	65.4%	9.0%	25.6%	65.4%	9.0%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0.7%	17.0%	77.1%	5.2%	17.6%	77.1%	5.2%	100.0%
	교육서비스업	85	0.0%	29.4%	61.2%	9.4%	29.4%	61.2%	9.4%	100.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0.0%	27.2%	68.0%	4.9%	27.2%	68.0%	4.9%	100.0%
	기타	148	0.0%	22.3%	70.9%	6.8%	22.3%	70.9%	6.8%	100.0%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0%	15.6%	82.2%	2.2%	15.6%	82.2%	2.2%	100.0%
	사무직	198	0.0%	18.7%	72.2%	9.1%	18.7%	72.2%	9.1%	100.0%
	서비스직	291	0.3%	29.9%	62.5%	7.2%	30.2%	62.5%	7.2%	100.0%
	판매직	155	0.6%	25.8%	67.1%	6.5%	26.5%	67.1%	6.5%	100.0%
	기능직	78	0.0%	34.6%	60.3%	5.1%	34.6%	60.3%	5.1%	100.0%
	단순노무직	236	2.1%	33.1%	61.9%	3.0%	35.2%	61.9%	3.0%	100.0%
성	남	466	0.9%	26.0%	65.7%	7.5%	26.8%	65.7%	7.5%	100.0%
	여	537	0.6%	28.9%	65.7%	4.8%	29.4%	65.7%	4.8%	100.0%
연령	20대 이하	199	1.0%	21.1%	70.4%	7.5%	22.1%	70.4%	7.5%	100.0%
	30대	151	0.0%	21.2%	70.9%	7.9%	21.2%	70.9%	7.9%	100.0%
	40대	181	0.6%	23.8%	67.4%	8.3%	24.3%	67.4%	8.3%	100.0%
	50대	220	0.9%	34.1%	60.5%	4.5%	35.0%	60.5%	4.5%	100.0%
	60대 이상	252	0.8%	33.3%	62.3%	3.6%	34.1%	62.3%	3.6%	100.0%
혼인	비혼	294	0.7%	21.1%	69.7%	8.5%	21.8%	69.7%	8.5%	100.0%
	기혼	709	0.7%	30.2%	64.0%	5.1%	30.9%	64.0%	5.1%	100.0%
전체	1003	0.7%	27.5%	65.7%	6.1%	28.2%	65.7%	6.1%	100.0%	

[그림 4-25] 내년 가구재정이 나빠질 것 비율



5) 만족도

코로나19 전후로 10점 척도로 만족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건강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인 작년이 평균 7.67이었으며, 코로나19인 올해 평균은 7.19로 -0.48 감소하였다. 일자리 만족도는 작년 7.18에서 올해 6.30으로 -0.88 하락하였으며, 가계재정 만족도는 작년 6.90에서 올해 6.27로 -0.62 감소, 가족관계 만족도는 작년 7.27에서 올해 7.10으로 -0.17 감소, 친구관계 만족도는 작년 7.12에서 올해 6.75로 -0.37 감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작년 7.01에서 올해 6.39로 -0.62로 감소하였다. 6개 항목의 만족도 모두 코로나1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로 -0.88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계재정의 만족도 하락폭이 -0.63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건강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이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염병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의 단절보다 고용충격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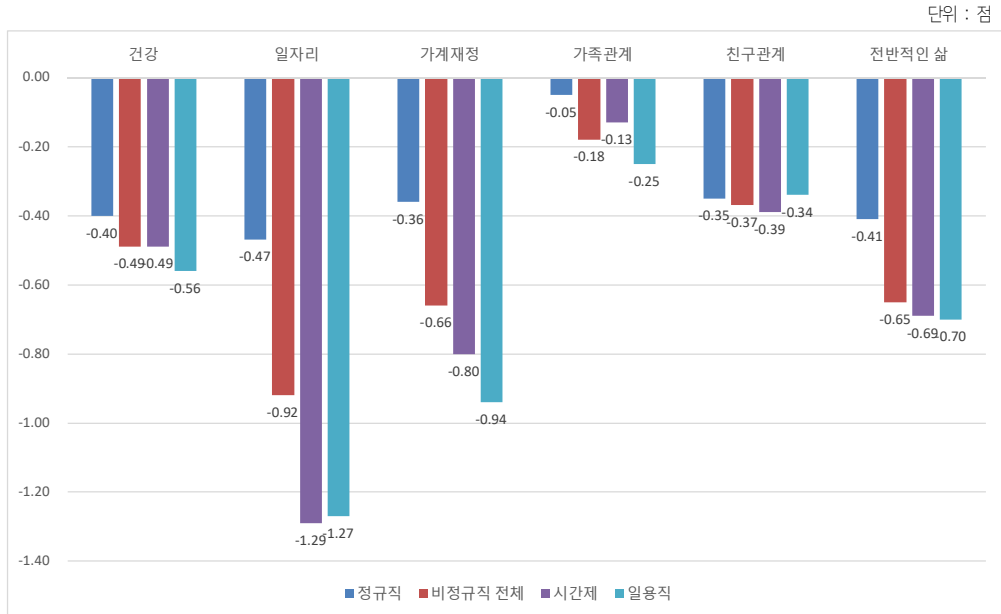
<표 4-30> 만족도 변화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작년	올해	증감
건강	1003	7.67	7.19	-0.48
일자리	1003	7.18	6.30	-0.88
가계재정	1003	6.90	6.27	-0.63
가족관계	1003	7.27	7.10	-0.17
친구관계	1003	7.12	6.75	-0.37
전반적인 삶	1003	7.01	6.39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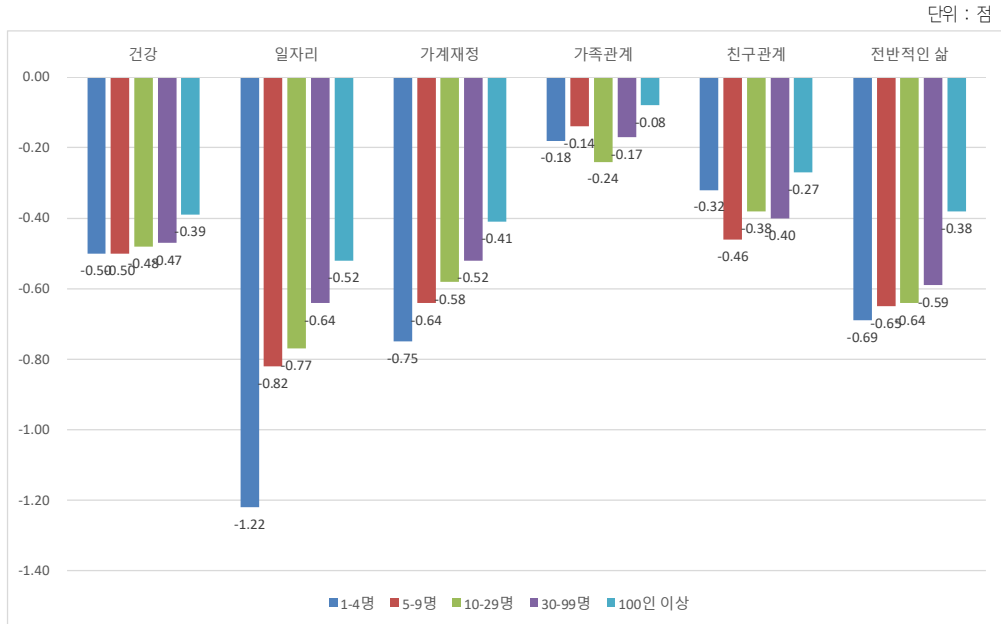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시간제와 일용직의 만족도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 만족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감소폭이 -0.40~ -0.56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친구관계 만족도 변화(-0.34~-0.39)와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0.05~-0.25)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감소폭의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림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와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 변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의 일자리 만족도 하락폭은 -0.47이었지만, 비정규직은 -0.92,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는 -1.29, 일용직은 -1.27로 비정규직이 일자리에서의 만족도가 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는 정규직이 -0.36 감소하였지만, 비정규직은 -0.66 감소하였으며, 시간제는 -0.80, 일용직은 -0.90 감소하여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 하락폭도 컸다. 비정규직은 코로나19로 일하는 시간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재정도 악화되고 있어 만족도의 하락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6] 고용형태별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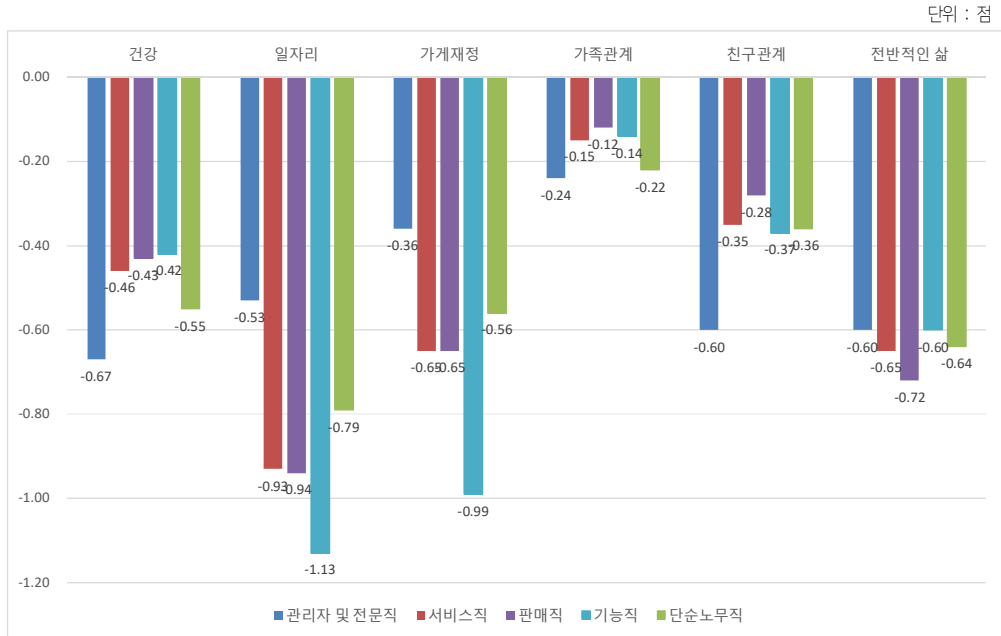
규모에 따른 만족도 변화는 [그림 4-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일수록 만족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 및 가족관계, 친구관계에서의 만족도 변화는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일자리와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1~4인 사업장 노동자 하락폭이 -1.22였으며, 5~9인 사업장 -0.82, 10~29인 사업장 -0.77, 30~99인 사업장 -0.64, 100인 이상 사업장 -0.52였다. 1~4인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하락폭이 1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하락폭의 2배 이상이었다. 가계재정 만족도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하락폭이 -0.75였는데 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만족도 하락폭은 -0.41로 차이가 컸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일하는 시간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재정도 악화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만족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27] 사업체 규모별 만족도 변화



직종별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은 건강 및 친구관계에서 만족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은 일자리와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 하락폭이 컸다. 관리자 및 전문직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낮았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관리자 및 전문직은 노동시간 및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이 8.9%,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91.1%여서,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한 비율은 적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서비스직은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비율 46.7%,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 48.5%, 판매직은 노동시간과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이 각각 49.0%, 53.5%, 기능직도 각각 55.1%, 55.1%, 단순노무직은 38.6%, 39.0%여서 일자리와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능직은 다른 직종보다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비율이 높아, 일자리와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 하락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4-28] 직종별 만족도 변화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와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앞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시간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일자리와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의 만족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40대는 건강, 가계재정,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폭이 크다. 50대는 일자리에서의 만족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간 및 임금의 증감율에서도 확인되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 50대의 노동시간 및 임금이 줄어든 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율은 각각 -17.2%, -14.9%였으며, 50대는 각각 -16.9%, -18.1%였는데 반해, 20대는 각각 -9.3%, -5.6%, 30대는 -10.0%, -10.3%로, 노동시간 및 임금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만족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만족도 절대값 자체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 자체는 연령에 반비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표 4-31> 코로나19 전후 만족도 변화(10점 척도 기준)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건강	일자리	가계재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	
고용 형태	정규직	101	-0.40	-0.47	-0.36	-0.05	-0.35	-0.41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02	-0.49	-0.92	-0.66	-0.18	-0.37	-0.65
		계약직	220	-0.41	-0.67	-0.53	-0.22	-0.47	-0.58
		시간제	220	-0.49	-1.29	-0.80	-0.13	-0.39	-0.69
		일용직	131	-0.56	-1.27	-0.94	-0.25	-0.34	-0.70
		파견·하청·용역	130	-0.51	-0.48	-0.38	-0.18	-0.35	-0.59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201	-0.51	-0.86	-0.63	-0.15	-0.30	-0.68
규모	1-4명	306	-0.50	-1.22	-0.75	-0.18	-0.32	-0.69	
	5-9명	235	-0.50	-0.82	-0.64	-0.14	-0.46	-0.65	
	10-29명	214	-0.48	-0.77	-0.58	-0.24	-0.38	-0.64	
	30-99명	141	-0.47	-0.64	-0.52	-0.17	-0.40	-0.59	
	100인 이상	101	-0.39	-0.52	-0.41	-0.08	-0.27	-0.38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63	-0.56	-1.17	-0.84	-0.20	-0.44	-0.56	
	도소매업	140	-0.36	-0.81	-0.59	-0.12	-0.24	-0.54	
	숙박 및 음식점업	133	-0.41	-1.35	-0.88	-0.21	-0.38	-0.84	
	금융보험업	78	-0.41	-0.82	-0.55	-0.03	-0.37	-0.65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3	-0.55	-0.46	-0.35	-0.14	-0.38	-0.63	
	교육서비스업	85	-0.58	-1.49	-0.85	-0.39	-0.54	-0.68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03	-0.43	-0.50	-0.50	-0.14	-0.17	-0.58	
기타	148	-0.50	-0.57	-0.48	-0.14	-0.44	-0.55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45	-0.67	-0.53	-0.36	-0.24	-0.60	-0.60	
	사무직	198	-0.43	-0.84	-0.57	-0.17	-0.43	-0.50	
	서비스직	291	-0.46	-0.93	-0.65	-0.15	-0.35	-0.65	
	판매직	155	-0.43	-0.94	-0.65	-0.12	-0.28	-0.72	
	기능직	78	-0.42	-1.13	-0.99	-0.14	-0.37	-0.60	
	단순노무직	236	-0.55	-0.79	-0.56	-0.22	-0.36	-0.64	
성	남	466	-0.48	-0.72	-0.56	-0.18	-0.39	-0.60	
	여	537	-0.47	-1.02	-0.68	-0.16	-0.35	-0.64	
연령	20대 이하	199	-0.35	-0.77	-0.49	-0.15	-0.38	-0.59	
	30대	151	-0.40	-0.77	-0.62	-0.22	-0.43	-0.54	
	40대	181	-0.61	-0.90	-0.72	-0.17	-0.36	-0.67	
	50대	220	-0.45	-1.05	-0.65	-0.20	-0.39	-0.65	
	60대 이상	252	-0.56	-0.86	-0.64	-0.13	-0.32	-0.63	

구분		사례수	건강	일자리	가계재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
혼인	비혼	294	-0.37	-0.81	-0.55	-0.20	-0.42	-0.65
	기혼	709	-0.52	-0.91	-0.66	-0.16	-0.35	-0.61
전체		1003	-0.48	-0.88	-0.63	-0.17	-0.37	-0.62

6) 코로나19 일과 생활 어려움

코로나19로 일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8명 중 48.4%는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던지,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여 어렵다던지, 고용불안으로 일자리 유지가 어렵다던지, 비대면으로 고객을 만나기 어려워 업무에 힘이든다 등의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방역에 의한 일상생활 불편함을 응답자의 19.9%가 선택하였다.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하는 불편함, 모임과 종교활동 제약, 여행 및 여가생활 감소로 생활활력 저하, 친구와 교류 어려움으로 고립감,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의한 불편함 등이 주요 응답내용이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을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은 12.4%였다. 여러 사람 대면에 의한 불안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미흡한 방역에 의한 불안감 등이 주요 응답이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어렵다는 응답은 3.2%, 사회보험 미가입을 어려움으로 선택한 비율은 3.0% 등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응답자가 일하는 사업장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휴게시설 부족, 주휴수당 미지급, 현장직의 안전사고 걱정, 성희롱, 동료의 따돌림, 부족한 휴게시간, 정규직과 임금 차이 등이었다.

<표 4-32> 코로나19 일과 생활 어려움

단위 : 명, %

	반응		케이스의 퍼센트
	N	퍼센트	
일자리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241	44.5	48.4
방역에 의한 일상생활 불편	99	18.3	19.9
코로나19 감염 우려	62	11.5	12.4
업무량이 너무 많아짐	16	3.0	3.2
사회보험 미가입(4대 보험)	15	2.8	3.0
기타	108	20.0	21.7
전체	541	100.0	108.6

7) 서울시 역할

코로나19로 일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의 역할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59명 중 28.8%는 일자리 대책이 가장 많았다. 주요 응답내용으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직업(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지원, 고용안정 및 유지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방역조치를 서울시 역할로 응답한 비율은 27.7%였다. 주요 응답내용은 방역 강화, 무상마스크 제공, 개인위생에 대한 홍보 강화,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마스크 착용 위반 단속 등이었다. 다음으로 생계안정 지원으로 17.0%가 관련 내용을 응답하였다.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용자, 기본소득 도입, 소외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기초생계비 지원 등이었다. 생계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강화 응답도 있었지만, 무분별한 지원반대 및 선별강화 응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확대 응답이 6.8%였으며, 세금감면 4.8%였다.

<표 4-33> 서울시 역할

단위 : 명, %

	반응		케이스의 퍼센트
	N	퍼센트	
일자리 대책(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132	26.2	28.8
방역조치 (홍보, 방역물품 지원 등)	127	25.2	27.7
생계안정 지원 (재난지원금, 용자, 생계비 지원 등)	78	15.5	17.0
사회보험료 지원 및 확대	31	6.2	6.8
세금감면	22	4.4	4.8
기타	114	22.6	24.8
전체	504	100.0	109.8

6. 정책

1) 정책수혜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원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 인지한 경우 신청 여부, 신청한 경우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 받은 응답자에게는 지원정책의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인지 정도는 60.2%였으며, 신청한 비율은 0.2%였다. 신청자 모두 지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무급휴직인 경우 무급휴직자도 신청가능하기에 실제 응답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인지도는 96.6%였으며, 신청율은 25.7%,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96.8%였다. 지원받은 응답자의 도움 정도는 4점 척도 기준 3.06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지도 81.8%, 신청율 13.3%, 수혜율 97.2%였으며, 만족도는 3.23으로 매우 높았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서울시 특별지원금이 지원대상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서울시 알바 청년 긴급수당은 인지도 54.8%, 신청율 1.3%, 수혜율 42.9%, 수혜자 만족도는 3.00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이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기에, 이번 조사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대해서는 인지도 50.6%, 신청율 2.6%였으며, 신청자는 모두 생활안정자금을 용자 받았다. 용자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는 2.77로 보통(2.5)이상이었다.

<표 4-34> 지원정책 수혜 등

단위 : %, 점

구분	인지 여부	신청 여부	수혜 여부	도움정도 (4점 척도)
고용유지지원금	60.2	0.5	10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6.6	25.7	96.8	3.06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81.8	13.3	97.2	3.23
서울시 청년 긴급수당	54.8	1.3	42.9	3.00
생활안정자금 용자	50.6	2.6	100.0	2.77

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절대 다수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지원정책을 알고 있던 응답자의 5% 내외는 신청절차의 어려움과 복잡함, 신청방법을 몰라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였다. 정부 지원정책은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기에, 이번 조사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정책 수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표 4-35> 지원정책 미신청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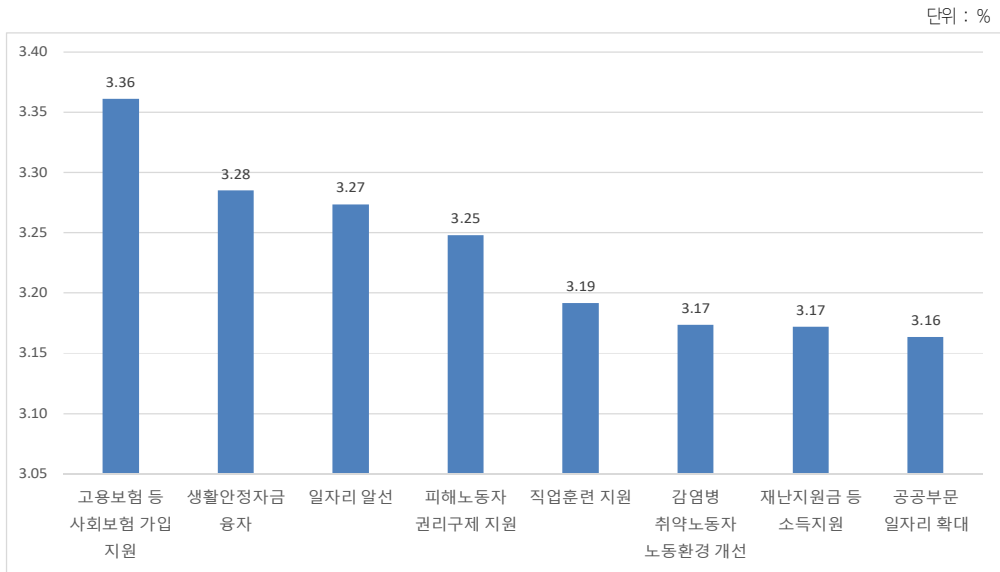
구분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울시 청년 긴급수당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대상이 안됨	95.2	95.8	94.8	98.2	88.9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함	1.3	1.8	2.1	0.6	3.2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2.3	1.3	1.4	0.4	4.8
신청방법을 몰라서	1.2	1.1	1.7	0.9	3.0

2)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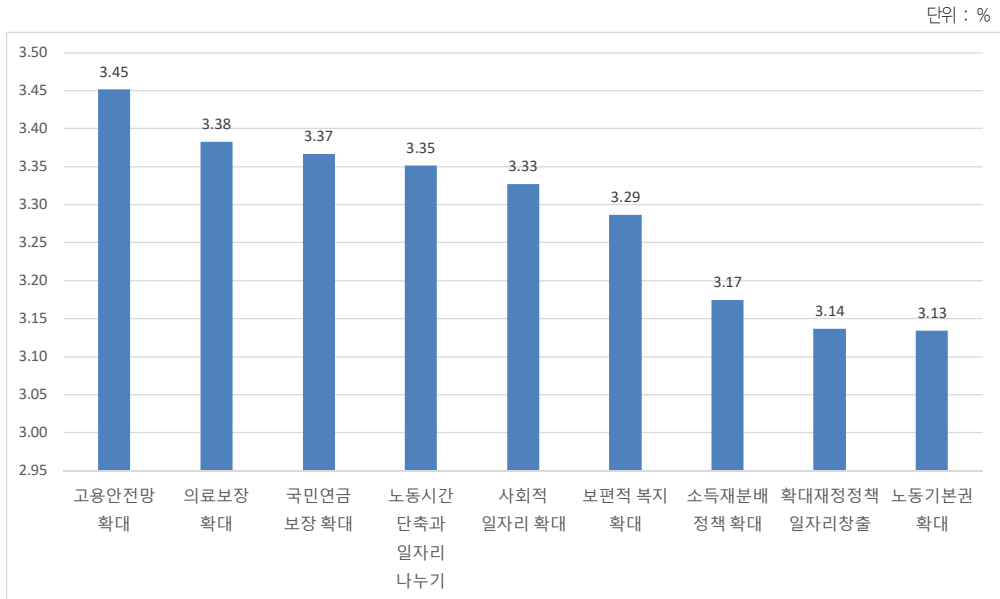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3.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안정자금 용자 3.28, 일자리 알선 3.27, 피해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3.25, 직업훈련 지원 3.19, 감염병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3.17,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3.1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3.16이었다. 고용형태별, 사업장규모별, 업종별, 직종별,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장기정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향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모두 3.00 이상이였다. 고용안전망 확대 3.45, 의료보장 확대 3.38, 국민연금 보장 확대 3.37,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3.35, 사회적 일자리 확대 3.33, 보편적 복지 확대 3.29,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3.17 등이였다. 단기정책 수요와 마찬가지로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림 4-29] 단기 정책 수요



[그림 4-30] 장기 정책 수요



정책수요 조사를 위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전혀 필요없다거나 별로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필요 없는 편 응답이 0.7%~13.4%였다. 단기정책으로 제시

한 생활안정자금 용자, 직업훈련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만 필요없다는 응답이 10% 이상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접 피해를 겪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전후로 노동환경 및 생활에 변화가 없는 노동자들도 지원정책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소결

서울지역 노동자 1,00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및 생활실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의 변화에서는 서울지역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52.2%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은 42.2%였다. 늘었다는 응답자는 5.6%였다. 하지만, 고용형태별로 보면 노동시간 변화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 중 일하는 시간에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85.1%로 다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은 14.9%였다. 비정규직은 일하는 시간에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48.6%, 줄었다는 비율은 45.2%였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59.5%), 일용직(69.5%),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52.7%)의 노동시간 감소 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일수록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 및 건설업(64.4%), 숙박 및 음식점업(61.7%), 교육서비스업(69.4%)이 60% 이상이었다. 직종별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8.9%)과 사무직(36.9%)보다 서비스직(46.7%), 판매직(49.0%), 기능직(55.1%)의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35.0%)보다 여성(48.5%), 대졸 이상(37.3%)보다 고졸 이하(45.4%)가 노동시간이 줄어든 비율이 높았다. 실제 노동시간의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코로나19 전후로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2.9시간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7.3시간으로 -5.6시간(-1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3.6% 노동시간이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4.0% 노동시간이 줄어, 정규직보다 3.9배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임금변화에서는 서울지역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줄었다는 비율이 43.5%,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50.8%, 늘었다는 비율은 5.7%였다. 코로나19 전후, 임금의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정규직은 85.1%였으며, 줄었다는 비율은 13.9%였다. 비정규직은 임금변

화가 없었다는 비율 50.8%, 줄었다는 비율 43.5%로 정규직과 차이가 있었다. 노동시간 변화처럼, 시간제,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여성, 판매직, 서비스직, 기능직의 임금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월 평균임금의 감소 정도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임금 235.8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203.3만원으로 -32.5만원(-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감소(-13.0%)와 거의 유사한 감소율이다. 정규직이 -2.3% 월 평균임금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15.8% 임금이 감소하여, 정규직보다 6.9배 임금이 감소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간 감소율 차이가 3.9배였는데 비해, 임금 감소율은 6.9배로, 일하는 시간 감소보다 임금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임금이 감소한 주된 이유로는 노동시간이 줄어서라는 응답이 90.6%로 절대 다수였다(복수응답). 노동시간과 임금이 모두 감소한 응답자 특성을 보면, 정규직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임금과 노동시간 모두 줄었다는 비율이 10.9%였지만, 비정규직은 45.2%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 10명 중 약 1명이 임금과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지만, 비정규직은 10명 중 5명 가까이가 임금과 노동시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강도 변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9.6%는 업무강도에 변화가 없었지만, 높아졌다 23.2%, 낮아졌다 17.1%였다. 정규직이 업무강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77.2%, 높아졌다 12.9%였으며, 비정규직은 변화가 없었다 57.6%, 높아졌다 24.4%로 차이가 있었다. 필수업무 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게 특징인데,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필수업무 노동자는 61.5%였는데 비해, 그 밖의 노동자는 21.9%여서, 코로나19 이후 필수업무 노동자의 업무강도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에서 취해진 조치로는 업무시간 단축 45.6%, 신규고용 축소·취소 32.4%, 경영상화 악화 32.1%, 근무시간대 변화 28.7%, 인원감축 25.7%, 근무형태(재택·원격근무 등) 변화 15.2%, 사업장 휴업·폐업 15.2%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작업량이 감소하며, 근무시간도 단축되는 등 노동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노력, 정부정책 활용, 불가피한 사업주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실직 경험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에 취업상태였던 응답자들 중, 조사 시점인 10월까지 사이에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8.8%로 나타났으며, 이 중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이유였다는 응답이 8.6%였다. 시간제(15.0%), 일용직(26.0%)의 실직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실직 이유는 일감(업무) 감소가 61.4%로 다수였다.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3.4%에 불과했으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91.8%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여, 고용위기시 고용안전망이 취약계층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1.3%)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불안감이 심각한 편 비율은 27.9%, 우울감이 심각한 편 비율은 14.1%였다. 코로나19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81.9%로 절대 다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된 이후에, 과거 상태로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는 부정적이었다.

코로나19로 실직을 걱정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2.5%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하였으며, 정규직이 30.7%였던 데 비해, 비정규직은 66.1%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시간제, 일용직은 10명 중 8명이 실직을 걱정하고 있어,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의 실직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임금과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이기에 실직우려 또한 다른 고용형태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1순위로는 일자리 유지 36.9%, 건강 22.9%, 구직 10.5%, 생계비 9.4%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유지와 구직 등 고용유시가 47.4%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건강과 노동안전을 포함한 안전건강 이슈가 30.8%였다.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 위기와 감염병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1순위로 경기침체 장기화 31.3%, 일자리 유지 29.6%, 소득저하 13.2%, 감염위험 10.0%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우리사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8%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단축, 임금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데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먼저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4%는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족한 편은 43.9%였다.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정규직이 21.8%였으며, 비정규직은 46.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 변화에서는, 정규직은 응답자 10명 중 8명(79.2%)이 변화가 없었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비율은 17.8%였다. 비정규직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가구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 가구의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감소한 응답자의 평균 가구소득 감소액은 정규직이 65.6만원

이었으며, 비정규직은 94.2만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 가구의 생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가구소득이 크게 감소한 비정규직은 현재와 미래 가구 재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현재 가구 재정상태가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32.2%(정규직 9.9%)였으며, 내년 가구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0.3%(정규직 9.9%)로, 생계를 걱정하는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었다.

코로나19 전후 만족도 변화에서는, 건강, 일자리, 가계재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 등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에서의 만족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만족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항목은 일자리와 가계재정으로,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집단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일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응답자의 절반(48.4%) 가까이가 꼽았다.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 어렵다든지, 고용불안을 걱정한다든지 등의 응답이 많았다. 방역에 의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지적한 응답자도 19.9%였으며,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불편함, 모임과 활동 제한, 여행 및 여가생활의 감소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로는, 일자리 대책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방역조치 27.7%, 생계안정 지원 17.0%, 사회보험료 지원 6.8% 등이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피해노동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높았으나 신청 비율은 낮았다. 그 이유로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가 절대 다수였다. 정부 지원정책은 정책별로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뤄지고, 이번 조사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기에, 전체 응답자의 지원 신청과 수혜 정도는 높지 않았다.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지역 노동동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피해가 집중된 집단이 유사하였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자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성별로는 여성이, 직종별로는 판매직과 서비스직이,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코로나19로 일감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고, 서울시 정책도 일자리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하였다.

V.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1) 면접 대상자 현황

취약계층과 필수계층 노동자로 구분하여 FGI(초점집단면접)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필수계층보다 취약계층노동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이유는 실직, 임금 삭감, 고용형태 변화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은 시간제, 계약직, 특수고용직, 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이었다. 직종은 서비스직과 사무직이 많았고 업무는 학원 및 방과 후 강사, 마케팅 업무, 청소, 배달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표 5-1> 면접 대상자 현황

이름	고용형태	직종	업무
A	시간제	단순 노무직	청소
B	특고	서비스직	방과후 강사
C	계약직	사무직	여행 마케팅
D	특고	기능직	인테리어
E	특고	관리자 및 전문직	공연예술
F	정규직	판매직	면제점 판매
G	계약직	서비스직	학원강사
H	특고	서비스직	보험설계
I	정규직	사무직	편집 디자이너
J	정규직	사무직	병원 마케팅
K	특고	서비스직	학원강사
L	특고	서비스직	외국어 서비스

2) 질문지 구성 내용

인터뷰 방식은 미리 설계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일반현황, 임금 및 노동조건, 고용형태 등 코로나19로 인한 환

경변화 내용, 노사 대응, 환경변화 인식(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 정책수요(정부 및 지자체 지원받은 내용), 코로나19 이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인터뷰 시간은 대략 1시간 30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5-2>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사항	- 업종, 기업규모 - 직종(직무), 경력 및 근속기간, - 노조 유무(상급단체) 및 활동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 고용형태 - 수행업무 및 업무강도 - 임금 및 근로조건(근로시간, 수당, 사회보험, 휴가)
환경변화 인식	- 심리적 상황(정신적/육체적 상태)
노사 대응	- 부당노동행위 경험 - 코로나19 대처(방역 등) - 고용 및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사용자와 협의 여부 - 노조 지원
생활실태	-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 방식(대출, 보험 및 예금 해지 등)
정책 수요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받은 내용
코로나19 이후 계획	- 전직, 교육훈련(민간 혹은 공공) 참가, 휴식(재충전 시간) 등

2.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1) 임금 및 노동조건 변화

(1) 임금

코로나19 전후 임금 변화는 매우 컸다. 대구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에 처음으로 임금 감소가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 임금 평균이 약 240만원이었지만 코로나 19 이후에 12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임금 감소가 컸던 직종은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의 영업직과 면세점의 판매직들이었다. 이들은 각종 수당이 삭감되면서 실질 임금의 큰 하락폭을 경험했다. 또한 현장 일용직, 공연예술, 학원강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소하여 약

2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업체가 문을 닫거나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현재 수입은 실질적으로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하락폭을 보면 일부 노동자의 경우 한번에 70%씩 감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감소한 경우도 존재했다. 처음에 100%받던 임금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3~5월은 80~85%, 6~8월은 70%이고, 9~11월은 정부지원금을 합해 약 5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연봉협상의 의미가 없어졌고 실직되지 않는 것에 만족했다. 사무직의 경우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증가한 반면 임금은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감소했다.

이런 임금 감소에 대한 면접결과는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임금감소는 13.9%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은 46.8%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임금감소가 심했던 업종은 여행 및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4%, 학원 강사 등 특수고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업이 70.6%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 코로나19 전후 임금변화

이름	직종	업무	월 평균 임금변화(만원)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증감
A	단순 노무직	청소	110	70	-40
B	서비스직	방과후 강사	100	0	-100
C	사무직	여행 마케팅	350	150	-200
D	기능직	인테리어	350	150	-200
E	관리자 및 전문직	공연예술	200	0	-200
F	판매직	면제점 판매	280	220	-60
G	서비스직	학원강사	200	0	-200
H	서비스직	보험설계	450	300	-150
I	사무직	편집 디자이너	210	120	-90
J	사무직	병원 마케팅	250	200	-50
K	서비스직	학원강사	200	150	-50
L	서비스직	외국어 서비스	200	100	-100
평균			241	121	-120

(일하는 시간이) 3시간 줄었는데 월급은 반 이상 줄었어요. 그렇게 월급이 확 줄어드니까 의욕도 좀… 사장님이랑 회사 상황은 알겠지만 너무 좀 생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100%였다고 하면 3, 4, 5월은 80~85%이고 6, 7, 8월은 70%이고 9, 10, 11월은 지금 정부지원… 50%이긴 한데 최대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중략)...50%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 출근을 했으면 출근한 만큼 더 해주고 출근을 안 했으면 한 7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치면 그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직원별로 무급을 들어갈 때는 월급을 70% 받았고, 코로나 전에는 중국에 대량 고객들이 많았을 때는 기본급 이외에 인센티브가 많았는데 주 대량 고객이 아예 없어지면서 아예 인센티브는 그냥 없어졌다고 보면 되구요...(중략)...저는 아예 출국하는 국내외 고객이 없다 보니 8시간을 일하면 급여를 70%를 받는 거지만 그것도 미안할 정도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매장에서 정말 가만히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정규직인데 급여가 파트타임 급여로 주세요. 처음에는 한 21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었고 보너스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몇 시간 일했는지 달력에 써놓고 사장님이 한 달 치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중략)... 3시간 줄었는데 월급은 반 이상 줄었어요. 그렇게 월급이 확 줄어드니까 의욕도 좀 없어요.

저희는 2월까지의 관참이었었는데 3~5월까지의 20% 삭감이 되고 5월 되기 전에 절반 정도 구조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10%로 회복이 되었다가 지금 또 2단계로 격상하고 나서 다시 20% 감봉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중략)...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연봉 협상을 못 했거든요. 뭔가 경력도 쌓여가고 연봉 협상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말을 못 하게 되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일은 거의 3분의 2 정도, 70%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급여도 깎이긴 했는데 3분의 1 다 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좀 깎였습니다. 제가 190에서 200 사이 받았는데요. 지금 한 160 정도 받고 있어요.

일은 한 20% 정도 준 것 같은데 월급은 50~60% 정도. 근데 칼퇴근을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인원이… 적당한 일을 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절반의 인원이 줄었음에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 밖에… 연차도 못 쓰고 돈도 안 주고 월급은 깎이고… 하하하…)

(2) 노동시간

노동시간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18시간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감소가 컸던 업무는 여행·관광업에 종사하는 면세점 판매직과 특수고용노동자(예술공연, 유치원 파견강사, 택배)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주당 20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감소는 임금에 영향을 미쳐 코로나19 이전 임금의 절반 정도만 받았다. 이런 결과는 제4장의 설문조사와 비슷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평균 노동시간이 45.2%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에서 69.4%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표 5-4> 코로나19 전후 노동시간 변화

이름	직종	업무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시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증감
A	단순 노무직	청소	20	12	-8
B	서비스직	방과후 강사	15	0	-15
C	사무직	여행 마케팅	40	24	-16
D	기능직	인테리어	40	30	-10
E	관리자 및 전문직	공연예술	25	0	-25
F	판매직	면세점 판매	45	24	-21
G	서비스직	학원강사	20	0	-20
H	서비스직	보험설계	40	30	-10
I	사무직	편집 디자이너	40	25	-15
J	사무직	병원 마케팅	40	40	0
K	서비스직	학원강사	52	20	-12
L	서비스직	외국어 서비스	40	20	-20
평균			34	18	-16

사무실에는 총 30명 정도 근무했어요. 지금 출근자가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은 다 나오는데 단지 주 2~3일 정도 나오구요, 사무실 보면 주3일 이상으로 5명 정도씩 나오고 있어요.

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5년 정도 다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일

하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라고 했는데 그것도 3일로 줄었어요. 월수금 나가고 있어요.

기존 9시간 근무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사마다 급여를 덜 주는 곳이 있고 그대로 주는 곳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받았어요. 똑같이. 인센티브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게 맞지만 인센티브 생각하지 않으면 30%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 되고요.

(3) 고용변화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정규직 혹은 시간제로 정상적인 근무를 했고 실직에 대한 큰 두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구 신천지 교인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3~4월이었고 이때부터 점차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가장 먼저 노동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결국 상당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감소와 함께 임금이 삭감되었다. 또한 사업축소 및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유급휴가 이후 무급휴직이 들어가거나 권고사직으로 실직을 당했다. 예를 들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시간제)로 전환되어 임금이 줄어든 채 계속 근무하기도 했다. 설문조사에서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45.6%)인 것과 같은 결과이다.

노동자들은 인원 감축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노동자들이 채워야 한다고 인식했다. 일부 노동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영진이 인식하고 인력 채용 대신 현재 인원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즉 코로나19 이후에 경영진 입장에서 현재처럼 저비용 고효율 경영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노동자들은 높은 업무 강도를 경험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코로나19 이후 근무 변화

이름	코로나 이후 근무 변화
A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삭감
B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삭감
C	유급휴직 이후 무급휴직
D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삭감

이름	코로나 이후 근무 변화
E	권고 사직으로 실직
F	유급휴직, 교대제 이후 10월말 권고사직
G	권고 사직으로 실직
H	영업 실적 저조
I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어 근무
J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삭감
K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삭감
L	사업축소로 퇴사 후 아르바이트 취업

정규직인건 마찬가지인데, 주 5일 출근을 했었고요. 이전에는, 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2월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근무일수가 점점 줄었어요. 처음에 주4일, 주3일, 주2일 이렇게 줄다가 6월부터는 아예 출근을 안 했어요. 지난달에 희망 퇴직 접수를 받았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희망퇴직을 신청을 안 한 직원들은 권고사직이나 부서 재배치 하고요. 회사가 원하는 인원이 남을 때까지 그런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직격탄을 맞아서 3~4월부터 행사가 취소되고 코엑스, 킨텍스 뭐 다 안하다보니 일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였죠.

○○ 호텔 면세점의 판매직을 맡은 파견업체 소속의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10월 말부로 권고사직을 당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판매직에 직원 3명, 아르바이트 2명 썼던 것을 감축해서 직원 3명으로 바꿨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로 쉬는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쉬어서 2명만 일을 하는 형태로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파견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데 유치원의 수업이 없어서 2월까지 일하고 올해는 수업을 거의 안 했어요

학원에서 독서 글쓰기 수업을 하죠. 선생님이 한 다섯 분 계셨는데 지금은 주말은 수업이 없고 주중에 5일 나갔었는데 지금은 3일 수업하고 있어요

외국어로 1:1 수업도 하고 그룹 수업도 하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은 안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2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7명 안 되고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성형외과를 마케팅 하는 편인데, 지금 성형외과가 해외에서 오는 환자가 끊기면서 매출이 많이 끊긴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광고비를 저희한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광고량도 많

이 줄었어요. 원래 해외팀, 국내 팀 해서 원래 직원이 6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구조조정을 다 했거든요. 해외팀 직원들은 거의 잘렸고 국내팀 직원들만 남아있어요

프린트, 복사, 제본... 뭐 명함 이런 거 하는 사업장이고 사장님 포함 6명이 일해요. 저만 정직원이고 나머지 4명은 파트타임으로 계시거든요. 현재는 저도 파트타임으로 바뀌었고 파트타임이었던 분들은 격주 근무로 바뀌고요. 대학교나 회사들의 행사가 없으면 일이 없어요. 현수막 제본등이 가장 많은데 사회적 거리 2단계로 바뀌면서 아예 재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10명 정도 프리랜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안 계세요. 풀타임 영업사원하고 강사분들은 다 해서 총 5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원래 영업사원이 많았는데 인원이 줄어서 영업 팀장님이 다 관리하고 있죠

모든 행사가 줄어서 우리 회사 일도 많이 줄어든 것인데 이런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많이 적응했어요. 사장님도 이전에는 월급을 다 주고 저를 썼는데 인원이 줄어서 일이 많아도 월급을 다 안 줘도 애는 계속 일하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회사 안에 마케팅팀, 디자인팀, 기획팀이 있는데 지금은 마케팅팀이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다하고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야근할 수 밖에 없고, 위에서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충분히 굴러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힘들다고 보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알바 구해달라고 말할 필요 없다고 니네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2) 생활실태

(1) 생계활동

노동시간 감소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권고사직으로 실직된 노동자들은 남성들의 경우, 육체적으로 노동강도가 센 일용직 택배기사로 일했다. 일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택배기사로 근무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아르바이트보다는 지역 온라인 중고사이트(예, 당근마켓 등)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생활물품을 판매하여 가계의 도움을 얻기도 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초기 자본이 적게 들거나 큰 기술이 필요치 않는 생계형 창업에 집중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한 노동자의 경우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을 미루거나 기혼인 경우에는 2세에 대한 계획을 연기하기도 했다.

일부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가장 많이 취한 행동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보험이나 적금을 해약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불가피했다. 또한 결혼 등 미래 생활을 위해 적금을 드는 경우 적금을 해약하거나 적금 넣는 것을 잠시 중지했다. 그리고 줄어든 생활비로 인해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 소비를 최소화 했다.

이런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생활비 충당 수단(복수응답)으로 생활비 축소(76.0%), 예금 해약 후 생활비 충당(46.1%), 보험해지(14.4%), 금융권 대출(10.2%) 등과 비슷했다.

주변에 여행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부모님 명의, 와이프 명의, 사촌 동생 명의 등을 빌려서 택배 일을 하고 있죠. 프리랜서 명의를 필요했어요. 가족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금방 그만뒀죠. 별로 남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전 결혼할 예정인데 아직 프로포즈를 안 했거든요. 8월쯤에 장마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대로 된 직장이라도 잡아서 프로포즈를 할까 했죠. 친구가 택배하는데 택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민만 하다가 어영부영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몸쓰는 일용직이다 보니 현재는 일이 없어 수입은 제로죠. 예전에 벌어들인 것으로 쓰고 있지만 계속 그럴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이 2명이 있는데 모두 대학생이에요.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죠. 애들이 어렸을 때 보험든 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것을 담보로 받는 것이 이율이 좀 싸더라고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남편도 원래 운동 쪽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권고사직을 당해서 둘 다 실업자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남편은 이번 달까지 받고 끝나는 거라서 둘 다 약간 막막해서 그냥 축의금 들어온 거로 연명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모아뒀던 것으로 생활하고 있죠. 저희 부부는 올해 자녀 계획도 있었는데 일부러 미뤘죠.

소소하게 반찬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근 마켓이랑 중고 거래 사이트를 되게 열심히 해서 안 쓰는 물건 다 팔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팔게 없어요. 오래된 약기 같은 것도 많이 처분했어요. 그런 게 푼돈이긴 하지만 그걸로 장보고 이런 게 유용해요

저도 당근에서 많이 팔았어요. 일단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 만나서 쓰던 비용이 줄긴

하니깐요...(중략)...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하고 마스크 사는 비용은 들지만 밖에 안 나가게 되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원래는 월급에서 어느 정도 적금을 넣고 남은 비용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적금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핸드폰, 교통비, 보험비 이런 고정 지출이 있고 가급적 친구들 만나는 것을 자제해서 돈을 세이브 하고요. 결혼을 준비를 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어려운 거죠

담보 대출 조금 늘렸고, 적금도 켜고,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기도 했죠. 알바는 가끔 가기는 하는데 차로 한 시간 걸려도 가거든요.

페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줄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변했죠. 배달음식이나 외식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던 것도 최저가 찾아서 온라인으로 사고 그래요

(2) 결혼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

<표 5-6> 가구 내 경제활동 현황

이름	혼인 여부	경제활동
A	기혼	맞벌이
B	기혼	홀벌이
C	기혼	홀벌이
D	미혼	부모와 거주
E	기혼	맞벌이
F	기혼	맞벌이
G	기혼	맞벌이
H	미혼	1인 가구
I	기혼	맞벌이
J	미혼	1인 가구
K	기혼	맞벌이
L	기혼	맞벌이

12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미혼자는 3명이고 대부분 기혼자였다. 또한 기혼자 중에서 맞벌이는 7가정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홀벌이는 2가정이었다. 홀벌이보다는 맞벌이가 많았는데 이는 서울의 집값, 물가 등의 환경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현재 홀벌이보다는 맞벌이의 경제적 상황이 괜찮지만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면 맞벌이 가정도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기혼자 및 미혼자가 각각 46.1%, 38.4%로 기혼자가 8%p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엄마는 요양 보호사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가정 방문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수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나라에서 신청하는 특수고용노동직을 신청해서 받았었어요.

남편이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건이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힘들고 회사 렌탈비도 나가고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두 번이나 신청해서 받았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있고 마스크 그런 의료기구를 유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코로나 2월에 터지자마자 중국은 완전 길이 막혔고요. 그래서 그게 무역에 차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병원에 묶인 돈이 한 80억은 된대요. 병원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월급이 깎이거나 밀린 적이 없지만 병원이 돈을 안주면 다음달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내용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의 노동자들에게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고 서울시는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형 알바 청년긴급수당,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이 복잡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존재했다.

일부 노동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노동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수혜 여부

이름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수혜 여부
A	잘 몰라 지원하지 못함
B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했지만 해당되지 않음
C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받음
D	지원정책 다 알지만 절차복잡해서 신청 못함

정부 그 이번에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엔 해당이 안되고 1차로 했을 때는 지원 받았어요. 지금은 아이 때문에 나오는 20만원 그걸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중복이 안 돼요

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올해 초반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여서 가능했구요. 지금은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에 다른 혜택은 못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행업계가 특별고용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는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근로 장려금은 원래 9월에 받는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8월에 지급 했더라고요. 그것만 받았어요.

서울시 특수 고용직으로 해서 50만원씩 두 번인가 나온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 가구 기준에 초과해서 재난 못 받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사장님이 주셨어요. 처음엔 20만 원씩 주셨고 그다음에 15만 원씩 주셨어요. 이거 나라에서 직원들 앞으로 나온 거라면서 주셨는데 코로나 시작되고는 없어요. 아마도 일자리안정자금인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엔 20만 원씩 주시다가 돈이 줄었다고 하시면서 15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4) 노동자의 환경변화 인식

노동자들의 심리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는 돈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일부 노동자의 경우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다거나 돈이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해고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나타나 병원 치료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적 위로와 안정을 찾기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설문조사에서도 비정규직 응답자의 62.5%가 실직 우려가 있다고 대답한 것처럼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인 노동자는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고 외부 활동이 적어지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국내외 여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으며 설령 여행을 다녀왔어도 회사에서 동료들의 눈치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로 1주일 가량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로 불안, 걱정, 우울감 등이 가장 컸고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각각 18.8%, 2.0%에 비해 비정규직은 28.9%, 15.4%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불안감과 우울감이 훨씬 크다고 분석된다. 이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보다 고용 불안과 미래 불투명에 따른 우울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뭐만 해도 돈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를 겪지 않고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이 저에겐 IMF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저보다 힘든 분들 계셔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빨리 끝나야죠. 현재 수입이 제로다 보니 많이 불안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보기도 좀 그렇고요.

제가 경제권을 갖고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나봐요. 탈모가 와서 병원에도 갔어요. 구청에서 코로나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아보기도 했거든요. 생각보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 신종플루나 사스 이럴 때도 인원을 감축하거나 무급휴직 등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면세점 자체가 미래가 없다고 해야 하나 거의 몰락하는 수준이고 그냥 면세점 자체의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학교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2월부터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육아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코로나19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요. 요새 여기저기서 다 걸리는 상황이니깐 우울하기도 하고요. 또한 학교에서 급식 먹고 오면 일하는 엄마로서는 아침 먹고 점심은 신경 안 써서 너무 편한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야 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요.

제일 답답한 건 여행 못 가는 것이죠. 1년에 두 번은 꼭 해외를 나갔었는데 이제 아예 못 나가고 국내 여행을 가자니 언제 걸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몇 번 다녀오긴 했는데 다녀오면 회사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은 죄인처럼 지냈죠. 또한 종교가 기독교인데 지금은 저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 월요일마다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걸 자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것 같아요.

3. 코로나19에 대한 노사관계

1) 사용자의 대응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임금의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파견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 제출을 사용자가 미루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자 사측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인 모임 참석 금지, 외식 및 회식 하지 않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보다는 온라인으로 장보기 등을 지키겠다는 서명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 만약 서명처럼 실천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노동자가 피해를 보상하고 모든 법적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도 유치원에서 사장에게 주면 제가 받는 형태인데, 막 중간에 떼어먹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이 임의로 계산해서 안 주면 먹고 땡 이런 식으로하는 거죠. 근데 그 특고 지원금 신청할 때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사장이 바쁘다고 서류를 잘 안해주는 거죠. 그것 받느라고 고생했죠

임금체불도 발생했죠. 그런데 해결 못 하죠.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몇 번 선생님들이 노동청에 신고했었는데 자기는 차라리 내 집기를 가지고 가면 가져가라, 그 돈 절대 못 준다면서 프린터랑 이런 거 다 가져갔어요. 너무 악덕인 거예요.

저희는 서명을 받았어요. 1차 유행 신천지, 2차 광화문 집회로 이번에 지금 3차 유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굼직한 게 있을 때마다 서명을 받는데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모임은 절대 가지 않고 외식도 안하고 백화점 등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명하고 이 내용을 지킬 것이며 이걸 안 지켜서 코로나에 걸려 회사에 피해가 생긴다면 모든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명을 할 때마다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너무 강제로 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걸릴 때 법적인 책임을 내가 진다고 하니 좀 그랬죠. 물론 그 서명이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2) 사용자의 코로나19 예방 조치

사용자들의 코로나 대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을 부착했으며 사무실 입·출입문 앞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외부 영업이나 현장의 경우 소독제는 물론이고 QR코드를 통해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일용직의 경우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현장에서 퇴소시키기도 했다.

어린이집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현장의 경우 시청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정 시간별로 소독을 실시하였다. 학원 강사의 경우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교실은 본인 스스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졌지만 열 체크는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체온감지기 설치가 4번째로 높게 나온 반면 면접조사에서는 열 체크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균 필름 붙이고 엘리베이터에. 건물 들어오자마자 체온 재고 손 소독제 배치해 두고

사무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을 했었거든요. 강도가 올라간 후는 사무실에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킨텍스, 코엑스다 보니까 방역 이런 건 입장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QR코드부터 온도 체크 기본으로 하고 보안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작업장에 저희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안 쓰면 바로 퇴출 당했죠

어린이 집의 경우 서울 시청에서 방역하시는 분이 2명이 6시간 상주하고 계세요.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했죠. 특히 어린이들이다 보니 까다로워요.

저희는 소독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고 열 체크는 안 하고 손 소독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입구에서 하도록 했죠. 마스크는 다 94 마스크를 쓰긴 하는데 제대로 그걸 마스크처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턱스크했고 누구 다 날 때마다 올리는 정도로 했고 제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도 열 체크는 안 하고 회사 앞에 손 소독제를 설치했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깐 금방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를 박스로 비치했지만 대부분 본인이 좋은 걸 많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였던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살균 세제 사용해서 책상, 의자, 손잡이 손길 닿는 곳 닦고 있고요. 자기 교실이 하나씩 있어서 다 알아서 하고 복도도 돌아가면서 하고요. 소독제 있고 아이들 학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와 노동자간 협의

코로나19로 임금 및 노동시간 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과 협의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취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사용자들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종용했다. 예를 들면,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및 내년 연차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를 다가로 퇴직을 강용한 경우도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에 의하면,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상당수 노동자들이 퇴직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정 인원까지의 계속된 구조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의 실업급여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해고 수단으로 실업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8>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p>■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p>
<p>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채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년 1월부로 퇴사처리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했고요. 대신에 다른 여행사나 다른 곳에 비해서는 내보내는 처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월 2일로 퇴사시키면서 내년 연차까지 챙겨주는 거로 합의 봤어요.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 급여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말했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 조건을 받고 나가던지, 그게 아니고 남을 거면 회사가 생각하는 인원까지 줄여지지 않으면 이 혜택도 못 받고 구조조정 당하거나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재배치 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계속 있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받아 들였죠

9월에 정부 지원받는 것이 끝나서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 각서를 쓰던지 싫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급휴직을 선택했고 11월이 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무급휴가를 들어가라고 해서 권고사직 하고 싶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퇴사 처리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1대1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임금을 50%만 주고 상당수 구조조정 할 거다. 근데 지금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건데 나중에 나가면 그것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나갔는데 구조조정을 안하더라고요. 단지 협박용으로 했다고 직원들이 말이 많았죠

사장님이 너무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직원들이랑 사장님이 같이 먹거든요. 밥 먹으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상황을 아니까 반박도 할 수 없었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집에 와서 섭섭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

인터뷰에 응했던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거나 특수고용노동자이다

보니 노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았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대한 우호적이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노조 기업의 경우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나 구조조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이 3% 미만으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양대 노총이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

특고직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동종업계 동료가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 활동도 했고요. 그나마 저희처럼 노조가 없는 것보다 상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했죠.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주방에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에서 뭐 같은 거 다 알아봐 주고 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규직이어서 가능했는데 저는 시간제고 비정규직이어서 들어갈 여건이 안 돼요.

4. 코로나19 이후 계획

<표 5-9> 코로나19 이후 향후 계획

이름	현재	향후 계획
A	청소	분식 가게 창업
B	방과후 강사	미정
C	여행 마케팅	택배기사
D	인테리어	제빵사
E	공연예술	박사과정 진학
F	면제점 판매	미정
G	학원강사	학원강사
H	보험설계	스마트 스토어 창업
I	편집 디자이너	국내외 여행
J	병원 마케팅	미정
K	학원강사	자격증 취득
L	외국어 서비스	미정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고 대부분 2021년 1월까지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하거나 백신으로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과거 직무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행 및 관광업에 종사했거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일을 찾으려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필요치 않은 택배기사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일부 창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분식집이나 빵집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가 어린 경우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강사나 아동 관련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결국, 상당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직 혹은 전직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나 서울시의 이직 및 전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대상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정보에 대해 잘 몰랐다.

많이 늦긴 했지만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동네에 작은 빵집을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코로나가 유행해도 사람은 먹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저기 면접 보는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행 쪽은 사실상 1~2년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쿠팡맨 하면 최대 4천8백 번다는데 지금 하던 걸 내려놓으면 할 건 많더라고요.

이직을 확실히 1월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직 시 이직하는 것과 퇴직 후 이직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회사에 소속이 되었을 때 옮겨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나 유치원이 정상화가 되면 괜찮을거니까.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 육아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초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가 고학년 될 때까지는 하고 중학교 가서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는 사업을 한다든지 제3의 직업을 찾을 것 같아요

5. 소결

코로나19 전후 임금 변화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평균 임금은 약 240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12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업직 및 면세점 판매직과 현장 일용직, 공연예술, 학원강사 등 특수

고용노동자의 임금 감소폭이 컸다. 노동시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8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감소는 임금에 영향을 미쳐 상당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 임금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고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계기가 된 3월 대구 신천지 사건과 8월 광화문 집회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이후에는 단순히 근무시간만 단축했지만, 8월 이후에는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업 등이 확산되면서 소득이 줄자 노동자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 또한 적금 및 보험을 해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맞벌이가 홀벌이보다 경제적 상황이 괜찮지만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 되면 맞벌이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노동자들은 내다봤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노동자들은 지원책을 잘 모르고 있거나 신청이 복잡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노동자들의 심리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많지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하고, 실업급여를 볼모로 사직을 강요했으며,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사가 피해 입을 경우 노동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코로나19에 대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협의 과정을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고 대부분 내년 1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뚜렷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수가 이직, 전직, 창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0년 서울시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포함한 플랫폼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수 존재한다. 설문조사 결과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3.4%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면접조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볼모로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취약계층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전직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지원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현재 4개 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교육원을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교육원이 여의치 않으면 산업인력공단의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체 실직자들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설립·운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노동자 중 구직서비스가 필요한 노동자 지원도 필요하다. 서울시 설립 노동센터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이외에 취업상담 및 알선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도 있다.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와 함께, 취업연계를 필요로 하는 노동센터 이용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해 노동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볼모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압박하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사가 일시폐쇄 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손해비용을 감염 노동자가 지불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요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적 모임 참석 금지, 가족 외식 금지, 대형마트 출입 금지 등의 서류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최저임금유반, 임금체불부당해

고, 산업재해, 실업급여, 비정규직차별 등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19에 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포함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력하여 각 지자체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면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등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이하 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방문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의 경우, 2회까지 전화를 통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담회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조만간 감염 확산이 진정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대면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심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보다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11%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수년째 3% 미만이다.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조사무실을 무상임대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나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노조교육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고용불안 및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둘째, 노동공제회도 고려할 만하다. 공제회는 자치원리에 입각해서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일부 업종에서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와 서울노

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받아 봉제인공제회가 설립되었다. 봉제인공제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제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사업주가 90%에 이르며, 가족 노동, 장시간노동, 객공(일종의 프리랜서) 구조 때문에 직업병이 발생해도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렵고, 고용과 퇴출이 쉬움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봉제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인건비 감소를 위해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및 노동자의 경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노동자들이 구로, 금천, 동대문, 중랑, 성북, 종로뿐만 아니라 중구 신당동, 용산구 만리동 등 서울 전역에 약 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결국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9만 서울지역 '봉제노동자의 벗'이 되며 열악한 봉제업종의 '노동복지 한계 극복'을 선언하면서 2019년 11월에 봉제인공제회가 창립되었고 회원들은 금융, 의료, 상조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처럼 노동공제회는 조합원(회원)이 일정액의 회비를 내면 회원들은 주거, 건강(의료), 금융상담, 교육상담, 심리상담, 상조, 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제도개선, 연구개발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즉 공제회는 노동+사회적 경제가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 조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으로 노동회의소도 고려할 만하다. 20대 국회에서 이용득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동회의소 건립을 주장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노동회의소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노조보다 가입 범위가 넓으며, 구성원의 회비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 교육훈련, 노사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9년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노동회의소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10>과 같다. 먼저 회원은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으로 제외시킨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모든 노동자를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교육훈련, 고용, 사회적 대화 참여 등 다양하다. 또한 임의가입과 탈퇴가 가능하여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지역과 중앙노동회의소를 두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노동회의소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노동회의소 대의원은 지역노동회의소가 선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끝으로 노동회의소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는 4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노동회의소를 위한 기반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10> 노동회의소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회원 자격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농업 종사자 등은 제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정부, 지자체의 각종 법안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 입장 표명과 의견 제안 - 법률 상담 -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서비스 , 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 - 고용과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연구 및 교육 - 중앙 및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및 지원 - 미조직 취약계층의 경제·사회·직업·문화 활동 지원 - 노동조합 및 사업장 노동자 대표조직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지원
회원의 가입과 탈퇴	가입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회원이 되고 탈퇴 시에는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임의가입과 탈퇴).
지역과 중앙의 노동회의소	각 지역마다 지역노동회의소를 두고 지역노동회의소를 대표하는 중앙노동회의소를 둠
대의원과 이사회 대표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노동회의소 마다 100명 이내의 대의원을 두고, 중앙노동회의소의 대의원 수는 정관으로 정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대의원은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 중앙노동회의소의 대의원은 지역노동회의소에서 선출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납부의 의무가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노동회의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자료 :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9.2.27. 발의)

V. 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정책지원 방안

1. 연구결과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은 감소하였다.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3.6%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3.9배 높은 -14.0%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가 -2.3% 줄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6.9배 높은 -15.8% 임금이 줄었다. 정규직도 노동시간과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있지만,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업무강도 측면에서는 필수업무 노동자의 업무강도 강화가 확인되었다. 필수업무 노동자 중 업무강도가 높아진 비율이 32.9%였으며, 그 밖의 노동자는 17.4%로, 필수업무 노동자의 코로나19 이후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노동시간이 줄었는데도 업무강도가 높아진 비율의 차이가 컸는데, 필수업무 노동자는 61.5%가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지만 업무강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노동자는 21.9%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절반(45.6%) 가까이 되었으며,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한 경우도 32.4%로 나타났다.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경우는 28.7%였으며, 응답자의 1/4 사업장에서는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비교적 수용하는 태도였다. 코로나19에 의해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이의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일련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노력, 정부정책 활용 노력, 그리고 불가피한 측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실직한 경우는 8.6%였으며, 비정규직에 집중되었다. 특히 일용직 응답자의 1/4(26.0%)이 코로나19를 직접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으며, 시간제도 15.0%로 실직 경험 비율이 높았다. 실직자 절대 다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는데, 3.4%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하여, 고용보험이 취약계층노동자에게는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업급여를 못하는 이유로는 91.8%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 인식 조사에는,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불안감이 심각한 경우 27.9%, 우울감이 심각한 경우 14.1%였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도 상당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실직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는데, 정규직은 실직을 걱정하는 비율이 30.7%였지만, 비정규직은 66.1%로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시간제와 일용직은 10명 중 8명이 실직을 우려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임금과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했던 비정규직이기에 실직우려 또한 높았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코로나19가 우리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단축, 임금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데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생활실태도 코로나19 전후로 변화하였다. 정규직은 가구소득의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79.2%, 감소하였다는 비율 17.8%였지만, 비정규직은 52.5%가 가구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 가구의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46.3%는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가구 재정상황도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32.2%, 내년에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0.3%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임금의 감소를 겪은 비정규직은 현재 가구재정 상태와 미래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코로나19 전후로 건강, 일자리, 가계재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 등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는 하락하였다. 일자리와 가계재정 만족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코로나19가 일과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만족도가 하락했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은 일자리와 가계재정에서의 만족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코로나19 이후 일에서 겪는 어려움과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든지, 고용불안을 겪는다든지의 어려움을 응답하였다. 생활에서 어려움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불편함과 모임과 활동 제한, 여행 및 여가생활 감소 등을 주로 응답하였다.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로는 일자리 대책, 방역조치, 생계안정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2) 면접조사 결과 요약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겪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임금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참여자의 코로나19 이전 평균 임금은 약 240만원이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 12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업직 및 면세점 판매직과 현장 일용직, 공연예술,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 감소폭이 컸다. 노동시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8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임금에 영향을 미쳐 상당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 임금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고용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계기가 된 3월 대구 신천지 사건과 8월 광화문 집회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이후에는 단순히 근무시간만 단축했지만, 8월 이후에는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업 등이 확산되면서 소득이 줄자 노동자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 또한 적금 및 보험을 해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맞벌이가 홀벌이보다 경제적 상황이 괜찮지만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 되면 맞벌이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노동자들은 내다봤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노동자들은 지원책을 잘 모르고 있거나 신청이 복잡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노동자들의 심리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많지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하고, 실업급여를 볼모로 사직을 강요했으며,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사가 피해 입을 경우 노동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코로나19에 대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협의 과정을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고 대부분 내년 1월까지 상

황을 지켜본 뒤 뚜렷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수가 이직, 전직, 창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시 정책방안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의 시간제,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 일감이 줄고, 소득은 감소했으며, 실직을 경험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직하더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여서, 고용보험이 취약계층노동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하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고용안전망 확대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노동자일수록 더 두터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고용안전망으로 제외되어 있다. 실태조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3.4%였으며, 대다수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면접조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볼모로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책수요 조사에서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취약계층노동자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은 2020년 5월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조속하고 전면적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토론회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범형으로 서울형 노동계좌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20.5.12. 보도). 서울형 노동계좌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전에 지역단위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취지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빠른 시기에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지역형으로 고용보험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서울지역에 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서울시와 함께 분담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업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개념이다. 서울시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사용자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중앙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취업자 중심

으로 고용보험체계를 전환하기로 하면서,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예술인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가입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서울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용노동부는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노동자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서울지역 취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가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도 서울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시는 2020년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0%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나머지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원, 충남, 전북은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는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보다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향후에도 2020년 추진실적을 검토하여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직업훈련 지원

이번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전직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취약계층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지원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현재 4개 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교육원을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교육원이 여의치 않으면 산업인력공단의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취약계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서울시 설립 노동권익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체 실직자들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설립·운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노동자 중 구직서비스가 필요한 노동자 지원도 필요하다. 서울시 설립 노동센터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서울지역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이외에 취업상담 및 알선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도 있다.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와 함께, 취업연계를 필요로 하는 노동센터 이용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해 노동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8.6%였으며, 면접조사에서는 실직하거나 일감이 줄어 반 실업상태인 노동자도 있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서울지역 취업자는 2019년 5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다가, 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성, 20대 청년, 임시직, 판매서비스직의 취업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4) 피해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하였다. 고용위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시 조치이다. 향후에도 사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를 받는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14.1%가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임금삭감·반납·채불 경험이 7.5%, 권고사직 및 계약해지 3.0%, 사생활 침해 1.8% 등이었다. 면접조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볼모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압박하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사가 일시 폐쇄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손해비용을 감염 노동자가 지불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적 모임 참석 금지, 가족 외식 금지, 대형마트 출입 금지 등의 서류에 서명 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권역 및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 노동현장에서 받

생하는 다양한 노동권의 침해에 대해 무료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광역센터 1개소, 권역센터 4개소, 자치구센터 18개소가 있으며, 노동권리보호관도 65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지역 피해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면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이하 감정센터)를 활용하여 심리상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등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감정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방문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의 경우, 2회까지 전화를 통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담회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조만간 감염 확산이 진정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대면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심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면접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보다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설문 및 면접조사에서 취약계층노동자는 임금이 크게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줄어듦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득이 줄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먼저 생활비를 소득수준에 맞춰 줄였으며, 예금 및 보험을 해지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의 고용유지 및 실업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 대상이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약계층노동자는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지원을 했지만, 감소한 소득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며, 일회성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동자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소규모 사업장에서 객공 형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노동자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에,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노동자는 신청하더라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노

동이력을 증빙해야 하는데, 사업주로부터 증빙을 받지 못해 지원 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득이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이후에도 진행될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직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생계지원금과 함께 생활자금용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용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상인원과 용자금액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 단체에 소속 요건으로 용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긴급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이해대변 지원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노동조합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11%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수년째 3% 미만이다.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조사무실을 무상임대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나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전문가를 파견하여 노조교육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고용불안 및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다음으로 노동공제회도 고려할 만하다. 공제회는 자치위원회에 입각해서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일부 업종에서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받아 봉제인공제회가 설립되었다. 노동공제회는 조합원(회원)이 일정액의 회비를 내면 회원들은 주거, 건강(의료), 금융상담, 교육상담, 심리상담, 상조, 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제도개선, 연구개발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즉 공제회는 노동+사회적 경제가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 조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공제회 설립에 서울시의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으로 노동회의소도 고려할 수 있는데, 사용자단체의 상공회의소와 대비되는 조직이다.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노동회의소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구성원의 회비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법률상담, 교육훈련, 고용,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는 4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노동회의소를 위한 기반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4.13.),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5.18.),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8.13.),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19.),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명에 474억 지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2.22.),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2.23.),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 김난주 이선행(2020),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코로나
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발표문(2020.6.18.)
김유빈(2020), 코로나19가 노동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2020.9.23.)
- 김종진(2020),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코로나 과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6회
노동포럼 발표문(2020.6.19.)
- 김준영(2020),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20년 8월호
- 두루누리사회보험(2020.6.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박정우(2020),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서울노동권익센터 동향과 이슈
2020-01
- 서울시 보도자료(2020.3.13.) 서울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서울시 보도자료(2020.3.30.),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 1일부터 접수
서울시 보도자료(2020.4.20.),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업종별 최대 9명까지
서울시 보도자료(2020.5.3.), 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
서울시 보도자료(2020.5.6.),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서울시 보도자료(2020.8.11.), 서울시, 코로나피해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지자체 첫 용자 ...
36억 투입
- 서울시 보도자료(2020.10.5.), 서울시, 코로나 고용위기 1만개 일자리 대책 ... 청년 등 3대 취업취약

계층 핀셋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2020), 서울지역 고용동향(2020년 1월~8월)

신태중(2020), 고용보험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노동동향, 서울노동권익센터 동향과 이슈 2020-02

윤정혜(2020),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 및 증가 요인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0 vol.3

오상봉(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고용노동브리프 제99호

이창근(2020),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판 -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5

장지연-홍민기(2020),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 노동리뷰 2020년 6월호

장지연(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고용노동브리프 제96호

정홍준-장희은(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홍준(2020),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지상훈(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고용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20년 9월호

직장갑질119(2020),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2차)(2020.6.)

한국고용정보원(2020), 17개 시도별 고용동향, 한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20년 가을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9),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이슈페이퍼 2019-03

OECD(2020), OECD 고용전망 2020, 코로나19 : 보건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한국노동연구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2020.12.15. 검색)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https://ei.go.kr>)

경향신문(2020.5.12.), 박원순 시장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을”

The Guardian(2020.4.26.),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노동자 조사

 -

안녕하십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와 영향을 확인하고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증서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며, 실태파악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주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관 담당자 : 신태중 연구위원
first93@labors.or.kr

조사 **오감리서치**
대행 담당자 : 오미영 실장
기관 ☎ 02-2038-4797 omy@ogamm.kr

A. 기본사항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전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A1. 조사대상	1) 일하는 지역이 서울지역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조사중단) 2)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0년 2월에 취업상태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조사중단)
A2. 고용형태	① 상용직(정규직, 무기계약직) ② 기간제(계약직) ③ 시간제 ④ 일용직 ⑤ 파견·하청·용역 ⑥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⑦ 자영업자(종업원 고용하여 사업 운영) → 조사중단 ⑧ 무급가족종사자(가족 운영 사업장에서 무보수 근무) → 조사중단 ⑨ 지난 9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음 → 조사중단
A3. 사업장규모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인 이상 ⑧ 잘 모름/해당없음(프리랜서 등)
A4. 업종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도매 및 소매업 ④ 운수 및 창고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정보통신업 ⑦ 금융 및 보험업 ⑧ 부동산업 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⑩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⑪ 교육서비스업 ⑫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⑮ 기타
A5. 직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정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_____
A6. 직업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전 일자리에서의 직업 작성
A7. 근속기간	현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 _____년 _____개월 (예, 3년 5개월)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전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 작성
A8. 코로나19 영향	* 귀하는 코로나19 영향 관련 아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 노동자입니까? ① 재택근무 등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로, 코로나19로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 없는 노동자 ② 필수적 일을 하는 노동자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노동자 ③ 코로나19로 실직 위험, 일감 축소, 임금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④ 해당사항 없음

〈 설문지 작성 방법 〉

- ※ → 문~로 이동하라는 지시문이 있으면 지시문에 따라 이동하시고, 특별한 지시문이 없으면 아래 문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 (복수응답 가능)이라는 표시가 없는 문항 이외에는 한 가지 보기만 응답 가능합니다.

B. 고용 및 노동조건 변화

B1. 귀하는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
- ② 일하는 시간에 변화가 없었다
- ③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

B1-1.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B1의 ① 응답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응답자)	코로나19 상황 이전 주당 평균노동시간 약 ____ 시간 코로나19 상황 이후 주당 평균노동시간 약 ____ 시간
B1의 ② 응답자 (일하는 시간 변화가 없는 응답자)	주당 평균노동시간 약 ____ 시간
B1의 ③ 응답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응답자)	코로나19 상황 이전 주당 평균노동시간 약 ____ 시간 코로나19 상황 이후 주당 평균노동시간 약 ____ 시간

B2. 귀하는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업무강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업무강도가 낮아졌다
- ② 업무강도에 변화가 없었다
- ③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B3. 귀하는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월 평균소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소득이 줄었다
- ② 소득의 변화가 없다
- ③ 소득이 늘었다

B3-1.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월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B3의 ① 응답자 (소득이 줄어든 응답자)	코로나19 상황 이전 월 평균소득 약 ____ 만원 코로나19 상황 이후 월 평균소득 약 ____ 만원
B3의 ② 응답자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응답자)	월 평균소득 약 ____ 만원
B3의 ③ 응답자 (소득이 늘어난 응답자)	코로나19 상황 이전 월 평균소득 약 ____ 만원 코로나19 상황 이후 월 평균소득 약 ____ 만원

B3-2. (B3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의 월 평균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일자리를 잃어서
- ② 노동시간이 줄어서
- ③ 기본급 삭감
- ④ 성과급(수당 및 보너스)이 줄어서
- ⑤ 임금체불
- ⑥ 기타 _____

B3-3. (B3에서 ③ 응답자만) 귀하의 월 평균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일감이 늘어서
- ② 노동시간이 늘어서
- ③ 기본급 인상
- ④ 성과급(수당 및 보너스)이 늘어서
- ⑤ 부업을 시작해서
- ⑥ 기타 _____

B4.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일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예	아니오	잘 모름/ 해당없음
1) 임금(급여) 삭감·반납	①	②	③
2) 임금(급여) 체불	①	②	③
3) 인원 감축(권고사직, 계약해지, 해고)	①	②	③
4) 휴가 사용 강제	①	②	③
5) 무급휴직	①	②	③
6) 유급휴직	①	②	③
7) 사업장 휴업·폐업	①	②	③
8) 노동시간(근무시간) 단축	①	②	③
9) 노동시간(근무시간) 연장	①	②	③
10) 작업량 감소	①	②	③
11) 작업량 증가	①	②	③
12) 경영상황 악화	①	②	③
13) 신규고용 축소 또는 취소	①	②	③
14) 근무형태 변화(재택/원격근무 등)	①	②	③
15) 근무시간대 변화	①	②	③

B5.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일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복수응답)

- ① 임금(급여) 삭감·반납 ② 임금(급여) 체불 ③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 ④ 연차휴가 사용 강요 ⑤ 무급휴업(무급휴가, 무급휴직) 강요
- ⑥ 연차휴가 사용 불허 ⑦ 가족돌봄 휴가 사용 불허 ⑧ 다른 직원과 차별 대우
- ⑨ 연장근무 등 정당한 보상 거부
- ⑩ 특정지역 방문금지 등 과도한 사생활 제한
- ⑪ 기타 _____
- ⑫ 경험한 적 없음

B5-1. 코로나19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면, 그 이유와 과정을 서술해주시시오.

(예 : 코로나19로 작업량이 줄었다며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금삭감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었다며 연차휴가 사용 및 무급휴직 강요 등)

B6. 귀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사업주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와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는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사업주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과도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B7. 귀하의 사업장(일자리)에서 개인의 유급연차휴가와 별개로 몸이 아프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유급 병가제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해당사항 없음

B8. 귀하의 사업장(사무공간,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아래의 코로나19 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요.

항목	예	아니오	잘 모름/ 해당없음
1) 체온감지기 설치	①	②	③
2) 엘리베이터 항균필름 부착	①	②	③
3) 책상 등 위치, 방향 조정, 노동자 사이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개인별 고정자리 배치 등 근무밀집도 개선	①	②	③
4)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	①	②	③
5)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①	②	③
6)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	①	②	③
7) 주기적 환기(2시간마다 1회 이상) 또는 공조기·공기청정기 가동	①	②	③
8) 사무 가구·기기, 개인 물품 소독 및 청결 유지	①	②	③
9) 주기적 사업장 시설·공간 등 청결·소독 유지 관리	①	②	③
10)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있는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지시가 없더라도 병가·유급휴가 활용 등 귀가 조치	①	②	③
11) 의심환자 발견시 대기 가능한 별도 격리장소 마련	①	②	③

B9. 귀하는 귀하의 사업장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별로 안전하지 않다 ④ 전혀 안전하지 않다

B10. 귀하는 지난 8개월간(2020년 1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실직한 경험이 있음 → (B11으로 이동)
 ② 아니오, 실직한 경험이 없음 → (C1로 이동)

(아래 문항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만 답변해주시요.)

B11. 귀하는 지난 8개월간 실직을 경험하셨다면, 어떻게 일자리를 잃으셨습니까?

- ① 비자발적 해고
 ② 권고사직
 ③ 자발적 퇴사
 ④ 계약기간 만료
 ⑤ 계약해지
 ⑥ 일감(업무) 감소
 ⑦ 기타 _____

B17. (현재 실직중인 응답자만) 취업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주된 애로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음
- ② 원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 ③ 희망하는 일자리에 경쟁이 치열함
- ④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맞지 않음
- ⑤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함
- ⑥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⑦ 육아 및 가사노동과 구직활동의 병행해야 해서
- ⑧ 건강상의 문제로
- ⑨ 여성, 기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 문턱이 높아서
- ⑩ 기타 _____

B18. (현재 실직중인 응답자만) 귀하께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면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 ① 1개월 이내 가능
- ② 1~3개월 이내 가능
- ③ 3~6개월 이내 가능
- ④ 6~12개월 이내 가능
- ⑤ 12개월 이상 소요
- ⑥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음
- ⑦ 기타 _____

C. 환경변화 인식

C1. 귀하는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안전하지 않다
- ② 별로 안전하지 않다
- ③ 어느정도 안전하다
- ④ 매우 안전하다

C2.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 ① 불안감이 전혀 없다
- ② 불안감이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편이다
- ③ 불안감이 심각한 편이다
- ④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

C3. 귀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마나 우울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 ① 우울감이 전혀 없다
- ② 우울감이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편이다
- ③ 우울감이 심각한 편이다
- ④ 우울감이 매우 심각하다

C4. 귀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5.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과거와 같은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6.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7.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일자리 유지 ② 구직 ③ 생계비 ④ 과로
 ⑤ 건강 ⑥ 노동안전 ⑦ 자녀양육 ⑧ 임금보장
 ⑨ 없음 ⑩ 기타 _____

C8.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무엇을 가장 우려하고 계십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일자리 유지 ② 구직 ③ 소득 저하 ④ 취약계층 생계
 ⑤ 경기침체 장기화 ⑥ 방역안전 소홀로 인한 감염위험 ⑦ 없음
 ⑧ 기타 _____

C9. 귀하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약간 있을 것이다 ④ 매우 클 것이다

C10. 귀하는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자리 감소	①	②	③	④
2) 노동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3) 임금 저하	①	②	③	④
4) 일하는 방식 변화(재택·원격근무 등)	①	②	③	④
5) 비대면 서비스산업 확대	①	②	③	④
6) 노사관계 악화	①	②	③	④
7) 사회안전망 강화	①	②	③	④
8) 모호한 고용형태 노동자 증가(특고, 플랫폼 등)	①	②	③	④

D. 정책수요

D1. 귀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신청여부, 수혜여부, 그리고 수혜받았다면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인지여부		신청여부 (인지한 경우)		수혜여부 (신청한 경우)		도움정도 (수혜받은 경우)			
	알았음	몰랐음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수혜받음	수혜받지 못함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 고용유지지원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3)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4) 서울형 알바 청년 긴급수당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5) 생활안정자금 융자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D2. (정부 지원정책을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지원대상이 안 됨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신청방법을 몰라서
1) 고용유지지원금	①	②	③	④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②	③	④
3)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①	②	③	④
4) 서울형 알바 청년 긴급수당	①	②	③	④
5) 생활안정자금 융자	①	②	③	④

D3. 귀하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다음의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①	②	③	④
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①	②	③	④
3) 생활안정자금 융자	①	②	③	④
4) 직업훈련 지원	①	②	③	④
5) 일자리 알선	①	②	③	④
6)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뉴딜일자리)	①	②	③	④
7)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①	②	③	④
8) 감염병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역물품 지원)	①	②	③	④

D4. 귀하는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다음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확대 재정정책·일자리창출(정부 재정지출 확대)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①	②	③	④
4) 고용안전망 확대	①	②	③	④
5) 보편적 복지 확대	①	②	③	④
6) 국민연금 보장 확대	①	②	③	④
7) 의료보장 확대	①	②	③	④
8)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①	②	③	④
9) 노동기본권 확대	①	②	④	④

E. 생활실태 및 만족도

E1. 귀하의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E2. 귀하의 월 평균 총 가구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E3. 현재 귀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하여, 귀 가구의 실제 소득은 다음 중 어느 수준입니까?

- ① 매우 여유 있다 ② 약간 여유 있다 ③ 적정 하다
 ④ 약간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E4.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할 때, 귀 가구의 소득과 부채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항목	크게 증가했다	약간 증가했다	동일하다	약간 감소했다	크게 감소했다
1)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부채	①	②	③	④	⑤

E4-1.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가구 소득이 줄었다면, 월 평균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월 _____ 만원

E4-2.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가구 소득이 줄었다면,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다?
 (복수응답)

- ① 예금(적금) ② 보험해지 ③ 금융권 대출
- ④ 자산 처분(부동산, 차량, 주식 등) ⑤ 친인척 차입 ⑥ 생활비 축소
- ⑦ 기타 _____

E5. 현재 귀 가구의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좋다 ⑤ 매우 좋다

E6. 귀하는 내년에 귀 가구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조금 나빠질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 ④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E7. 귀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래 항목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각각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건강	작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일자리	작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가계재정	작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가족관계	작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친구관계	작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반적인 삶	작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F. 인구학적 특성

F1. 성별	① 남 ② 여
F2. 연령	만 _____ 세
F3.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졸(재학 중퇴 포함) ③ 대학원 이상
F4. 혼인여부	① 비혼 ② 기혼
F5. 맞벌이여부	① 예 ② 아니오
F6. 자녀유무	① 있다 (_____ 명 → 만 8세 이하 자녀 _____ 명) ② 없다
F7. 가구원 수	① 본인 포함 _____ 명 ② 경제활동 가구원 수 _____ 명
F8. 현거주지	서울지역 : _____ 구 / 기타지역 : _____ 도시) _____ 시(군)구)

G. 애로 및 제안

G1. 현재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 또는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G2. 본인이 겪는 어려움 또는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G3.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집필진

-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우상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 발행연월일 2020년 12월 31일
- 발행인 이남신
-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02)6925-4349, www.labors.or.kr

ISBN 979-11-87917-37-3

(비매품)